

2016. 9

羅州 旌烈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자료 보고서

전라남도

나주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문화재 구분	① 지정 종류		사적			
	② 유형/종목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인물기념/ 사우			
대상 문화재 현황	③ 명칭	한글	나주 정렬사	한자	羅州 旌烈祠	
		영문	Naju Jeongryulsa			
	④ 시대/연대		조선시대(1606)			
	⑤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정렬사길 43(대호동 642)			
	⑥ 구조/형식/형태		사당 1동(92.9㎡, 팔작지붕), 전사당 1동(21.3㎡, 맞배지붕), 내삼문 1동(22.3㎡, 맞배지붕), 외삼문(29.4㎡, 맞배지붕)			
	⑦ 재료/품질		전체 목조와가			
	⑧ 수량/규모/크기	해당문화재	나주 정렬사 일원 14,114㎡			
		보호구역	문화재 보존 영향행위 기준안 참조			
		보호물	정렬사비(전라남도기념물 제 48호)			
	⑨ 현재 용도/기능		나주 정렬사			
	⑩ 소유자 (단체)	성명(명칭)	나주시	전화번호	061-339-8613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⑪ 연혁/유래/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정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절한 건재 김천일(1537~1593)을 비롯한 김상건(1557~1593), 양산숙(1561~1593), 임희(1562~1624), 이용제(1565~1597) 등 충절인물 5위를 배향한 호국인물 역사유적이다. · 1606년(선조 39)에 나주목 서부면 교촌(월정봉 아래)에 건립되었다가 1607년 성내로 이전된 후 곧바로 사액되었다. · 이후 1745년(영조 21)과 1821년(순조 21)에 사제문이 내려졌으며 1844년(헌종 10)에는 나주목사 김유희가 중건하였으나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다. · 1953년 문열공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1964년에 송월동에 신실을 마련하였으나 이후 1966년에 남산공원으로 이건하였고, 1984년에 이르러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 정렬사 내에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정렬사비(1626년)와 정렬사유허비(1871)가 세워져 있다.		
⑫ 관리단체(안)	단체명	나주시	대표자	강인규
	지정신청사유	정렬사 관할 기초자치단체		
⑬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p>· 나주 정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절한 건재 김천일(1537~1593)을 비롯한 김상건(1557~1593), 양산숙(1561~1593), 임희(1562~1624), 이용재(1565~1597) 등 충절인물 5위를 배향한 호국인물 역사유적임.</p> <p>· 정렬사 내에 세워져 있는 정렬사비(1626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48호)와 정렬사유허비(1871), 그리고 김천일과 양산숙의 증직 교지, 김천일 친필유묵 등은 기록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p>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7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지사 직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 조사 의견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재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재 도면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그 밖의 필요도면 등) 5. 학술·고증자료(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 6. 사진자료(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 현황, 2000×1,500픽셀 이상의 디지털파일 포함) 7.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포함)의 위치도, 지적도(1:500~1:1,500), 수치도(1:5,000), 지형도(1:500~1:1,500), 이미지파일 및 카드 또는 셰이프(SHP)파일 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9. 문화재 보존 정비·활용계획(안)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1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p>※ 구비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건축물·구조물 등인 경우

(면적: m²)

연번	명칭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용도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정렬사	1984	목조와가 팔작지붕	92.9m ²	사당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2	전사청	1984	목조와가 맞배지붕	21.3m ²	전사당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3	내삼문	1984	목조와가 맞배지붕	22.3m ²	내삼문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4	외삼문	1984	목조와가 맞배지붕	29.4m ²	외삼문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사	14,114m ²	14,114m ²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2											
3											
계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전남주시호동	나산 224-1	임	735.1	735.1	김광진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9-2	김광진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9-2	김광진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9-2	근거리
2	전남주시호동	나산 224	임	5,520	5,520	김일환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중앙동 30	김일환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중앙동 30	김일환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중앙동 30	근거리
3	전남주시호동	나산 640	답	1485	1485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근거리
4	전남주시호동	나산 641	답	760	760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김영철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635 (정렬사길 60)	근거리
5	전남주시호동	나산 964	전	148	148	김태임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0-1	김태임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0-1	김태임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350-1	근거리
6	전남주시호동	나산 642	사	2744	2744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근거리
7	전남주시호동	나산 224-6	임	1,100	1,100	김진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11-704	김진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11-704	김진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11-704	근거리
8	전남주시호동	나산 963	전	261	261	이성은	등기 내역 열람 불가	이성은	등기 내역 열람 불가	이성은	등기 내역 열람 불가	근거리
9	전남주시호동	나산 225	임	1,984	1,984	정병석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72-2 럭키아파트	정병석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72-2 럭키아파트	정병석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872-2 럭키아파트	근거리

							102-1108		102-1108		102-1108	
10	전남 나주시 호동	960	전	267	267	안옥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70, 101동 109호(부영아파트)	안옥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70, 101동 109호(부영아파트)	안옥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70, 101동 109호(부영아파트)	근거리
11	전남 나주시 호동	649	사	434	434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근거리
12	전남 나주시 호동	709-2	전	656	656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근거리
13	전남 나주시 호동	709-4전	전	456	456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형호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근거리
14	전남 나주시 호동	709-1대	대	619	619	이애순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애순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이애순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09-1	근거리
15	전남 나주시 호동	707대	대	871	871	김계선	2016.9.12. 소유권이전 보정 처리중	김계선	2016.9.12. 소유권이전 보정 처리중	김계선	2016.9.12. 소유권이전 보정 처리중	근거리
16	전남 나주시 호동	708답	답	590	590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근거리
17	전남 나주시 호동	711-1전	전	722	722	김경근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11성북아파트 106동 410호	김경근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11성북아파트 106동 410호	김경근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 11성북아파트 106동 410호	근거리
18	전남 나주시 호동	709-3대	대	587	587	김영진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5현대아파트 101-1510	김영진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5현대아파트 101-1510	김영진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75현대아파트 101-1510	근거리
19	전남 나주시 호동	711-3전	전	678	678	공갑룡	전라남도 나주시 산정동 7-6	공갑룡	전라남도 나주시 산정동 7-6	공갑룡	전라남도 나주시 산정동 7-6	근거리
20	전남 나주시 호동	712전	전	1,473	1,473	이경자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23-5	이경자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23-5	이경자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23-5	근거리

21	전남 나주시 대호동	710답	답	925	925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엄명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36-1호 반아파트 103-402	근거리
계				23,015.1	23,015.1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m²)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재지/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설정근거 및 사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정렬사비	석조비석	173×64×18/1기	전남 나주시 대호동 646-1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전라남도기념물 제48호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재의 인문환경 및 현상·관리 상황		
구 분	내 용	비 고
입지 및 역사문화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대호동 금성산 줄기의 경사지에 동남향으로 위치 • 전면으로 案山이 형성되고 멀리 영산강이 바라다보이며 후면으로는 祖宗山인 금성산과 좌우로 청룡과 백호의 산줄기가 사우를 감싸고 있는 좋은 형국임 • 현 건물은 1984년 5월에 복원 완료된 것으로 사당(92.9㎡), 내삼문(22.3㎡), 외삼문(29.4㎡), 그리고 전사당과 관리사무소(67.3㎡), 유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외에도 홍살문과 김천일장군 동상, 정열사비(전라남도 기념물 제48호), 김천일 기적비, 김천일 실기비, 정렬사유허비 등이 있음 • 이 사우의 전체공간계획은 크게 부속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분화되어 강한 위계적 질서를 갖추고 있음 • 제향공간 안에 다시 외삼문과 내삼문을 건립하여 그 사이에 진입공간(과정적공간)을 두었으며 사당은 이 구역과 2.6m의 지반차를 둔 다음 공간에 건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정기적으로 제향 • 나주시역사도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 	
보수·정비 및 현상변경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44년 중건 • 1964년 송원동에 복원 • 1966년 남산공원으로 이전 • 1984년 대호동으로 이전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사당(정렬사 92.9㎡), 내삼문(22.3㎡), 외삼문(29.4㎡), 전사당(21.3㎡), 유물관, 관리사무소(67.3㎡), 홍살문, 김천일장군 동상, 정열사비(전라남도 기념물 제48호), 김천일 기적비, 김천일 실기비, 정렬사유허비 등	
소재지 및 주변의 지정·등록 문화재 분포 현황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보물 제50호), 나주향교 대성전(보물 제394호), 나주 읍성(사적 제337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나주 금성관(전남 유형문화재 제2호), 나주 심향사 석조여래좌상(전남 유형문화재 제309호) 외	
그 밖의 사항		

目次

I.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4
II. 정렬사 건립과 사액 및 기타 연혁	23
III. 배향인물	36
1. 金千鎰(1537~1593)	27
2. 金象乾(1557~1593)	27
3. 梁山濤(1561~1593)	27
4. 林 檉(1562~1624)	28
5. 李容濟(1565~1597)	28
IV.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김천일	44
1. 나주지방 사례로 본 임란의병 연구과제(조원래, 전 순천대학교수)	44
2. 호국 의병의 귀감 김천일(이병태, 군사편찬위원)	53
3. 건재 김천일의 학문과 의병활동(김정우, 조선대 석사논문)	61
V. 관련 문화재	80
1. 健齋集	80
2. 教旨	84
3. 기타문서	85
4. 旌烈祠碑	85
5. 旌烈祠遺墟碑	92
VI. 배향인물 관련기록	93
1. 金千鎰	93
2. 金象乾	109
3. 梁山濤	110
4. 林 檉	110
5. 李容濟	111
VII. 건축물 현황	112
1. 입지 및 배치	112

2. 건축 양식과 구조	113
VIII.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15
1. 임진왜란, 김천일과 호남의병 나라를 구하다	115
2. 나주 사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심공간, 정렬사	115
3. 김천일의 도학정신, 한말의병까지 이어지다	116
4. 김천일 선생의 증직교지 등 다양한 기록유산을 소장하다	116
IX. 배향인물 관련유적	117
1. 金千鎰	117
2. 梁山壽	123
3. 林 檜	123
X.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 기준안	125
XI. 보존 활용 계획	127

그림 목차

- 그림 1. 정렬사 위치도 14
- 그림 2. 정렬사 위치도(daum 스카이뷰) 15
- 그림 3. 정렬사 이설 후 모습(1986년) 15
- 그림 4. 정렬사 전경 16
- 그림 5. 사당(정렬사) 정면 모습 16
- 그림 6. 사당(정렬사) 내부 모습 17
- 그림 7. 내삼문(절의문) 정면 17
- 그림 8. 외삼문(창의문) 정면 18
- 그림 9. 전사당 18
- 그림 10. 유물관 19
- 그림 11. 홍살문 19
- 그림 12. 정렬사비(전라남도기념물 제 48호) 20
- 그림 13. 정렬사유허비 20
- 그림 14. 문열공 건재 김선생 실기비 21
- 그림 15.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선생 기적비 21
- 그림 16. 문열공 김천일선생 동상 22
- 그림 17. 문열공건재김천일선생 기념사업추진회요람 내 회원 명단 30
- 그림 18. 김천일 증직교지(좌) 및 친필유묵(우) 30
- 그림 19. 1967년 남산공원 내 정렬사 이건 후 모습 31
- 그림 20. 남산공원 이건 상량식 31
- 그림 21. 1967년 남산공원 내 정렬사 주변정비 후 모습 32
- 그림 22. 남산공원 내 정렬사(1967년) 32
- 그림 23. 남산공원 내 정렬사 준공식(1967년) 33
- 그림 24. 1968년도 정렬사 대제 모습 33
- 그림 25. 남산공원 내 정렬사(1972년) 34
- 그림 26. 1977년도 정렬사 대제 모습 34
- 그림 27. 1984년도 정렬사 중수 후 전경 35
- 그림 28. 1984년도 정렬사 중수 후 모습 35
- 그림 29. 건재선생문집, 정렬사 유물관 소장(좌측 영인본) 81
- 그림 30. 김천일 증직교지 84

그림 31. 양산속 증직 교지	85
그림 32. 김천일 친필 서한	85
그림 33. 조선고적보존공사 내 정렬사비 기록물(1934~1936년)	90
그림 34. 남산 내 정렬사비(1979년)	91
그림 35. 정렬사비 현재 모습	91
그림 36. 정렬사 유허비	92
그림 37. 유물관 주변 전경	112
그림 38. 정렬사 배치도	112
그림 39. 사당 전경	113
그림 40. 내삼문 전경	113
그림 41. 외삼문 전경	114
그림 42. 전사당(좌)과 유물관(우)	114
그림 43. 정렬사비각	114
그림 44. 김천일 묘소 및 묘비(1975년)	120
그림 45.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25

표 목차

표 1. 정렬사 연혁	23
표 2. 건재집에 실린 김천일 행력	82
표 3. 『조선왕조실록』 내 김천일 기사	93
표 4. 『조선왕조실록』 내 김상건 기사	109
표 5. 『조선왕조실록』 내 양산속 기사	110
표 6. 『조선왕조실록』 내 임회 기사	110
표 7. 『조선왕조실록』 내 이용계 기사	111
표 8.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26

I.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정렬사는 나주시 대호동 금성산 줄기의 경사지에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 사우가 자리한 곳은 전면으로 案山이 형성되고 멀리 영산강이 바라다보이며 후면으로는 祖宗山인 금성산과 좌우로 청룡과 백호의 산줄기가 사우를 감싸고 있는 좋은 형국이다. 1981년부터 시작하여 1984년 5월에 복원이 완료된 이 사우는 현재 건물로는 사당(92.9㎡), 내삼문(22.3㎡), 외삼문(29.4㎡), 그리고 현대식 건물인 관리사무소(67.3㎡)가 있으며 이외에 홍살문 1개소, 김천일장군 동상, 정렬사비, 기념비 등이 있다.

이 사우의 전체공간계획은 크게 부속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분화되어 강한 위계적 질서를 갖고 있다. 전면에 있는 부속공간에는 주차장과 광장이 조성되어 있고 후면 높은 곳으로는 별도의 장방형 담장을 설치하여 신성한 제향공간을 계획하였다. 제향공간 안에는 다시 외삼문과 내삼문을 건립하여 그 사이에 진입공간(과정적공간)을 두었으며 사당은 이 구역과 2.6m의 지반차를 둔 다음 공간에 건립하였다. 건물의 추근 일직선축으로 홍살문에서 사당까지 일치하고 있으며 외삼문에서 사당에 이르는 동선에는 화강암 부석 포장을 하였다. 그리고 제향공간 경내에는 잔디식재로 산뜻하게 단장되어 있다. 현재 정렬사의 총 대지면적은 6,861평이며 담장으로 둘러진 사당 경내 면적은 약 4,0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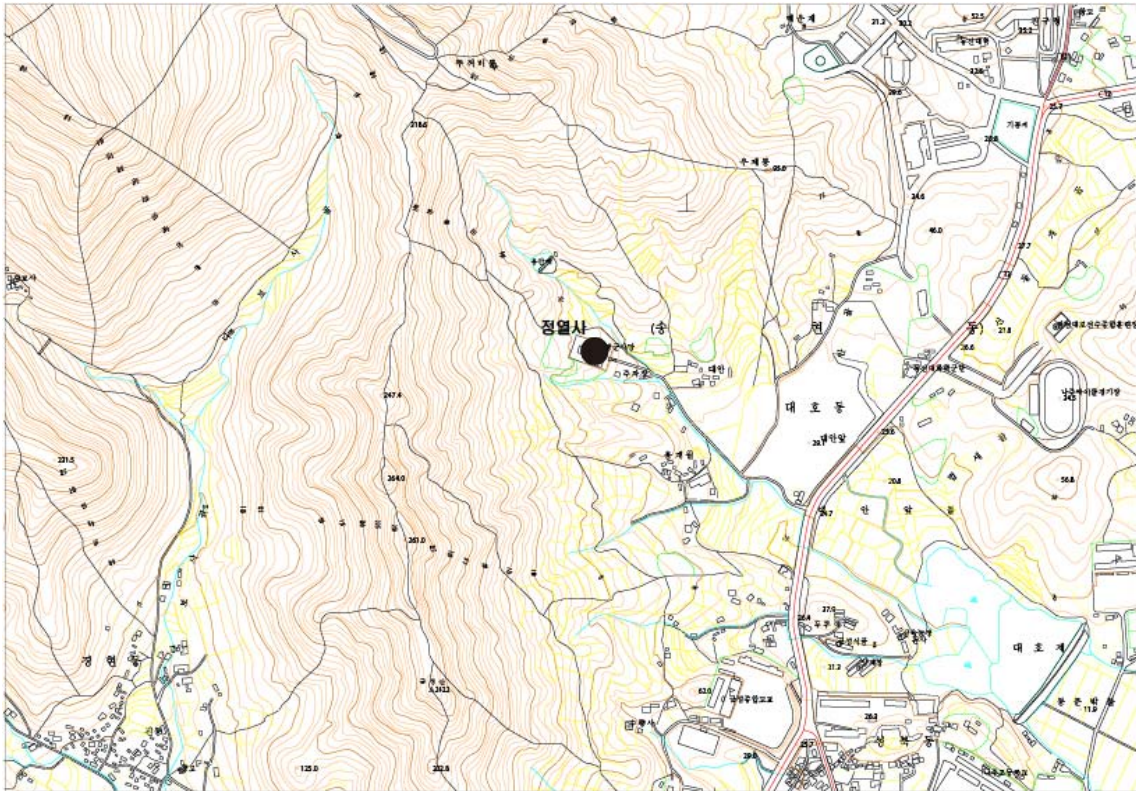


그림 1. 정렬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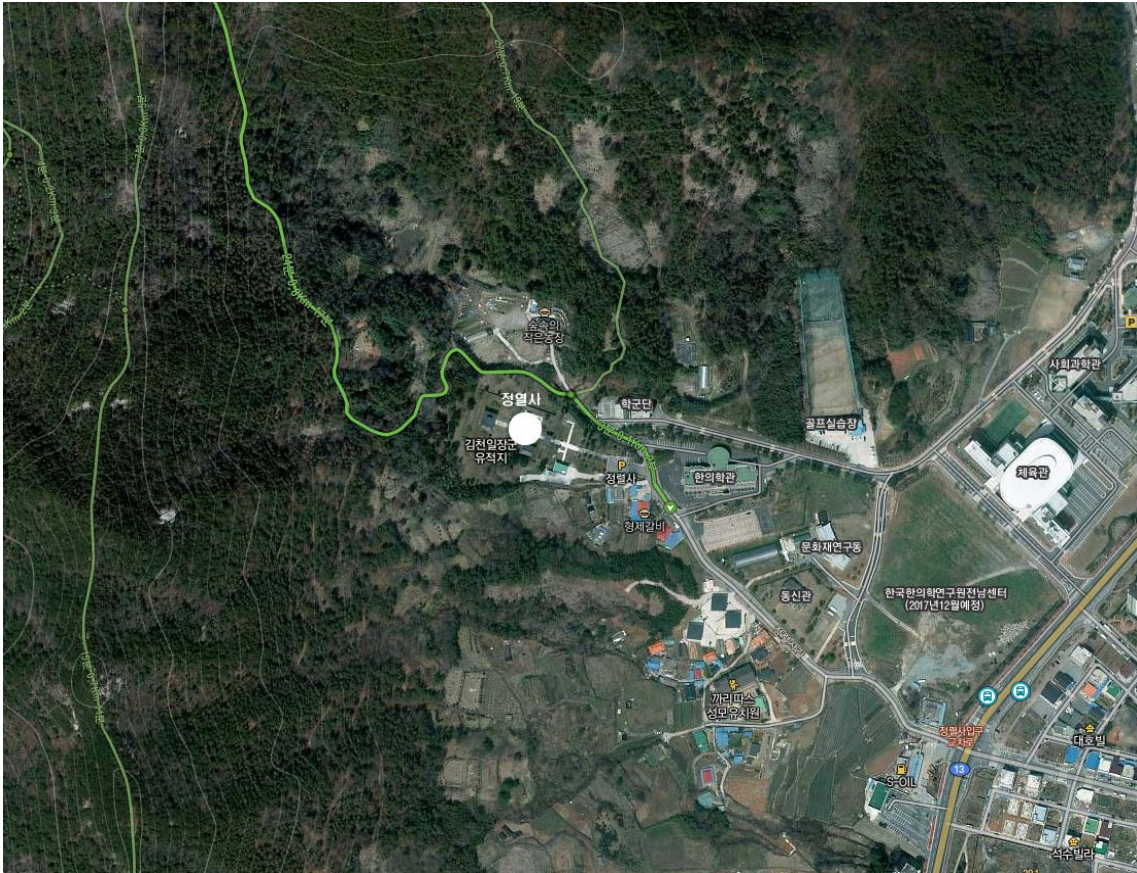


그림 2. 정려사 위치도(daum 스카이라이프)



그림 3. 정려사 이설 후 모습(1986년)



그림 4. 정렬사 전경



그림 5. 사당(정렬사) 정면 모습



그림 6. 사당(정렬사)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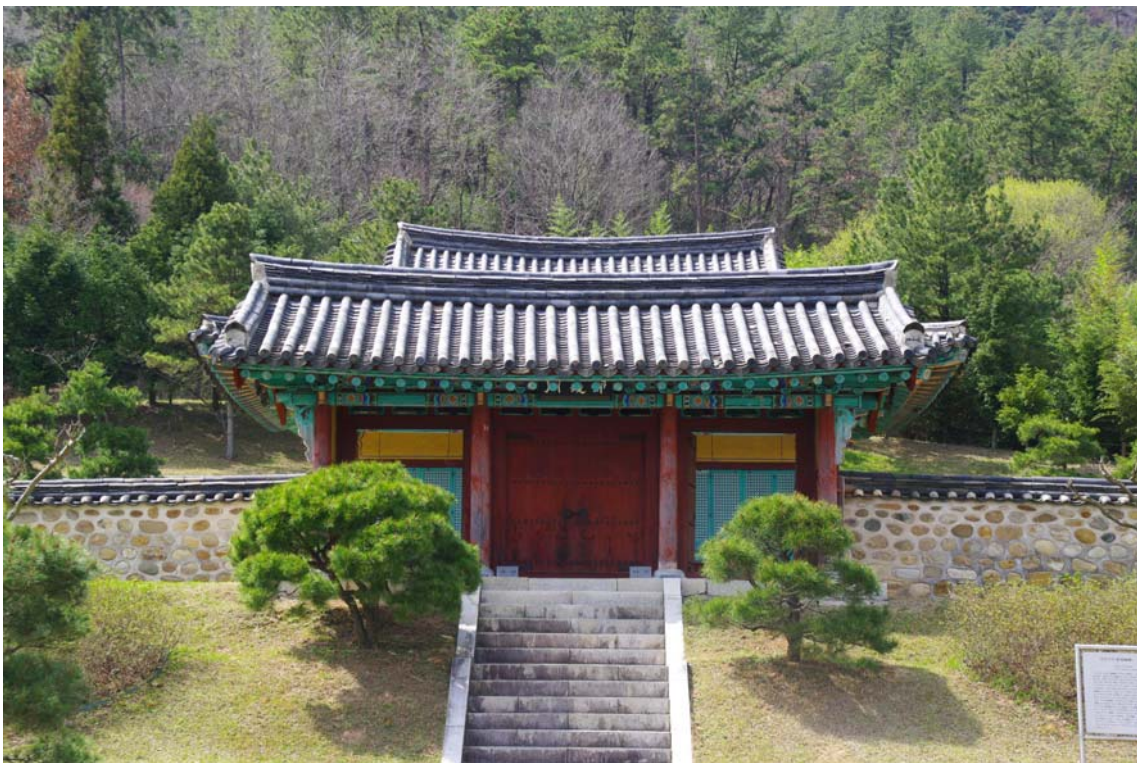


그림 7. 내삼문(절의문) 정면



그림 8. 외삼문(창의문) 정면



그림 9. 전사당



그림 10. 유물관



그림 11. 홍살문



그림 12. 정렬사비(진라남도기념물 제 48호)



그림 13. 정렬사유허비



그림 14. 문열공 건재 김선생 실기비



그림 15. 창의사 문열공 김천일선생 기적비



그림 16. 문열공 김천일선생 동상

II. 정렬사 건립과 사액 및 기타 연혁

표 1. 정렬사 연혁

연대	내 용	비 고
1603년	(선조 36)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 인 - 김천일 표창 및 명정 요구 상소	
1603년	(선조 36) 김천일 좌찬성 추증	
1606년	(선조 39) 사당 완공	
1607년	(선조 40) 정렬사 사액 김상건, 양산숙 추향	
1607년	(선조 40) 예관을 보내 치제토록 함	선조 · 동궁(광해군) 사제문
1607년	(선조 40) 州 內로 이전	
1618년	(광해군 10) 김천일 영의정 추증	
1627년	(인조 5) 김천일 ‘文烈’ 시호 하사	
1630년	(인조 8) 命旌 예관을 보내 치제토록 함	치제관 : 예조정랑 신달도
1745년	(영조 21) 예관을 보내 치제토록 함	치제관 : 승정원승지 서명형
1812년	(순조 12) 예관을 보내 치제토록 함	치제관 : 나주목사 김명진
1844년	(헌종 10) 중건	나주목사 김유희 · 나주유림
1868년	훼손	
1953년	문열공사업추진위원회 구성	
1964년	송월동에 복원	
1966년	남산공원으로 이건	
1981년	<정렬사비> 전라남도 기념물 제 48호로 지정	1981년 10월 20일
1984년	정렬사 중수(대호동)	
1986년	정렬사비 및 건재동상 이설(대호동)	

정렬사는 임진왜란 중 의병활동에 앞장선 김천일 등, 이 지방 충절인물 5위를 배향한 사우이다. 정렬사가 건립된 것은 1606년(선조 39)이었으나, 정려의 건립이 처음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603년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인의 상소로부터이다. 다음 글은 1603년 전라감사 한준겸이 김천일의 표창과 명정을 원하는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인의 상소를 보고한 글로 정렬사가 건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라 감사 한준겸이 아뢰었다. “...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 인이 와서 정소하기를 ‘난 후 의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고경명 같은 이는 광주에 사당을 세워 주었고 조헌 같은 이는 금산에 비석을 세워 주었는데, 김천일만은 아직 표창해 주는 은전이 없어서 충신의 마음으로 하여금 묻혀서 빛이 없게 만들어 수레타고 가는 사람이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남의 사론이 지금까지 답답해 하니 또한 조정에 알려서 충신의 공적을 표창해 주고 그 문려에 정표함으로써 후세에 권장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모두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소서.”¹⁾

이로 인해 김천일은 1603년(선조 36)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나, 다음 해인 1604년까지 명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은 1604년 전라감사 장만이 예조에 상소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전라감사 장만이 "도내의 나주 생원 강위호 등 58인이 정서하였는데, 그 대략에 ‘창의사 김천일은 호남의 석유로 지난 임진 왜란 때 왕성이 함락되어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적세가 맹렬하여 남북이 횡분되었으므로 모두들 「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 할 적에 분연히 일어나 동지를 규합하여 제일 먼저 대의를 창도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전으로 달려가 강회를 차단하고 행궁으로 가는 길을 뚫었으며 영남과 호남을 제어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할 적에는 외로운 성채를 힘을 다하여 지키고 상처를 싸매고서 독전하였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군량이 바닥이 나서 죽고 말았으니, 그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호위한 공과 살신성인한 절개는 옛사람에 견주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 의장 고경명의 사당을 광주에 세웠고, 조헌의 비석은 금산에다 세웠는데, 유독 김천일에 대해서만이 아직까지 아름답게 여긴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조정에 전문하여 그의 충성스런 공적을 포장하고 그의 문려를 정표하여 충신과 효자의 권면이 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예조에 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 아뢰기를, "김천일은 일개 서생으로 비분강개하여 한 고장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인심이 모두 무너져 흩어질 때에 거의의 소식이 들리자 민정이 매일 데가 있게 되었고, 향곡의 난적들이 스스로 금즙되어 감히 방자한 짓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의 과급 효과는 이미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도로 들어가 웅거하고 있으면서 서북쪽에 명령을 통하게 하였고, 힘껏 진양을 지켜 동남쪽의 보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의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여러 장수 가운데 뛰어난 자로 고경명이 수립한 공보다도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자입니다. 사당을 세우자는 것이 선비들에게서 나온 일이기도

1) 『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1603) 3월 14일 경오 기사.

하지만 편액을 하사하는 은전은 유명이 함께 빛나는 일입니다. 호남의 선비들이 천일을 위하여 강개한 마음을 일으킨 것도 타고난 덕을 좋아하는 양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문려에 정표하여 권면하는 풍교가 되게 함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계하하기를, "국사에 죽은 신하를 위해 정문한 전례는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 또한 본받게 될 것이니 다시 자세히 살펴 대신들과 의논해서 참작, 시행토록 하라."하였다. 이에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말하기를 "김천일은 諸道에서 제일 먼저 창의하여 그의 강직한 지조가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표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으며 영중추부사 이덕형은 "해조의 공사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오성부원군 이항복은 "김천일이 창의하여 사지로 나아간 것은 태양처럼 찬란하여 다시 의논할 것도 없는바, 인격과 명망이 으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정표하는 일은 마땅히 성상의 결단에서 나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영의정 윤승훈, 좌의정 유영경, 우의정 기자현은 "김천일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창의하였으니, 제도의 수창입니다. 마땅히 먼저 포상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인심을 용동시키는 거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지금 이에 대해 마련하는 중에 있고 천일도 그 가운데 들어 있으니, 그 공사가 귀일되기를 기다려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거행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하니, 삼공의 의논을 따르라고 하였다.²⁾

이로 보아 정렬사는 1604년 경 명정된 후, 1605년 성의 서쪽 월정봉(현. 나주시 교동)에 터를 잡고 짓기 시작하여 1606년(선조 39)에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정렬사 건립 당시 나주목사였던 兪大禎(재임 1605~1609)은 공장과 역부를 동원 지원토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후 1607년 사액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김천일과 함께 참전하여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아들 金象乾(?~1593)과 부장 梁山疇(1561~1593)이 추향되었다. 이 때에 선조와 동궁(광해군)은 사제문을 내려 치제토록 하였는데, 다음의 글들은 당시에 내려진 김천일에 대한 선조와 동궁(광해군)의 사제문 그리고 김상건에 대한 동궁(광해군)의 사제문이다.

宣廟賜祭文(김천일)

惟靈은 나면서 맑은 稟性을 받고 일찍부터 名節에 힘을 썼다. 스승을 찾고 벗을 모아 麗澤³⁾을 자료하였으니 덕은 시골에서 길렀으나 이름은 서울에 떨쳤다. 가세는 빈한하였으나 지위는 좋은 벼슬이었다. 百里의 땅에 帝가 되자 칭송한 소리 자자하였고 柏府⁴⁾에 관원으로 있을 때 풍채가 늠름하였다. 해가 執徐⁵⁾를 당하여 나라가 寇의 포악을 입을 때 누가 능히 적을 대항하라. 팔도가 풍미하다. 卿은 때에 집에 있었으나 정신을 분발하여 홀로 일어나 피눈물을 흘리고 격문을 전하며 충의로 격려하였다. 서로 소리를 같이 응하는 이 구름같이 합하고 빗발처럼 모여 말을 달려 북으로 올라가며 여러 번 위험을 겪기도 하였으나 江都에 진주하니 서울이 지척이다. 남은 백성은 생기가 나고 교활한 되놈은 뉘를 잃었다. 卿에 宣慰의 책임을 주고 이어 품질을 올려주니 卿

2)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1604) 10월 20일 병인 기사.

3) 麗澤 : 학우가 서로 도와서 학문과 덕을 닦음.

4) 柏府 : 司諫院

5) 執徐 : 古甲子에 辰을 이룸

은 朝飮을 받고 더욱 忠心を 가다듬어 왕사를 먹이고 구경을 수복하였다. 계속 명나라 장수를 따라 병든 몸을 끌고 남쪽으로 가 의로 일으킨 군사를 달려 晉陽을 파수하였다. 적과 더불어 성을 대치하여 한번 죽음을 달게 여겼다. 卿은 忠臣인데 또 孝子를 나니 父는 忠臣이고 子는 孝子로 죽어 빛이 난다. 卿의 一家가 아니면 누가 綱常을 숨었으랴. 晉陽의 산은 蒼蒼하고 진주의 물은 洋洋하니 높은 절의가 더욱 穢穢하고 전한 꽃다운 이름이 다함이 없다. 세월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슬프나 區區한 褒와 贈은 늦게야 卿의 영광이 되었다. 壇에 올라 牲을 薦할 제 맹서를 같이 못한 것이 恨이다. 위하여 소박한 제물을 전하며 나의 슬픔을 표하노니 靈이 있거든 와 주기를 바란다.⁶⁾

東宮賜祭文(김천일)

惟靈은 재주가 文武를 겸하고 학문은 天人을 통하였다. 여러 군의 印符를 찾으니 나라에 충신이 다. 물러나 남쪽 고을에 오래 있으므로 經綸을 펴지 못하다 邦家가 다사하여지자 분발하여 몸을 돌보지 않았다. 피눈물을 흘리고 壇에 오르니 養兵이 구름같이 모였다. 옷을 던지고 일어나되 하루를 기다리지 않았고 中流에 돛대를 치며 千里에 王事를 부지런히 하였다. 이리 저리 옮겨 싸우며 전진하니 적이 감히 당하지 못하였다. 隋城에 陣함이 賊路의 要衝이다. 江都에 들어 점령하자 兩湖가 통하였다. 왕사가 남으로 내리며 적의 소탕을 맹서함에 위태한데 임하면 기운을 분발하고 적을 만나면 몸이 먼저 하였다. ‘受困勢迫 缺二字 三板虎口’ ‘缺二字 蟻子誰援’ 男兒가 죽을 뿐이니 소중한 것은 義다. 父子가 함께 죽었으니 忠孝가 둘 다 아름다워라. 아버지는 나라에 죽고 자식은 어버이에 죽었으니 卞氏父子와 세상은 다르나 같은 짝이다. 英烈를 생각하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官을 보내 한번 제사하며 忠魂을 위로하노라.⁷⁾

東宮祭象乾文

惟靈은 일찍이 家訓을 받고 義方을 들었다. 다사한 때를 만나 父를 따라 전장에 나가니 西關을 跋涉함은 親命을 받들었던 것이다. 南州에 포위되었을 적에 朝夕으로 옆에 있었으나 외로운 城에 힘이 다하고 원조가 끊어지니 하루살이와 같았다. 鴻毛처럼 가벼이 생명을 던졌으나 무엇이 원망스럽고 무엇을 후회하리오. 아버지는 나라에 죽고 자식은 어버이에 죽었다. 卞門의 忠孝가 세상은 다르나 같은 짝이다. 너는 유감이 없을 것이나 나는 실로 네게 슬프다. 官을 보내 너를 제사하노니 너는 와 흠향하라.⁸⁾

한편 이 해에 사우를 나주읍내로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전 사유나 경위에 대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⁹⁾.

이후 1618년(광해군 10)에는 김천일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27년(인조 5)에는 文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1630년에는 정려문이 내려졌다. 다음 글은 인조가 예조정랑 申達道를 치제관

6)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 1.

7) 윗 글

8) 윗 글

9)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1990, 「羅州 旌烈祠」 『牧郷』.

으로 과견하면서 내린 사제문이다.

仁廟가 祭를 賜한 글

維天啓六年 歲次丙寅十月庚子朔 十三日 壬子에 國王은 禮曹正郎 申達道를 보내 죽은 倡義使 金千鎰의 靈에 諭祭하노라. 惟靈은 貞으로 나라를 도모하고 烈로 생명을 버리다. 한때 精忠이 千古에 英名이다. 지나간 壬辰에 교활한 倭놈이 毒을 쏘아 蠖처럼 삼키고 蝥처럼 충돌하여 八路가 거의 다 없어졌다. 宗社를 지키지 못하고 國運이 비색함에 세상에 男兒가 없으니 누가 감히 막으리오. 卿이 分연히 일어나 홀로 宇宙에 서서 誠과 節로 격려하니 義로 일어난 군사가 모두 따랐다. 璿行하여 격투하며 凶鋒을 좌절시키니 질풍같은 위대한 공적이 우리 동쪽 나라에 용동하였다. 晉城을 지킴에 이르러 포위가 급하였으나 적이 죽기로 손가락을 깨물자 성이 위태하여 썩은 것처럼 꺾였다. 바른 기운을 더욱 가다듬으니 天日이 빛을 잃었다.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죽음 보기를 탄연히 하니 처음 탄식이 어떠한 상태였던가 마침내 생명을 끊었다. 王巖(왕비)¹⁰를 이미 이었고 巡遠과 길이 같도다. 죽은 이를 褒彰하고 의로운 이를 구휼함은 先后的 돈독하신 바이니 百世에도 오히려 공경할 것이어늘 하물며 나의 初服¹¹이라. 옛 법전에 따라 芬苾로 제사하며 嘔향을 바라노니 돌아온 魂이 방불하여라.¹²

또한 英祖는 1745년(영조 21) 친히 族烈祠賜祭文을 내리기도 하였다. 다음은 당시 영조가 승정 원승지 徐命珩을 정렬사에 치제관으로 보내면서 내린 사제문이다

英廟가 旌烈祠에 祭를 賜한 글 乙丑八月十九日

國王은 近侍 承政院承旨 徐命珩을 命하여 贈領議政 文烈公 金千鎰 贈左承旨 象乾 贈左副承旨 梁山璿의 靈에 諭祭하노라. 빠른 바람이 진탕할 때 굳센 풀을 볼 수 있고, 火焰이 열렬하여도 貞玉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卿의 忠義는 그 본래에 쌓인 것이다. 일찍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뜻이 강하고 행감이 돈독하였다. 遺逸로 薦되어 드디어 조정에 이름을 떨치니, 감히 바른 말을 하고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용모는 초초하였으나 뜻이 굳음은 강철 같았다. 義를 지키는 勇은 賁¹³인들 어찌 앗으랴. 앞서 龍蛇에 섬 되가 개처럼 미치고 凶鋒이 향하는 바에 八路가 다 쓰러졌으며 임금은 西로 유리하고 兩京은 잿더미가 되어 잃어버린 경지의 수복이 기필이 없었다. 경이 비록 처음은 시골에 있었으나 강개히 눈물을 뿌리고 팔을 분발하여 한번 부르짖자 衆이 구름처럼 모였으나 隋城에 진군하였을 제 賊은 많고 우리는 작았다. 군사를 가만히 밤에 습격하자 賊의 銳氣가 조금 꺾였다.사이 길로 裨將을 달려 우리 行宮에 주달하니 그 공훈을 아름답게 여겨 호를 사하고 충을 포양하였다. 賊이 漢京을 점거하고 있을 제 卿은 甲浦에 있었다. 逆과 順으로 효유하니 義人이 날로 따르게 되었다. 兵을 楊花에 과시하니 커다란 전함이 四百이나 되었다. 전

10) 魏太中에 軍功으로 荊州刺史를 삼다. 文帝가 兵을 徵하였는데 巖가 前驅가 되기를 자청하므로 드디어 大都督을 삼아 華州에 鎮하였는데 齊師가 入城하자 맨발로 百挺을 가지고 말하기를 老巖가 길을 막고 누웠으니 獅子(학자=담비)같은 것이 어찌 들어오리오 하니 적이 보고 놀라 물러나다.

11) 王位에 오른 초기를 이룸

12) 주6)과 같음

13) 춘추시대에 勇士 孟賁과 夏育을 이룸

진하고 성원하여 京師를 드디어 수복하였다. 宗廟가 구허됨을 뜻하되 구름처럼 모이고 바람처럼 급히 하였다. 賊이 물러나 南으로 가니 卿을 命하여 추격하였다. 晉州는 嶺湖의 사이에 개재하여 우리의 중요한 지대이다. 卿이 들어와 보호하여 독사의 독을 막으면서 달이 기운 새벽에 衆과 같이 죽기로 맹서하였다. 돌아가는 적의 군사가 둘러싸니 하루살이 같은 구원도 끊어졌다. 대나무를 엮어 방패를 대신하여 砲穴을 가리고 賊이 동쪽 모퉁이를 엿본 것을 쏘아 쓰러뜨렸다. 사람에게 업혀 다니며 위로하고 손수 죽을 먹이기도 하였으나 성의 위태함이 一髮의 사이로되 사람이 叛할 뜻이 없었다. 오랜 장마에 성첩이 무너지니 적이 틈을 타 들어왔다. 矗石樓 아래 물만 瀾瀾하게 흐르는데 북을 향해 일어나 절을 하며 죽음에 임하되 더욱 안한하였다. 卿은 어진 아들이 있어 卿을 따라 생명을 버려 몸을 물에 던져 죽으니 물도 위하여 목이 메었으니. 璫 역시 壯士로 巡遠이 들어온 것 같았다. 城은 비록 함락되었으나 나라는 그에 힘입었다. 嶺湖 두 道를 가로막음은 누구의 공훈인가. 聖朝의 褒와 贈으로 愍痛한 정을 보이었으니 指揮¹⁴⁾의 제문은 卿에 더한 영광이 없다. 卿이 義를 倡함은 錦城에서 시작하였으니 士民은 슬픔을 추모하여 祠를 일으키고 靈을 편안히 해 주었다. 세월이 점차 멀어졌으나 籬鏑은 게으르지 않았다. 筵에 주달함이 있음은 나의 개탄함을 일으켰다. 저 晉南을 바라보는 일은 雲水와 같아라. 끼친 烈을 상상하니 영혼이 죽지 않았다. 곧 近侍를 命하여 이 芬苾을 薦하니 魂이 만일 없어지지 않았거든 와서 흠향할지이다.¹⁵⁾

그 후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林澹(1562-1624)가 배향되었는데, 위 제문(1745년)에 金千鑑·金象乾·梁山璫만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임회는 그 이후에 배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제의 경우는 『書院可攷』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더 후대에 추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¹⁶⁾.

이후 1812년(순조 12)에도 나주목사 김명진에게 사제문을 내려 치제토록 하였다. 다음 글은 당시 순조가 내린 사제문이다¹⁷⁾.

純廟가 旌烈祠에 祭를 賜한 글(壬申八月二十日)

國王은 羅州牧使 金明鎭을 보내 故 忠臣 文烈公 金千鑑의 靈에 유제하노라. 龍蛇의 해가 미치자 국운이 비색함을 만나고 凶罔가 하늘을 거슬러 강포하게 우리를 잠식하여 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틈타 변경을 당진하였다. 城闕이 잿더미가 되고 士女가 도탄에 빠졌으나 河北에 의사가 없음을 中朝에서 한탄하였다. 公은 忠義를 분발하여 田間에서 첫째로 일어나 堅甲을 몸에 두르고 큰 활을 손수 당기고 畿湖를 차단하고 적의 심장을 절단시켰다. 바닷길로 주달하여 謀猷가 다 행하였으며 임금의 은혜 遑遑하고 賊을 방어한 데 能하였다. 義를 倡한 號를 賜하였으니 참으로 포양한 것이 아닌가. 아! 때의 불행이 晉陽의 城이었다. 군사의 원조가 끊어지니 熊掌을 버리고 義를 취하였다. 군막의 빈이 순하니 명나라 장수가 제문을 지어 보내다. 아! 정과 충을 옛적에 있어 누구

14) 明의 指揮使 吳宗道

15) 주6)과 같음

16) 주9)와 같음

17) 주6)과 같음

에 비할까. 열렬한 바른 기운이 산악처럼 우뚝 솟았다. 오직 錦城의 고을에 풍성이 길이 전하여 지난 해 寇警이 문득 서쪽에서 일어났다. 몸을 殉한 義烈이 배나 추억이 간절하여라. 술을 부르고 제문을 읽으니 혹 와주기를 바라노라.

정렬사는 이후 1844년(헌종 10) 나주목사 金有禧를 비롯한 林求真 등 유림들에 의해 증건되었으나 약 20여년 후인 1868년 서원훼철령으로 인해 훼철되었다. 다음 글은 1844년 당시 중수 때 당시 나주목사였던 金유희가 쓴 중수기 전문이다.

정렬사중수기(知州 金有禧)

羅州의 旌烈祠는 옛 倡義使 文烈公 金先生을 제사하는 곳으로 贈參議 金公, 贈判書 梁公, 贈左承旨 觀海林公, 贈參判 後凋堂李公을 配享하였다. 五先生의 크나큰 節義는 天地에 높고 竹帛에 빛이 나니 무릇 국내에 있어서 비록 家家에 모시고 戶戶가 제사할지라도 지나친 일이 아니거든 하물며 이 고을은 곧 先生이 나오신 땅이고 恭敬을 하는 고향이라. 祠堂을 세우고 제사를 지냄은 풍화를 심고 어진 이를 높여 百世를 격려한 바이니 옛적 濟陰의 祠며 睢陽의 廟와 더불어 같이 높이려는 바고 곧 한 고을 人士만이 敬慕하는 私뿐 아니다. 聖朝의 額을 宣하고 삼가 제사함의 높이를 갱어주는 은전 역시 유감됨이 없는 일이다. 돌이켜 보건데 世代가 오래여서 明宮과 齋廬가 거의 무너지게 되니 觀海公의 後孫 永眞이 齋任과 더불어 慨然히 힘을 내고 서로 의논하여 工人을 불러 모아 改修의 役을 甲辰年 四月에 시작한 것이 三개월을 지나 竣工을 보았으니 그 성의가 부지런하고 지극하여 廟貌가 煥然히 새로워졌다.

이를 계속하여 게을리 하지 말고 소홀하지도 말아 바람과 비, 새와 쥐로 하여금 능히 侵害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뒷 세상의 士林에게도 있다. 또 어찌 홀로 五先生의 後孫과 齋任만이 반드시 그 일을 할 사람이라. 무릇 이 고을 冠章 甫衣 縫掖(봉액)을 한 자 누구나 다 이 책임이 있을 것이다. 不佞이 마침 이 고을을 지키므로 그가 이루어짐이 기뻐서 그 일을 記錄하여 後人으로 하여금 本을 받게 하노라. 아! 고을의 破廢함이 역시 오래인데 어찌 한번 시작하여 새로워진 것이 이 사당같이 됨을 얻으리오. 不佞의 惕然(척연)한 느낌이 더욱 깊어라¹⁸⁾

그리고 해방 이후 1953년에 文烈公事業推進委員會가 구성되면서 1964년 송월동에 神室을 마련, 복원되었으나 1966년 다시 남산공원으로 이견되었다. 다음은 1953년에 구성된 烈公事業推進委員會 명단이다.

18)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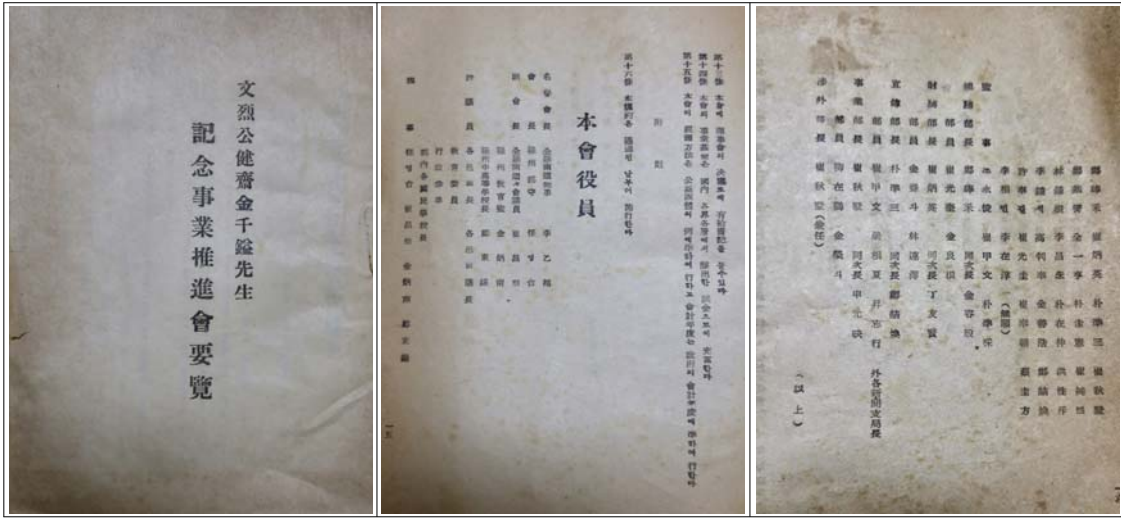


그림 17. 문열공건재김천일선생 기념사업추진회요람 내 회원 명단

그리고 1980년 8월 대호동 현재의 위치로 옮길 것을 결정(김천일선생 유적관리위원회)한 후 부지 6,861평을 확보, 1984년 5월 5일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향행사는 양력 5월 10일에 이뤄진다.

현재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집이며 내삼문과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 평대문이다. 관련 문화재로는 <정렬사비>(전남 기념물 제48호)와 <김천일친필유묵>, 『건재집』(4권 2책 목판본, 1893년(고종 30) 간행) 등이 있으며 이 중 친필 간찰과 교지류 등은 정렬사 내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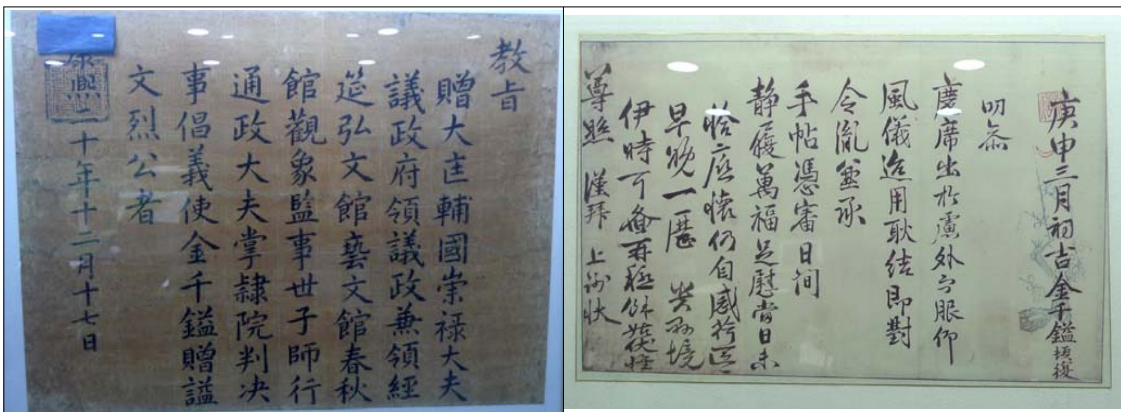


그림 18. 김천일 증직교지(좌) 및 친필유묵(우)



그림 19. 1967년 남산공원 내 정렬사 이건 후 모습



그림 20. 남산공원 이건 상량식



그림 21. 1967년 남산공원 내 정렬사 주변정비 후 모습



그림 22. 남산공원 내 정렬사(1967년)



그림 23. 남산공원 내 정렬사 준공식(1967년)



그림 24. 1968년도 정렬사 대제 모습



그림 25. 남산공원 내 정렬사(1972년)



그림 26. 1977년도 정렬사 대제 모습



그림 27. 1984년도 정렬사 중수 후 전경



그림 28. 1984년도 정렬사 중수 후 모습

Ⅲ. 배향인물

1. 金千鑑(1537 ~ 1593)

김천일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호남 오현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학덕이 뛰어났으며 선정을 베푼 관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항의 문인으로 김인후 · 유희춘 · 고경명 등과 교류하였다.

자는 士重, 호는 健齋, 본관은 언양이다. 나주읍 흥룡동 진사 彦琛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다음날 모친 양성이씨가 별세하고 7개월 후에 부친마저 별세하여 외조부 李璫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어린시절 季父 參奉公 諱 信琛에게 배우다가 19세에 一齋 李恒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장차 배우려 떠날 제 外祖母는 잡고 허락을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가까운데도 네 스승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하여 멀리만 가려 하는가’ 선생이 말하되 ‘經의 스승은 쉬우나 사람의 스승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데는 버리고 멀리 가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미 이르자 一齋 선생은 그 자품을 아름답게 여기고 처음 小學을 주어 이미 다하자 또 大學을 주었다. 부지런히 居敬과 窮理에 게을리 하지 않아 날마다 高明하여 가르므로 같이 배우는 선배들이 다 따르지 못한다 하였다¹⁹⁾

명종 13년(1558) 생원시에 합격한 후 그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선조 1년, 1568)에 조정에 천거되었으나 김천일은 유희춘에게 서신을 보내 이를 사양하였다.

헌납 최용이 아뢰기를, "호남에 묻혀 있는 선비 金千鑑은 학식과 품행이 매우 탁월한데도 관직에 서용되는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欠事입니다."하자, 유희춘이 앞으로 나와 이르기를, "김천일이 뜻을 독실히 갖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겨우 32세로서 한창 학문을 해야 할 때이고 또한 질병이 많아 헛된 명성으로 벼슬길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마치 漆彫開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우선 그대로 두고 배양시켜 대성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급작스레 소소한 관직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하였다²⁰⁾

이후 선조 6년(1573) 6월 遺逸로 뽑혀 군기시 주부를 첫 벼슬로 출사하여 용안현감, 강원도사, 경상도사, 임실현감²¹⁾, 순창군수에 이어 담양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선조 19년(1586) 봄에 사임하고 나주로 돌아왔으나 다시 선조 22년(1589) 한성부 서윤에 기용되어 군자감정으로 옮기고 11월

19)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20)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1568) 6월 9일 정해 기사

21) 선조 14년(1581)년 봄 임실현감에서 遞任되자 임실 백성이 去思石을 세우고 쓰되 ‘賦役을 평균히 하고 孝順을 포향하고 人才를 기르고 耄老를 먹이고 民俗를 가다듬고 宿弊를 제거하다’ 하였고 비 후면에 ‘一區籬落聞鷄犬 百里田園放馬牛 樂業方增秩去 葛川和淚郡邊流’라 새겨놓았다(『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수원부사로 부임하였다. 수원부사로 있던 당시, ‘나로 하여금 豪右의 田畝를 위하라면 말려니와 王의 官으로 왕의 일을 다스리라 하면 부역을 균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가히 일신의 이해만을 계획하고 거꾸로 매달린 백성의 고통을 구하지 않으랴²²⁾’라고 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과중된 전세의 폐단을 바로잡아 땅주인에게 골고루 부과하였다가 그들의 모함을 받아 이듬해 파직되어 나주로 낙향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피난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5월 16일 나주공관에서 宋濟民, 梁山龍, 梁山璠, 林權, 李光宙, 徐廷厚 등과 함께 창의할 것을 결의한 후 전라도내 高敬命, 朴光玉, 崔慶會, 鄭謙 등에게 함께 복진할 것을 권유하는 격문을 보내고 의사 삼백여인과 함께 6월 3일 출사하여 13일 천안에 이르렀을 때는 그 수가 2천인이 되었다. 다음 글은 기천일이 작성한 임진 의거 격문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魚를 버리고 熊을 취함은 孟夫子의 교훈이고 벌떼처럼 일어남은 楚나라 義士들과 같다. 漢나라와 唐나라 이전부터 신라와 고려 이후까지 邦國을 어지럽히는 賊이 간간히 생기는데 우주에 열렬한 義士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적에 童子로 나라 일에 죽으니 史氏는 汪蹠²³⁾의 全節을 전하고 野老가 나라를 호위한데 世人이 田夫의 苦衷을 칭하였다. 서리와 눈이 秋冬의 때가 되자 바야흐로 松柏의 무성함을 알고 해와 달이 아울러 滄海에 오르니 실로 焦原의 영광이 되었다. 강개한 슬픈 노래는 곳곳마다 일어난 것이 燕趙의 유풍이요 강론하는 道와 義는 집집마다 외운 것이 鄒魯의 소리이다. 불행하여 국운이 어지러워지자 적들이 창궐하고 조정의 중신은 걸고 건너며 상감께서는 이리 저리 유리하니 나라는 위태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옳드려 원하노니 많은 여러 多士와 용맹스러운 武夫는 나의 글을 보고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돌아보건대 지금의 文物 모두가 先王의 衣冠인데 저 倭奴를 섬멸하는데에 忠勇한 장군은 누구인가. 절의 있는 兵을 모집하니, 어찌 국가를 호위한 王師가 없을 것이며 일어나 죽기를 기뻐하는 義兵이 없을 것인가. 南州의 땅이 비록 작으나 곳곳마다 힘을 다한 젊은이가 많고 北闕에 교화가 일찍이 베풀어졌으니 반드시 마음이 같은 壯士가 많으리라. 바라건대 나와 더불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면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공훈과 장열한 절의가 千秋에 끊어지지 않고 길이 方策을 전하리라²⁴⁾

김천일 거병군은 전라병사 崔遠과 합세하여 23일 수원 독산성을 점령하고 이어 용인현의 금령역에 있는 왜적을 무찔러 15급을 베는 전과를 거두었으며 6월 그믐에 郭賢, 양산숙을 의주행재소에 보내 한강 이남의 관군과 의병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다. 7월 26일 안산, 인천을 거쳐 통진에 이르렀을 때 이천의 세자분조에서 공에게 첨지중추부사 겸 방어사 직첩이 내려졌다. 강화도에 들

22) 『건재집(健齋集)』 부록 권3.

23) 汪蹠：孔子的 門人인 汪蹠가 童子로 나라 일에 죽은 것을 史氏가 일찍이 죽었다고 쓴 것을 孔子는 童子이나 나라 일에 죽었으니 일찍 죽었다는 殤死라고 씀은 不可하다고 하였다.

24) 『건재집(健齋集)』 권4.

어가 강화부가 尹湛과 함께 해안 성채를 보수하고 있을 때 선조가 郭賢, 양산숙이 돌아오는 편에 공에게 장예원 판결사 관직과 창의사 칭호를 내렸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1592) 7월 20일 정축
전교하기를, "김천일의 칭호에 대한 일을 의계(議啓)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이런 급난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칭호가 없으면 체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천일은 倡義使로 칭호함이 타당합니다. 공조 참의 고경명은 이미 김천일과 함께 동시에 창의하였으니, 使臣이라는 칭호에는 다른 점이 없을 듯합니다. 招討使로 칭호하고 節制 등의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예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²⁵⁾.

같은 해 11월부터 전라병사 최원, 경기의병장 禹性傳, 경기수사 李蘋, 충청수사 邊良俊과 함께 전선4백여척을 이끌고 양화진에 나아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죄상을 꾸짖는 방을 붙이고 한강 일대 적군의 수송로를 괴롭혔다. 또한 선조 26년(1593) 1월 6일에는 개성에 주둔한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한양성의 지형과 적의 진지를 도표로 만들어 보내고 경기수사 이민, 충청수사 정결과 함께 양화진 선유봉에 진을 치고 한강의 각 나루터를 차단하여 왜적의 출입을 억제하다가 2월 12일 권율의 행주대첩 때는 해안을 봉쇄하여 승전을 도왔다. 4월 19일 왜적이 도성을 비우고 남으로 내려간 후에는 맨 먼저 도성 안으로 들어가 불탄 종묘와 선릉(성종), 정릉(중종)을 살펴본 후 과수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4월 그믐에 4백여인의 병력을 거느리고 영남으로 퇴각한 왜적의 뒤를 쫓아 내려가 6월 15일에 진주성에 들어갔다. 이 때 왜군 10만이 진주를 향해서 쳐들어 온다는 풍설이 떠도니, 함안에 모여있던 관군과 의병 장수들은 모두 두려워서 피해버리고 오직 김해부사 李宗仁, 사천현감 張潤, 거제현령 金俊民, 해미현령 鄭名世와 의병장 高從厚, 李繼連, 閔汝雲, 姜希輔, 姜希悅, 李潛 등 몇 사람만 남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진주성을 지키는데 참전하였다. 6월 21일부터 적의 8만대군에 포위되어 5만이 넘는 진주관민과 함께 일진일퇴의 격렬한 공방전을 거듭하다가 2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성벽이 무너지고 무기마저 떨어져 29일 성이 함락될 때 많은 군민과 함께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저서로는 『건재선생문집』이 전한다. 선조 36년(1603)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 선조38년(1605) 선무원종 일등공신에 녹훈되었고, 선조 40년 나주 정렬사와 진주 창렬사에 사액되고, 숙종 7년(1681) 12월에 영의정에 추서되면서 문렬공의 시호와 충신 정려가 내렸다. 나주 정렬사 외에도 진주 창렬사, 순창 화산서원, 태인 남고서원, 임실 학정서원에 배향되었다. 현재 나주 정렬사에서는 그가 나주에서 출병했던 매년 음력 5월 16일에 제를 지내며 진주에서는 그가 순절한 음력 6월 29일에 나주와 진주사람들이 함께 순의제를 지낸다. 묘는 현재 나주시 삼영동 내영산마을에 있는데 실묘가 아닌 초혼장이다.

25)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1592) 7월 20 정축 기사

2. 金象乾(1557 ~ 1593)

字는 健甫, 본관은 彦陽으로 문열공 김천일의 장자이다. 일찍이 학행으로 천거받아 司圃署別座라는 벼슬이 내려졌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였다.

충효가 남달라 죽음의 위기에서도 부친 문열공 곁을 떠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또한 평소 건강이 좋지 못했던 부친에게 항상 간호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강화성에 주둔시는 文烈公의 封疏를 가지고 郭賢과 함께 적진을 돌파하여 行在所에 이르러 이를 전하고 다시 敎書를 받들고 돌아오기도 했다. 문열공과 함께 진주로 입성하여 전력을 다해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문열공과 서로 부둥켜 안고 축석루에서 남강에 투신·순절하였다. 훗날 左承旨로 追贈되었다. 묘는 그의 부친인 김천일장군의 묘와 함께 현재 나주시 삼영동 내영산마을에 함께 있으며 실묘가 아닌 초혼장이다.

예조에서 유생이 올린 상소와 上言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증 참의 洪宇定은 이미 正卿으로 끌어 올려 증직한 은전을 입었으니, 시호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증 승지 金象乾은 바로 문열공 김천일의 맏아들인데, 임진 왜란에 부자가 동시에 절의를 세웠으므로 선묘조께서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고, ... 김상건·박충검에게는 모두 정려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교화를 세우고 절의를 장려하는 도리라고 하겠습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⁶⁾

3. 梁山璿(1561 ~ 1593)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진주에서 싸우다 순절한 인물이다.

호는 璿溪, 字는 會元이며, 본관은 제주이다. 己卯 名賢 梁彭孫의 손자이며 大司成 應鼎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더니 장성하자 경전에 전심하는 한편 널리 많은 서적을 탐독하였고 특히 천문지리, 병서에도 깊은 연구가 있었다한다. 일찌기 牛溪 成渾의 門人이 되어 깊은 학식을 쌓았고, 1591년(선조 24) 天象을 보고 국난이 있을 것을 예언, 상소까지 했다가 조정대신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받기도 했다. 1592년(선조 25) 왜적들이 대거 침입하자 김천일을 맹주로 받들고 主將의 비밀문서를 왕에게 전하기 위해 龍灣에 이르러 호남의병의 거의 사실을 알렸다. 당시 선조는 그에게 佐郎을 제수하였으며 義軍에 告諭하는 敎書를 내려 전달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6월에는 남으로 진격하여 영남에 주둔한 척을 추격하고 진주성에 입성하였다. 원병을 청하는 主將의 서찰을 가지고 明將 劉綎에게 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급히 성으로 돌아와 목숨을 걸고 분투하였으나, 마침내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여러 장수의 간청도 마다하고 '이때까지 다같이 죽기를 맹세하고 從軍하다가 이제와서 어찌 홀로 살기를 도모하겠는가'라면서 남강에 투신·순절하였다. 후에 左承旨에 追贈되었고 시호는

26) 『순조실록』 19권, 선조 16년 10월 20일 을미 기사

忠愍이다. 나주의 정렬사, 진주의 창렬사에 제향되었다. 다음 글은 선조수정실록에 기록된 그의 줄기이다.

梁山壽의 자는 會元으로 부윤 梁應鼎의 아들인데, 나주에 살며 成渾을 사사하였다. 그는 時事가 평탄하지 못한 것을 보고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은거하며 나가지 않았다. 왜란 초에 군사 수백 명을 모집하여 김천일을 따라 기병하였는데, 行朝에 들어가 아뢰자, 그를 발탁하여 공조좌랑에 제수하였다. 그는 다시 김천일을 따라 진주에 이르러 김천일의 서신을 가지고 劉綎에게 가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의 사기가 강개하여 유정도 탄복하였으나 여전히 군사를 출동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적이 이미 성을 휩박하고 있었는데, 동행한 몇 사람은 모두 탈주하였다. 양산숙은 말하기를, ‘위태로운 처지에서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하고 주장으로 하여금 혼자만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하고, 남강을 통해 성에 들어가니, 군사들이 모두 놀랐다. 성이 함락됨에 미쳐 양산숙은 해엄을 잘 쳤으므로 그의 힘으로 충분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끝내 김천일과 함께 죽었다. 그의 아내 이씨는 정유년 변란 때 산에 숨었다가 적을 만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²⁷⁾.

4. 林檎(1562 ~ 1624)

字는 公直, 號는 觀海, 본관은 平澤으로, 1562년(명종17) 전라도 나주 松峴에서 태어났다. 이다. 아버지는 靑陽縣監을 지낸 貞秀이고 어머니는 全義李氏 현감 震男의 따님인데, 季父인 吉秀의 嗣子로 출계하였다. 伯兄은 龜城府使를 지낸 林植이고 仲兄은 林楫이다. 8세에 백형 松坡公을 따라 글을 읽기 시작하여 21세인 1582년(선조15)에 성균진사가 되었고, 뛰어난 시재와 제술에 능력이 있었으나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임희는 1590년(선조23) 29세의 늦은 나이에 송강 정철의 막내따님과 혼인하였다. 임희의 생부 승지공이 생전에 송강과 더불어 혼약을 하였는데, 생모와 생부 그리고 養父께서 연이어 돌아가시면서 7년 동안 상주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혼인이 늦어졌다. 당시 서인의 중심에 있던 정철은 1589년 鄭汝立(1546~1589) 모반사건에 얽힌 己丑獄事를 다스리는 委官의 책무를 맡으면서 동인의 원한을 온몸으로 받았고, 1591년 세자 책봉 문제로 양사의 탄핵을 입어 파직되어 江界로 유배의 길을 떠나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번 부침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 사위였던 임희 또한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32세인 1593년(선조26) 養母 魯夫人의 상을 마치고 海西로 피난하여 首陽山 아래에 우거를 정하였다. 수양산은 황해도 벽성군 서석면과 해주시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주의 진산이다. 이때는 장인 송강공이 이미 죽고, 당시의 여론이 크게 변하여서 과거 보는 일을 단념하고 詩酒로 낙을 삼고 지냈다. 해서에 은거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희에게 환란은 끊이지 않았다. 35세인 1596년(선조29)에 역적 崔忠伯의 공초에 韓絢이 ‘전라도

27)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6월 1 갑신 기사

생원 임회'를 거론하여 추국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임회는 15년 이래로 과거 보는 일 때문에 두차례 서울에 올라왔을뿐 시골로 돌아간 다음에는 2~3일 여정의 지역에도 나다니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현과의 연루설을 극구 부인하였다. 또한 하루아침에 어려운 시기를 만나 터무니 없는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이를 반드시 씻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 비로소 누명을 벗을수 있었다. 임회는 50세인 1611년(광해군3)에 비로소 대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鄭仁弘·李爾瞻이 그를 중상모략하자 더 이상 세상에 뜻이 없어 사직하고 다시 황해도의 옛집으로 돌아가 '觀海'라 自號하고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중 52세인 1613년(광해군5) 다시 典籍에 임명되어 致祭官의 임무를 띠고 長淵에 갔다. 마침 誣獄이 크게 일어났는데, 죄인의 공초를 기록한 문서 속에 '林浩'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 이이첨이 그 글자의 음이 '林檉'의 이름과 가깝다고 하여 억지로 죄인을 만들었다. 임회는 장연으로부터 압송되어 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53세인 1614년(광해군6) 대북과 정인홍의 모함으로 林愾(1570~1624)·鄭起龍(1562~1622)과 함께 왕의 친국을 받은 뒤 영남의 梁山으로 유배를 갔다. 朝鮮王朝實錄에는 이 때의 일을 "林檉을 영남의 梁山으로 유배보냈다. 왕은 임회가 비록 무고한데서 나왔더라도 본래 역적을 보호해 준 사람으로 무리를 모아 협객을 숭상해서 죄가 될만했다고 여겨서 이러한 명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62세인 1623년(인조1) 양산에서 유배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解配되어 예조좌랑에 제수되고, 다시 군기시첨정으로 전직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남한산성을 수축하여 보강할 곳으로 하자는 논의가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李貴가 군정에 대해 아뢰길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멀지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역시 미리 수축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保守할 수 있는 기지로 삼아야합니다. 그러나 적격자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광주목사 임회는 제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회에 게 모두 밀어준다면 명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적임자를 얻기 어려웠던 차에 象村 申欽(1566~1628)이 제일 먼저 임회를 추천하여 광주목사가 되니 마음을 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일을 질서있게 조치하였다.

마침 이 해에 沙溪 金長生(1548~1631)이 송강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또 이듬해 아들 宗溟이 상소하여 관작을 복구하니 임회의 出仕와양 산으로의 유배, 그리고 해배가 모두 장인 송강공 사후의 고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63세인 1624년(인조2) 봄에 역적 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民兵 수백명을 모아 대적하였으나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적군에게 잡혀서도 소리를 지르며 꾸짖다 결국 죽음을 맞았지만 죽음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적을 맹렬히 꾸짖는 모습에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氣節을 보여주었다. 부서가 임금 계신 곳에 알려지자 임금이 놀라고 슬피하면서 有司에게 명하여 벼슬을 주고 정려를 내렸다. 이때의 일을 조선왕조실록에

는 “林檎·朴永緒·馬佑賢 등의 門閥에 정표하라고 명하였다. 역적 이괄이 패하여 달아날 때에 임회는 광주목사로 慶安驛에서 갑자기 적에게 붙잡혔는데 임회가 분노하여 욕하며 굽히지않다가 결국 살해되었다.”²⁸⁾고 하였다. 그해 5월에 순천의 북쪽 母后山 乾坐에 장사지내고 부인 정씨를 부장하였다. 그후 나주 旌烈祠와 광주 登臨祠에 배향되었고, 주암댐 水利의 役事로 인해 1990년 나주 松月洞 선영 아래에 천장하였다. 후에 左承旨에 追贈되었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觀海遺稿』가 있다.

5. 李容濟(1565 ~ 1597)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의 명장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정유재란 때의 순절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곳 旌烈祠에 觀海 林澮와 함께 追配되었다.

字는 汝優, 號는 後週堂이며 全義人으로 參議 曇의 아들이다. 1591년(선조 24)에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에 제수되었다가 巡邊使가 되었고, 司憲府監察을 거쳐 軍器寺副正을 역임하였다. 흥덕 현감 재임 중 정유재란을 당하여 거제 기문포해전에서 통제사 이순신의 지휘를 받아 당화전과 송거 등으로 적선에 불을 지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육지로 도망하려는 일본군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선조 30년 3월 24일 기록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3월 19일 성첩(成貼)한 도원수 권 울의 서장에, “전라우수사 李億祺의 치보에 ‘3월 8일 왜선 대·중·소 3척이 거제 기문포에 와서 정박 상륙하였다 하기에 통제사가 즉시 주사를 거느리고서 일시에 발선하여 밤새도록 노를 저어 9일 이른 아침에 기문포에 당도하여 보니, 왜선 3척이 해안에 매여 있는데 왜적은 모두 상륙하였고, 산기슭 사이에서 밥짓는 연기가 잠시 일어 나는 중에 왜적 3~4명이 칼을 번뜩이며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통제사가 항왜 남여문 등을 보내어 이해로 회유하게 하였더니, 숨어 있던 왜적 20여 명이 나왔고, 남여문이 왜추와 조용히 담설하자 숨어 있던 왜적이 다 나왔는데 대개 80여 명이었으며 우리 주사의 성대한 위용을 보고는 엄습을 받을까 의심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였다. 안골포만호 禹壽, 고성현령 趙凝道, 거제현령 安衛 등이 탄 배가 다투어 올라가서 항복을 받으니, 왜장이 그 무리 7명을 거느리고 와서 통제사의 배로 올라갔다. 통제사가 그에게 술을 주고 배를 타고서 떠날 것을 허락하니 왜적들은 생환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여 죽 늘어서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무수히 치사하고는 저희 배 있는 데로 내려가서 두 배에 나누어 타고 바다로 나아갔다. 돛을 달려는 즈음에 통제사가 먼저 지자총통을 쏘고 지휘기를 흔들며 적각을 급히 부니, 제선이 앞을 다투어 공격하였다. 조응도가 탄 배는 다른 배보다 상당히 빨라 먼저 적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적선을 공격하니 왜적 20여 명이 조응도의 배로 올라와 싸웠는데 조응도와 사부·격군 등 적의 칼날에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였으나 혹은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배에 구제되기도 하여 살아난 사람이 많았다. 적의 칼을 맞고 물로 뛰어들 조응도를 禹壽의 배에 건졌으나 잠시 뒤에 죽었다. 적들이 그대로 조응도의 배인 고성의 배를 타고서 노를 저어 북쪽으로 달아날 때 제선이 포위하여 지자

28) 『인조실록』 4권, 인조 2년(1624) 2월 23일 정미 기사

총통과 현자 총통을 계속 쏘아대니 좌우의 방패가 총에 맞아 다 떨어졌고, 화살이 비 오듯 하니 왜적은 허둥대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임치첨사 洪堅, **홍덕현감 李容濟**로 하여금 당화전과 송거 등으로 적선에 불을 지르도록 하여 왜적들이 모두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를 향해 헤엄칠 때 사살하고서 그 시체를 건져 목을 벤 것이 도합 18급이었다. 변함하여 통제사에게 보내어 수송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29)

한편, 왜군이 전라도 구례를 점령하고 남원으로 북상하고 있을 때, 남원에는 명의 부총병 楊元이 3,0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원성을 지키고 있었다. 양원은 왜군이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병사 李福男에게 조선군의 증원을 요청하여 관군 1,000명을 받아 4,000여 명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군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거느린 5만 6,000여 명의 대병력이었다. 이들은 8월 13일 남원 교외에 진영을 설치하고, 성 외곽을 포위한 후 조총사격을 가해왔다. 이에 조·명 연합군은 승자총통과 비격진천뢰 등을 발사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그러자 왜군은 14일부터 공성 기구를 새로 제작하고, 참호를 메꾸는 등 본격적인 공격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때 양원은 전주에 주둔하고 있던 유격장 진우충에게 두 차례나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진우충은 전주성을 비울 수 없다는 핑계로 증원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양원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왜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다. 16일 왜군은 본격적으로 총공격을 퍼부었다. 높은 누각을 만들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총 사격을 가하는 한편,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왔다. 연합군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이 날 밤 왜군은 서문과 남문을 돌파하여 성 안으로 들어왔다. 북문을 지키고 있던 조선군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으나, 이들도 배후 공격을 받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병사 이복남 이하 3,000여 명의 장병들은 화약고에 불을 질러 장렬히 전사하였다. 이 때 이용제의 군관 全成特은 '일시 적의 흉계를 피하였다가 후사를 도모하라'고 충언을 하였으나 이용제는 웃으면서 '적을 보고 물러서는 것을 용이 아니요, 국난에 순절치 않으면 忠이 아니니 너는 살아 집에 돌아가 나의 전사를 알리라'고 하고 장렬하게 싸우다 이복남과 함께 순절하였다. 뒤에 공의 공로가 인정되어 兵曹判書를 추증하고 旌閭를 명하였으며, 나주 旌烈祠에 배향되었다.

29) 『선조실록』 86권, 선조 30년(1597) 3월 24일 갑인 기사.

IV. 임진왜란과 호남의병 김천일

1. 羅州地方 事例로 본 壬亂義兵 研究課題(趙援來, 순천대 교수)

1) 義兵과 官軍으로 分立한 義兵 指導層의 問題

〈湖南節義錄〉에 그 이름이 오른 壬亂 有功人士들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통계속에서 羅州出身은 모두 76名인데, 이를 所屬軍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金千鎰 軍22名, 李舜臣 水軍 18名, 李福男 軍8名, 林權 軍 5名, 高敬命 軍4名, 崔慶會 軍3名, 其他16名이다. 其他에 속한 人士들은 주로 개별적인 활동을 폈거나 趙憲 軍, 權慄 軍, 李億棋 水軍, 또는 明將 휘하에 속한 경우이다. 이것을 다시 義兵將 所屬人士와 官軍將所屬人士로 二大別해 보면 前者에 46名, 後者에 30名 정도로 나타나 있지만 兩側에 모두 관계되는 例도 있어 확실한 것은 아니다.

全羅道の 初期義兵으로서 羅州에서 직접 거병한 金千鎰 軍에 從軍한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林權 軍에 속한 5名 역시 金千鎰이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하기 전까지는 그의 幕下에 있었으므로 사실상 김천일 군에 속한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高敬命 · 崔慶會 軍에 소속한 경우의 인사들도 대부분이 그렇거니와 其他에 포함되는 人士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김천일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임란기 羅州義兵 指導層의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金千鎰이라 하겠다.

이렇게보면 羅州 出身의 임란 有功者들은 대체로 義兵측의 김천일 그룹과 官軍 측의 이순신 · 이복남 그룹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집단은 모두 임란지도층의 人士들로서 文武科 出身들이거나 生員 · 進士 · 儒學 등 모두가 兩班士族의 신분이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나주지방의 士族들이 의병측과 관군측으로 각기 분리된 양상을 보인 주된 요인은 학연이나 黨色의 차이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김천일 군과 이순신 막하에 從軍한 人士들 간의 黨色 차이는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기축옥사를 전후 하여 서인측에 섰던 金光運 · 柳濶 · 梁山龍 · 梁山濤 · 洪遠 · 任鏞 · 林權 등이 모두 김천일과 같이한 의병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반면에 右水營도 아닌 멀리 左水營까지 찾아가 이순신 휘하에 들어갔던 鄭詳과 그의 아들 如麟, 羅州羅門의 羅德愼, 錦城羅門의 羅得龍과 羅大用 및 그의 從弟 致用, 그리고 柳乾元 등이 모두 이순신과 같은 동인계, 혹은 親東人系 人士들이었다.

鄭介淸의 門人이었던 금성나씨 일가의 羅德元 · 德立 형제의 경우에도 이순신 밑에 있지는 않았으나 官軍將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西人側의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또 기축옥사 때 죽음을 당한 柳夢井의 아들 柳澍의 경우에는 義兵을 모아 멀리 安城에 있는 洪麒祥과 의병활동을 같이 하였으나 同鄉의 義兵將과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壬亂以前에 東西 黨色間이 羅州地方에서 만큼 첨예하게 대립한 例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것

이다 사실상 기축옥사의 발상지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일찍이 鄭介淸이 羅州訓導로 있을 때부터 學綠에 얽힌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당시 鄭介淸을 위시한 그의 문인들과 西人系 士林들과의 대립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김천일의 門人들과 鄭介淸의 문인들 사이에도 의례문제 등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방을 비방·질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學綠이나 黨色의 차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義兵측으로 다른 편에서는 官軍측으로 갈라져 分立한 在地土林의 動向이 주목된다. 그러나 기축옥사의 여파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戰亂을 맞은 상황에서 現地의 동인계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스승과 동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반대파 士林과 의병운동을 함께 하면서 生死를 같이 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東西黨爭이 참혹한 사회로 불붙은 호남지방에서, 그것도 그 禍亂의 本據地인 羅州에서 일어난 현상이고 보면 理解되는 면이 없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士林이 義兵측에 섰느냐 官軍측에 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목표가 무엇이었으며 行動樣式이 어떠한가에 달린 문제라 하겠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正規軍의 기능을 가진 官軍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想起할 때 官·義兵의 소속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16-60세의 男丁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선시대의 병역의무는 임란이 있기 오래전부터 유명무실하게 되어 軍役은 있으나 軍士가 없는 怪異한 상황에서 日本軍의 침략을 당한 것이다. 따라서 亂 初에 首都 漢城에서 사흘씩이나 걸려서도 훈련된 병사 3 백명을 모으지 못한 실정에 있었으니 常備軍으로서의 官軍은 없었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義兵이 있었는가 하면 官軍으로 指稱된 또 다른 군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成渾의 견해에 의하면, 義兵이란 各處의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成軍하여 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군사들을 말하고, 官軍이란 地方官이 軍民을 동원하여 元帥의 지휘에 따르는 군사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理解되지 않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軍士動員의 주체가 官人層이나 非官人層이나에 따라 官軍과 義兵으로 구분한다는 것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動員對象이면서 兵力의 대부분을 古有하는 일반 병사들의 경우에 그들이 官軍側에 소속하였건 義兵側에 소속하였건 간에 조금도 차이나는 것이 없었다.

즉 그들은 어느 쪽에 소속했든 간에 국가에 대한 의무나 신분상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現職官人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해서 官軍이 되고, 前職 관리나 未仕 宦者에 의해 소집되었다 하여 반드시 義兵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경도 北評事란 官人身分으로 현지의 守令들과 함께 군사를 모았던 鄭文孚의 활동이나, 慶尙道 招論使 및 觀察使로 있으면서 行한 金誠一의 군사활동이 모두 官軍으로서의 활동이었을 터인즉 그것들이 義兵活動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兵·水使나 都元帥의 지휘를 받는다 하여 그 군사들을 반드시 官軍이라 부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現職 官人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군사를 모아 兵使나 水使 등 現職官將의 휘하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활동한 例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羅州地方의 例를 통해 보면, 이순신·李福男 등의 官將幕下에서 활동한 士族들 대부분이 자원에 의해 그들 軍門에 從軍하였다. 이순신 밑에서 造船監調軍官으로 활약했던 羅大用만 하더라도 그의 從弟 致用과 함께 鄉兵을 모아 스스로 全羅左水營에 들어갔고, 成纘·李夢麟 등도 정유재란 시 家僮을 이끌고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싸우다가 노량해전에서 戰死한 例였다

특히 1597年 8月 남원성 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羅州出身 士族들은 당시 全羅兵使 李福男을 따라 出戰하였는데, 그것은 兵使의 격문에 호응하였기 때문이지만, 李福男이 나주목사로 있었을 때 맺은 인간관계에 起因한 것으로서 自發的인 參戰이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본 문제점과 거기에 연관된 事例들을 주의깊이 검토해 보면 당시의 實狀으로는 義兵과 官軍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兩湖 도체찰사로 있었던 鄭澈이 말한 것처럼, 「지금 討賊하는 일 하나만을 論한다면 나라를 위해 적을 막아내는 것은 모두 義가 되는 것이요, 나라를 위해 군사를 모으는 것도 다 義가 되는 것이다

어찌 官軍과 義兵을 갈라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면 壬亂義兵에 대한 종래의 연구시각에 깊은 懷疑를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여기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간단한 문제가 아님으로 此後에 다시 論及되어야 할 것이지만, 壬亂義兵이 갖는 대체적인 면모는 義勇의 군사인 동시에 忠義의 군사로서 兩者의성격을 共有한 非正規의 군사집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現職官人和 行동을 같이 했느냐 非官人層의 人士와 같이 행동했느냐에 따라 義兵인가 아닌가를 論할 것이 아니라 군사행동을 시작할 때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義勇軍인가 아닌가, 즉 義兵인가 아닌가를 判定할 문제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實戰을 수행함에 있어서 勢의 如何, 혹은 成敗와 利鈍에 관계 없이 당시의 國家觀대로 忠義之士답게 행동하였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에 따라 義兵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문제라 생각한다

이제 羅州地方의 例에서도 간략하게나마 확인하였듯이 在地士族들이 그들의 血緣·學緣·黨色 및 특별한 인간관계에 따라 或者是 官人將帥 휘하로, 或者是 義兵將 밑에 들어가 활동하므로써 결과적으로 義兵指導層의 二元化 現象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羅州義兵만의 것이 아닌, 壬亂義兵 전체에 관한 문제로서 앞으로 좀 더 깊은 分析을 통하여 검토되어야할 課題이다.

2) 金千鎰의 義兵運動과 義兵運動의 認識問題

선조26年(1593) 6월에 있는 第二次 진주성 전투 직후 明나라 指揮使 吳宗道는 한 義兵將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무릇 사람이 天地間에 있어 죽었어도 오히려 산자가 있고 살아있어도 오히려 죽은 자가 있으니

살아있으면서 죽은자는 지금 천하에 그득하다 하겠습니까. 죽었어도 살아 있는 이가 있다면 나는 이를 倡義使 金將軍을 통해서 느끼는 바입니다 (中略) 아 ! 장군은 그 이름이 천추에 빛나서 오래 오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내 어찌 울겠습니까. 나라 일을 그르쳐 임금을 피난가게 하고, 군사를 거느리고도 구원하지 못하여 城邑을 잿더미되게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살아 있을지언정 어찌 장군의 죽음만 같다 하겠습니까

진주성의 함락과 함께 순절한 김천일의 영전에 바친 제문의 일부로서 節義의 죽음을 높이 추앙하여 표현한 감동적인 글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 義兵將의 殉義를 그의 동료도 아닌, 他國의 將帥가 그토록 고귀하게 평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천일의 義兵運動이 단순한 義勇의 군사활동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김천일의 의병운동에 대한 개략적인 과정을 일별한 다음, 그가 主導한 최후의 義兵抗爭인 동시에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血戰이기도 했던 第二次 진주성전투에 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우리가 意圖하는 바가 의병운동의 본질을 인식하자는데 있으므로 戰績이나 戰功에 대한 문제는 강조되지 않을 것이다.

임진년 5月16日 羅州에서 起兵한 김천일은 6月3日 향병 3百을 이끌고 한성수복을 목표로 북상하므로써 당시 영남지방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직접 전쟁에 뛰어든 최초의 의병장이 되었다. 그 뒤 癸巳年(1593) 6月29 진주성에서 父子가 함께 순절하기까지 14個月間에 걸친 그의 의병운동은 크게 두단계로 나뉘 볼 수 있다 水原의 禿城山城에 陣을 치고 討敵活動을 전개하다가 江華島에 移陣, 그곳에 거점을 두고 한강 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 그 1 단계이고, 일본군이 漢城에서 철수하여 영남지방으로 南下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第二次 진주성전투를 主導한 것이 그 2단계의 활동이다. 1단계의 기간 중 한성수복을 피하여 반년 이상을 江華島에 머물며 천신만고의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江華留屯의 長期化는 많은 오해까지 불러 일으켰지만 義兵將인 그로서는 현지의 地勢를 이용하여 작전을 피한 軍事戰略的 討策에 起因한 것이었고 또 그에 相應한 타당성을 갖는 것이기도 했다. 다만 그 결과는 계획과 실재가 부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시 의병장이 갖는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漢城수복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4百餘의 왜급을 참수하였고, 그 밖에 行宮奏事活動 · 漢城에서의 對民活動 · 園陸保衛活動 등을 펼침으로써 他 義兵에게 찾기 어려운 面들을 보여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의 義兵運動過程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진주성전투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김천일 예하 義兵의 행동과 決死敢戰의 抗爭은 王亂義兵史上 다시 찾기 어려운 例를 남겼기 때문이다. 敵은 前年에 있었던 一次戰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고 아울러 곡창 全羅道를 공략하여 戰勢를 유리하게 回轉시킬 목적으로 10萬의 大軍을 몰아 쳐들어온 것이 곧 第二次 진주성전투이다. 당시朝 · 明軍의 主力部隊가 嶺南-帶에 布陣하고 있었으면서도 日本軍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敵勢를 두려워하여 이미 戰意를 상실하고 있었다. 게다가 沈惟敬이 傳한 小西行長의 말에 따라, 진주성을 비워두고 일단 피해 버리기만 하면 敵 또한 물러가고 말 것이라고 한 「空城策」에 동요되어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진

주성을 피하여 모두 흩어져 달아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과 3百의 義兵을 이끌고 現地에 當到한 김천일은 진주 守城의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하였다.

적의 討策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들이 다만 진주만을 공격하리란 것은 믿을 수 없다. 지금의 湖南은 나라의 근본이 되어있고 진주는 호남에 가까이 밀접한 곳이니 실로 唇齒의 관계인데 진주가 없다면 湖南 또한 없게 되고 말 것이다. 혹 진주성을 비움으로써 왜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계책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諸將이 모두 이에 불응하여 흩어져 가 버린 뒤, 그는 朝廷에 장계하여 진주를 死守해야 함을 奏請한 다음 미처 會論의 答도 얻지 못한 채 진주성에 들어갔다. 이때 그를 따라 들어온 군사들이 없지 않았으니 그들의 대부분이 바로 崔慶會 · 高從享 · 黃進 · 張潤 · 姜希輔 · 閔汝雲 등이 이끈 全羅道 義兵이었다. 이른바 官軍의 장수들은 都元帥로부터 巡邊使 · 兵使 · 助防將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 스스로는 진주 入城을 꺼려 피해 달아나면서도 곽재우 군에게 守城戰 支援을 요청하였고, 곽재우 역시 자결을 할지언정 진주성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맞설 지경에 이를 정도였다. 특히 그는 守城戰에 참전하기 위해 入城하던 黃進을 만류하며 이르기를 ‘진주는 孤城이라 지키기 어려운 곳이며, 또 忠淸道節度使가 진주를 지키다가 죽는 일은 그 맡은 바 임무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니 진주성 사수를 주장했거나 거기에 함께 참전한 義兵將들과는 크게 대조적인 面을 보였다.

따라서 진주성이 함락된 직후 邊士貞은 조정에 올린 상소문에서 城陷의 원인의 하나로 守城戰을 기피한 諸將의 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때 만약 한 主將이 감독 명령하여 合兵前進하므로써 혹은 근교에서 지원하고, 혹은 山上에서 霰을 밝히고, 혹은 要害處에 매복하여 구원의 形勢를 보였다면 반드시 城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諸將이 모두 많은 군사를 거느려 가까이 주둔해 있으면서도 관망하고 두려움에 질려 피함으로써 赴援하지를 않았다. 진주성이 위협을 당한지 7·8日이 지나서도 군사를 보내 도우려는 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같은 實情에서 兵力 · 火力 · 戰術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을 義兵에게 一死를 決한 忠義의 희생정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주성을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 불행한 일은 平生多病하였던 主將 김천일이 이 전투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심한 病苦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으니 그는 步行 조차 어려운 混症을 앓고 있었다. 그리하여 가마에 실려다니면서 밤낮을 쉬이 없이 사졸들을 격려하고 督戰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고대했던 外援의 꿈도 좌절된 채 連九晝夜間에 걸친 百餘會戰의 악전고투 끝에 城은 함락되기에 이르렀고 김천일 부자는 물론

守城戰에 참전한 대부분의 군사들이 殉節·戰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더할수 없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義兵이 死守하려 했던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반면에 日本軍은 일단 진주성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곧이어 當初 목표대로 全羅道 침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열흘간에 걸쳐 계속된 진주성 血戰에 입은 막대한 兵力손실과 戰力 차질로 말미암아 철군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즉 敵의 湖南 공략의 꿈이 좌절됨에 따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결과적으로 진주성의 義兵은 國力の 근거지인 湖南을 死守한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이제 진주성전투의 主將으로서 城의 함락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했던 김천일의 의병운동이 당시 어떻게 認識·評價되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임진왜란의 終戰期에 體察使의 職任을 맡아 직접 현지에 가서 진주성 함락의 경위를 조사했던 이항복은 의병장 김천일을 가리켜 남이 하지 못한 「三難」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城이 위급에 처하였을 때 아무도 이에 대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없는 義兵將의 신분이었음에도 홀로 引兵하여 가장 먼저 入城한 것이 그 一難이라 했다. 官軍所屬의 장수들은 進退를 뜻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반하여 義兵將은 進退를 任意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官軍將들이 김천일에게 城을 辟할 것을 권유한 동시에 그들 스스로 城을 버리고 달아날때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자신이 死守할 것을 결심했으니 그것이 二難이라 하였다. 城이 함락되던 날, 좌우에서 모두 그에게 避할 것을 권하였으나 堅坐不起하여 끝내 자신의 뜻대로 長子와 더불어 조용히 순절의 길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三難이라 했다.

따라서 이항복은 高敬命·趙憲 등 대표적인 王亂義兵將들을 거명한 가운데 그 중 선비로서 節義를 지켜 조용히 죽음을 택하고 끝까지 操守를 잃지 않은 이는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한 김천일과 양산숙 두사람 뿐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항복과는 달리 전혀 相反된 見解로 진주성 함락을 김천일의 失策으로 연관시킨 예가 있었다. 王亂 當時 領議政을 지낸 柳成龍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현재 國寶로 지정되어 있는 『징비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일이 거느린 軍士들은 다 서울의 市井에서 모집한 무리들이며, 천일 또한 兵法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고집이 너무 지나쳤다. 게다가 평소부터 徐禮元(당시 진주목사)을 미워하여 主와 客이 시기했으므로 호령이 어긋나고 틀려서 이 때문에 크게 패한 것이다.

또 그는 ‘적이 거의 퇴각하게 되었을 때에 천일의 軍士들은 北門을 지키다가 城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하고 제일 먼저 무너져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징비록』은 차라리, 金千銀 한사람의 過失이 敗戰을 초래하고 城陷을 自招하였다 라고 쓴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만일 진주성전투의 主力인 全羅道 義兵의 指導層人士들, 즉 김천일 · 최경희 · 고종후 · 심우신 · 양산숙 등 그 대부분이 서인계 혹은 친서인계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柳城龍과 의 黨色 차이가 위와 같은 記事에 작용하였다면 『징비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提起될 것이다.

『징비록』과 같은 시각으로 진주성전투의 결과를 해석할 경우, 우선 死守의 意志를 갖고 守城戰에 임하여 악전고투했던 義兵의 행동과 여기에 반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책임이 있으면서도 피해 달아나버린 官軍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城을 버리고 가버린 官軍將帥들의 행동이 현명했다는 論理를 암시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義兵과 義兵運動에 대한 理解를 흐리게 할 뿐이다.

義兵이란 國難을 당하여, 正規軍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침략군과 싸운 民兵을 말한다. 그들은 사전에 특별한 軍事知識이나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익히지 않았으며, 또 그것은 義兵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도 아니다. 다만 글 읽는 선비들을 중심으로 유교주의적 忠義觀에 입각하여 峰起한 一時的 戰士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義兵은 兵法이나 戰術 · 火力 등에 의해 전쟁능력을 발휘하는 正規軍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강고한 정신전력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義兵은 전쟁에서 얻어지는 단순한 戰果나 직접적인 戰功을 기대하지 않는 반면에, 敵을 물리칠 수 있을 때 향리를 지키게 되고 나라를 保全하게 되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義兵은 成敗와 利鈍에 관계없이, 때로는 勢가 不利하다 할지라도 싸워야 할 때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최후에는 목숨을 바치고 忠義를 지킨 例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獨自의이거나 決死的인 군사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敵을 두려워하여 감히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敵에게 對抗하므로써 일반민중을 感發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 敵을 막아낼 수 있다는 意志를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同心合力에 의해 國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王亂義兵의 그 같은 역할이 國난극복을 가능케 하였다. 가령 김천일이,

나는 이 군사(義兵)로써 반드시 왜적을 廓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곧 바로 前進하려는 까닭은 官軍을 感發시켜 興起하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가 먼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누가 뒤를 따르겠는가

라고 力說했던 것이 바로 임란 의병의 典型的 行動樣式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임진왜란 기 義兵運動은 兵力 · 兵糧 · 火力 · 戰術 · 戰績 등의 諸問題가 복합된 戰爭史的 시각에서 認識 · 評價될 것이 아니라 戰亂 克服史的 觀點, 즉 國難을 당한 현실에서 당시의 士林이나 일반 민중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하였으며, 그와 같은 노력이 또 어떤 형

대로 나타났는가 하는 觀點에서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하리란 생각이다

3) 白年山 義兵抗爭과 매몰된 地域防衛戰 問題

만일 정유년에 왜란이 再發하지 않았다면 全羅道는 日本軍의 침략을 직접 받지 않은 道가 되었을 것이다. 무주·금산 일원에 접한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정유재란 전 道內에서 實戰을 겪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湖南義兵의 활동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他道地域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선조 30년(1597) 재침 이후의 호남지방 사정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日本이 지난날의 전쟁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가 全羅道를 공략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고 본 풍신수길의 이번에는 「반드시 全羅道를 함락시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재침의 일차적인 作戰目標이 이 지방을 장악하는데 있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小西行長은 順天의 왜교에 城을 쌓고 여기저기에 군대를 주둔시켜 순천·광양-帶의 住民들을 지배통제했는가 하면 島津義弘·鍋島直茂·島津忠豊 등이 이끈 敵의 大軍이 全羅道 全域에 깔려 바둑처럼 널려진 것이 무려 50餘屯에 달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道內 각처에서는 산중으로 혹은 선박을 마련하여 바다로 피난가는 士民들이 줄을 이었고 일부에서는 부역행위로 保身의 策을 삼는 士類들 마저 있었다. 그런가하면열읍의 士族들 가운데서는 「自募將」을 칭하여 각己 수십명으로부터 수백명에 이르는 향병조직을 갖추어 매복에 의한 遊擊戰을 구사하는 등 향리를 주 활동무대로 한 義兵活動을 본격화해 가고 있었다. 이때는 지난날 全羅道 義兵이 보인 대규모적인 成軍樣相이나 遠隔地에서 편 활동과는 달리 自保鄉里의 성격을 띤 小地域單位의 義兵抗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羅州地方의 士人 崔澳가 榮山江流域의 夢難方面에서 펼친 白年山전투 역시 그와 같은 義兵戰의 한 例였다. 현재 이에 대한 직접적인 資料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구체적인 實狀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나주군지』나 『湖南節義錄』에 소개된 것만으로도 그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는 있다.

백년산전투가 있었던 정유년 9월, 그 무렵 島津忠豊·鍋島勝茂 등이 이끈 日本軍이 海南과 康律을 점령한 이후 이어 羅州地方에 쳐들어와 陣을 쳤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당시의 接戰對象은 이들 가운데 一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때 崔澳는 가동 100여명과 향인 수백을 인솔하여 榮山江 支流인 몽탄강 상의 白年山에 陣을 친 뒤 靈岩의 金德洽 등에게 격문을 보내 같이 싸울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山上에 義兵의 旗幟들이 대단함을 본 敵이 쉽게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향민들과 함께 화살과 돌을 모아 가득 쌓아 두었다가 投石戰에 의해 敵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義兵이 孤立無援의 군사들임을 알아챈 敵이 마침내 大軍으로 白年山

을 에워싼 다음 총공세를 취해오자 崔澳는 물론 本役に 참전한 향민 전원이 이 전투에서 戰死하였다. 『나주군지』에 따르면, 이 白年山血戰을 통하여 몇 가지 주목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3백명 정도의 村民을 동원하여 그것을 다시 3個陣으로 편성하였는데 一陣은 장정들로 구성하여 직접 전투를 맡게 하고, 二陣은 年少者와 부녀자로 구성 하여 補給을 맡게 하고, 三陣은 노약자로 充員하여 後方支援을 담당케 하였다고 하니 이들의 의병조직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崔澳의 가복인 還守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졌다고 보는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椰土防衛의 義兵戰에 나타난 천민층의 역할과 그들의 위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義兵의 抗戰 그것 자체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戰亂이 끝난 뒤에 崔澳의 유복자를 중심으로 왜란 때 순절한 동향인 11家の 子弟들이 「射倭會」를 조직, 先親들의 忠烈을 기리면서 그들간에 「相勵志益壯」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忠臣家餘蔭 大義相維持」라고 한 그들의 決意에서도 나타나듯이 義兵運動의 사회적 영향이 當代에 그치지 않고 累代에 이어지면서 鄉村共同體 결속강화에도 작용하였으리란 점에서 他地域의 類例들과 함께 비교 검토해야 할 또 하나의 연구과제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白年山전투에서만 있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허다한 義兵戰事例를 통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이미 論及하였지만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집중공략을 받은 湖南地方에서는 白年山 전투와 비슷한 類型의 義兵活動事例가 매우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地域防衛戰의 樣相을 보인 局地戰이었고 해안이나 하천, 혹은 산간의 要害處 등 地形의 勢를 이용한 關防戰이었다는 것과 이것을 主導한 향촌의 土族들 대부분이 戰死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慶尙道에서 全羅道로 통하는 主要關門의 하나였던 求禮 石柱關에서는 王得仁을 위시한 소위 7義士가 향음을 지키기 위해 수백의 향민들과 함께 수일간에 걸친 激戰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향병지도층 인사들 거의가 戰死하였던 것이다. 寶城·高興一圓에서도 崔大晟·宋大立·全方朔·黃元福 등이 각각 향병을 모아 同盟會軍한 다음, 高興의 望諸浦와 침산, 寶城의 응치 등지에서 歷戰하던 중 宋大立 등은 침산戰에서, 崔彦立과 厚立 兄弟를 포함한 崔大晟 3父子는 응치전에서 모두 戰死하였다. 이 지역에서 이들과 함께 私奴 豆里同·甲戌 형제가 활약한 사실이 나란히 기록에 남아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한다.

또 鳴梁海戰을 前後한 시기에 靈岩의 전몽성·柳長春과 나주의 朴文立 등이 이순신 수군과의 협력하에 명량 인근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하여 치열한 血戰을 펼친 끝에 그 主投들이 다 전몰한 예, 같은 시기에 海南 尹氏 일가의 형제숙질들이 강진·해남 일대에서 향토방위전을 主導하던 중 병치전투에서 모두 전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이밖에도 和順 烏城山城에서 決死抗戰하다가 父子가 동시에 순절했던 崔慶雲 일가를 중심으로 한 義兵抗爭이나, 長興 會寧鎭 부근에서 역시 父子

兄弟가 주축을 이루어 力戰했던 강진출신 廉傑의 活動事例 등 각 지역에서 日本軍과 부딪혀 抗戰한 例들이 許多하였다.

호남지방에서는 정유재란 시에 특히 향토방위를 위한 義兵抗爭이 많을 수 밖에 없었으나, 敵의 침략을 당한 곳이면 全羅道가 아닌 어느 道에서도 크게 차이 없는 현상이었을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반화한 小地域單位의 義兵戰 事例가 이제까지 거의 묻혀져 드러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아마 곽재우 · 고경명 · 김천일 · 정문부 등 당시 널리 알려진 義兵將들의 대규모적 활동에 빛이 가려진 점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中央官邊의 史料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

물론 각 지방에서 보는 門中資料 가운데는 과장 운색되었거나 오류의 흔적이 뚜렷한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얼마든지 취합선택의 여지가 있고, 또 <선조실록>이나 저명한 中央官人의 기록에서도 사실과 다른 오류의 記事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띄게 편협한 견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의 상황이 戰亂에 휩싸인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명의 士民들이 각 지방에서 펼친 義兵戰의 정보가 중앙에 알려지기조차 어려운 實情에 있었고, 또 亂後에 정부가 義兵運動實績을 조사했다 할지라도 뚜렷한 戰績이 확인되지 않거나 혹은 후손이 한미한 경우에는 전적마저 없는 것이 되고 만 例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官邊資料나 저명한 義兵將의 文集類에만 의존하여 임란의병을 연구 ·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이제 임란의병에 대한 연구와 그 理解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官邊의 史料에만 매달리기가 어렵게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지방에 산재한 향중자료(향교나 서원 사우에서 편찬한 것들)나 門中資料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우리가 본 白年山 義兵抗爭과 같은 事例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때 결국 임란의병에 대한 전모와 그것이 갖는 歷史性을 밝히게 될 것이다.

2. 호국 의병의 귀감 김천일(李丙泰, 군사편찬위원)

1) 호남의병의 주역 김천일

임진왜란이 나던 해, 김천일은 53세였다. 이 때는 그가 수원부사로 재임중이었는데, 특권층이 탈세한 사실을 바로 잡고, 백성을 앞세워 세금은 누구나 균등하게 내야 한다는 원칙을 고집하다가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다. 그전부터 호남의 바닷가에는 왜구들이 몰려와 노략질을 일삼아 불안하였으므로, 김천일은 오십이 넘은 나이였지만 스스로 말타고 활쏘는 군사훈련을 익히리만치 나라를 염려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은 담양의 고경명을 찾아 기병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호남의병을 총합하여 거병하자는데 뜻을 모았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김천일은 독자적으로 고경명의 의병보다 9일 앞서 출병하였다.

임진년 6월 3일 나주에서 의병을 모아 출병하던 날, 김천일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풀을 뽑는 데는 반드시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적을 치는 데는 반드시 그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군사를 거두어 먼저 북으로 올라가 곧바로 서울의 왜적을 토벌하자!”

김천일은 향토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국기를 회복하는데 의병의 뜻을 두고 있었다.

이때, 전라도 근왕군이 공주에서 해산되고, 전라도 관군을 주축으로 한 전라·충청·경상 3도의 근왕군이 다시 결성되어, 김천일의 호남의병에 앞서 북상 중에 있었다.

그러나 10만 대군을 자랑하던 이 3도 근왕군이 뜻밖에 용인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천일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의병들도 수백에 지나지 않는 병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김천일은 의병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의병이다. 관군에 비하여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대들이 만약 나를 따르기 싫다면 할 수 없다. 다만 왜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비록 이 땅의 어느 곳에 간들 살길은 없다. 하물며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들이 죽는 법인데, 그대들은 이 나라의 2백년 사직이 길러 낸 백성들이 아닌가!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면, 도리어 살길이 있을 것이다.”

의병들은 김천일의 호소에 감격하고, 어느새 동요가 진정되고 있었다. 모두 다 죽기를 맹세한 것이다. 그러자 싸움에 패하여 흩어졌던 관병들이 찾아들어 충청도에 이르렀을 때는 병력이 1,000명으로 늘어났다.

김천일과 그의 의병이 수원에 도착했을 때, 수원은 그가 수원부사로 재직한 연고가 있어 의병 지원자가 늘어나 독성산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특히 금령전투에서 한 번에 적 15개 조를 무찌르고, 병기·갑옷·투구와 군마 등 많은 물품을 노획하는 첫 전과를 올렸다. 이 무렵, 용인 싸움에서 3도 근왕병의 패전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가 왜군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는 첩자 노릇을 하는 배신자들도 많이 생겨났다. 김천일은 이같은 첩자를 색출 처형하고 민심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낙오된 전라병사 최원의 관군과 합세하여 이 해 7월 하순에 대부대를 이끌고 강화로 이동하였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의병장으로서 관군까지 지휘하게 된 김천일은 통진·양천지구의 의병까지 거느리게 되자 북쪽의 장단까지 통할하여 장단·김포전투를 지휘하였다.

김천일의 강화도 장기 주둔의 목적은 하루 빨리 서울을 탈환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탈환의 기회가 오지 않게 되자 권율의 행주산성 싸움을 도와 한강 하류 연안을 활동무대로 하여 전후

400여 개 조의 적을 소탕하는 전공을 세웠다.

뒤늦게 의주에 파견하고 있던 선조는 김천일의 의병봉기 소식을 듣고 장례원 판결사의 벼슬을 내리고 창의사관 칭호로 의병장에 처음으로 임명하였다. 국왕은 김천일에게 이례적 조치로 교서를 내린 것이다.

“그대는 위협에 당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공을 세우니, 내 어찌 상에 인색할 것인가. 지휘하고 호령하는 것은 마땅히 도원수와 더불어 가부를 정할수 있도록 하며, 군량미와 병기는 오직 그대의 뜻대로 취하여 쓰라.”

김천일이 장기간 강화도에 주둔하였으나, 서울 탈환의 기회는 쉽사리 오지 않았다. 문제는 명나라 지원군이 서울에 당도할 때까지 서울 장안의 난민을 돕는 일이었다. 김천일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서울난민에게 자신이 직접 식량을 선박으로 운반하여 구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난민들은 그들 스스로 의병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김천일은 왕릉의 보호에도 세심한 활동을 하였다. 서울이 적 수중에 들어가자 왜적의 만행은 종묘사직에까지 미치었다. 능이 파헤쳐지고 부장 보물을 노략질하는 등 왜구의 도굴 근성이 기승을 부릴 때, 김천일은 이를 제지할 수 없음을 알고 의병을 뽑아 장안에 잠입시켜 위패를 강화도로 안전하게 봉안하였다.

명나라 이여송의 군대가 개성을 향해 남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일은 강화도에서 철수하여 명군을 도와 도로·지세·적정 등을 알려주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왜적이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적을 추격하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진주성까지 천리길을 쫓았다.

2) 건재의 행장

김천일은 고려 태조의 외손인 언양김씨 鏞의 장손이다. 자는 士重, 호는 健齋, 당호는 克念堂이다. 그는 1537년(중종32년) 1월 10일, 전라도 나주 흥룡동에서 아버지 金彦琛과 어머니 陽城李氏 사이에서 독자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다음날, 그는 어머니를 잃고 다시 6개월 후 아버지마저 잃은 불우한 환경에서 외가에 의탁되어 성장하였다. 열일곱살이 되도록 천자문 한 자도 모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나주 외가댁에 살았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언양김씨의 손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과잉보호한 탓이었다. 더구나 집안에는 어른이 없었고 동네 글방 출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다행히 18세가 되어 군수 金孝亮의 딸을 맞아 혼인하게 되자, 김천일은 비로소 처가의 힘으로 기초학문을 익히게 되었다. 그의 효행은 지극하였는데 그는 외조모상을 당하자 초막을 짓고 비바람 속에서 삼년복상하며 외조모를 잃은 한을 달랬다. 그러나 그는 그때 얻은 질병으로 평생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명확하였고 ‘남의 잘못을 탓하면 반드시 음화가 미치고 남의 악함을

들추기를 즐기면 현안이 이른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 뒤늦게야 처가의 힘으로 학문을 배우게 된 김천일은 무인에서 나이 30에 학문에 진력하여 유학자로 대성한 이항의 문하생으로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글을 가르치는 스승은 찾기 쉬우나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은 찾기 어려운 일이니 저가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곳을 찾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외가를 떠나면서 외조모의 걱정에 이렇게 한마디하고 정든 나주땅을 떠나게 되었다.

김천일에게 학문의 영향을 준 사람은 이항 외에 김신침과 당시 진도에 유배중이던 노수신이었다. 김천일의 학문이 깊어감에 따라 의로운 마음의 뜻과 학문적 자세도 돋보여 만나는 선비들마다 “實得之士는 내가 호남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을 보았다”, “의리와 사물을 체득하였음이 명백하니 진실로 이로운 벗이다”라고 그를 평하였다.

김천일은 학문에 그치는 학문을 배격하고 실천하는 행동지침으로써의 학문을 스스로 깨우치면서 또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었다. 김천일은 서른일곱의 나이에 처음으로 관직에 몸을 담았다. 그의 사상은 관직 재직시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 응시한 적도 없는 그를 당시 經明行修의 인재로 천거하여 발탁시켰다는 것은, 그가 군자감정의 직에 있을 때 선조께 올린 淸安固邦本疏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튼튼함으로써 나라가 태평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교훈이니, 나라가 다스려짐과 혼란함은 곧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삶이 어떠하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안정이 백성을 다스리는 성패에 달린 것으로 보았으며, 항상 그는 일관된 先國後私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즉 관리는 이해와 득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위급한 국사를 처리하는 자세로서 맡은 일에 충실하며, 군인은 군사훈련에 힘쓰는데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용안과 임실현감 때와 순창군수 시절에는 모범관리로 추천 승진되었고, 경상도사 때는이항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였다. 그는 다시 사헌부지평으로 복직되었으나, 신병으로 사직하고 바른 상소를 올리다 수원부사 때는 파직까지 당하였다. 김천일의 사리와 공익을 가르치는 그의 숨김없는 직언은 좌의정 정철에게 보낸 서간에서 짐작이 된다.

“자신을 낮춘 고인은 나라를 위하여 의를 극히 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사랑은 오히려 가벼이 하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처신하고 주선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재직 시에 언젠가 물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드러냄은 옳지 못하고 오래 머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말은 다하고마는 그의 직언은 때로는 국왕까지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하였다.

3) 마지막 진주성의 싸움

명나라의 지원군은 벽제관에서 패전하자, 크게 위축되어 화의의 뜻을 품게 되었다. 왜군도 행주

산성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전세의 불리함을 예측하고 조선의 두 왕자를 인질로 하여 강화에의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왜군은 명나라 군사를 약화시키고 조선의 군사를 견제한 뒤에 진주를 공격하여 지난해 1차 진주성 패배의 한을 설욕하고 호남으로 진격하여 다시 북상하려는 술책으로써 강화를 내세웠다. 결국 조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심유경과 고니시유키나가를 중심으로 한 강화외교가 성립되면서 왜군은 서울에서 철수하여 퇴진하기 시작하였다. 왜군의 주력부대는 경상도 동래와 김해에 집결하고 후속부대가 밀양에 도착할 무렵 부대를 재편성하여 제2차 진주성 공격을 서두르고 있었다. 진주성은 지난해 10월에 하세가와히데이씨가 이끄는 3만 병력이 김시민 목사가 지휘한 관군에게 크게 패한 곳이었다.

도요토포히데요시는 진주성 패전의 한을 풀고 죽어간 왜군의 혼을 달래겠다고 버르고 있었다. 또한 전술적 면에서는 호남으로 통하는 요충지대라는 점과 호남의 곡창지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요지에 진주성이 위치하고 있어 상호 간에 필쟁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영남 일대의 왜군은 부대를 재편성하고 대군을 몰아 창원을 거쳐 함안에서 의령과 반성의 두 갈래 길을 따라 진주성 공격에 임하였다. 이 무렵 국내에서 뜻있는 선비와 충의지사들은 침략군을 격퇴하여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이 있었지만 당시의 형편은 기본질서가 서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된 기근과 질병으로 노약자는 죽어가고 강자는 도둑질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관리들은 명나라 군사를 돕는다는 핑계로 백성을 착취하는가 하면, 곡식은 관가에서 걷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군의 남하 집결에 대처하여 왜군을 추격하던 관군과 의병군은 경상도 함안을 중심으로 영남지방에 집결하였다. 즉 선산·의령·창녕 등지에는 관군과 의병이 대구·상주·남원 등지에는 명나라 군사가 집결하여 명과 왜의 강화회담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과 왜의 강화회담은 부산에서 명의 심유경과 왜의 고니시유키나가는 진주성을 서로 비워두자는 공성책에 찬동하고 있었다. 조선측에서는 속수무책이므로 일부에서는 이 공성책을 찬동하였으나 김천일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장수들은 반대하였다.

김천일은 진주성을 사수하여 호남을 지켜야 한다고 조정에 알리고 회답을 듣지 못한 채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뜻에 찬성한 충청병사 황진, 경상우병사 고종후, 사천 현감 장운, 의병장 변사정, 민여운, 이계련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성에 입성하였다.

수성군은 김천일을 중심으로 우도절제사 김천일, 좌도절제사 최경희, 도순성장, 복수대장, 찬획, 참좌, 군기주부, 각군부장, 전투대장, 전투부대장으로 편성하고 계엄 아래 왜군의 침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진주성의 입성을 반대하고 김천일의 뜻에 불응하였던 장수들은 김해·창원 등지에서 바다와 육로로 왜군이 함안을 공격하자 모두 흩어져 버렸다. 이들은 다시 의령으로 모였으며 순변사 이빈은 왜적들이 진주성을 함락시킨다면, 먼저 들어간 우리 군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니

남은 의병으로 그들을 지원하자고 장수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의병장 곽재우는 정면으로 거절하였다.

“權者は 용병에 능하고 智者는 적을 헤아릴 줄 알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적을 잘 헤아리지 못하면 마침내 일을 그르치고 말것인데 어찌 성을 지킬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군사가 다시 성에 들어가면 뒤에는 응원군이 없어질 것이니, 마땅히 입성하지 않고 예비대로서 외각에서 지원하겠다.” 곽재우의 말이 떨어지자 경상우감사 김록은 크게 노하여 외쳤다.

“장군이 대장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니 군율을 어찌할 것인가.”

“일신의 생사는 아까운 일이 아니나, 백전군졸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차라리 자결할지 언정 성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곽재우는 계속 굽히지 않았다. 이때에 전라병사 선거이와 경기조방장 홍계남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에 왔다가 김천일을 만나 퇴군할 것을 권하였다.

“군세의 많고 적음이 현격하니, 물리나와 다른 곳을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나 김천일은 크게 노하여 이들을 꾸짖으니 그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함양으로 되돌아갔다.

왜군은 다시 의령을 공격하였다.

의령에 있던 권율과 정진에 머무르고 있던 곽재우 등의 관군과 의병들은 남원으로 피하는 등 퇴군하고 말았다. 왜군은 의령으로부터 제2차 진주성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진주성 동북방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0만 대군으로 공격하였다.

진주성 남쪽은 축석루가 있는 곳으로 남강을 접한 절벽이었다. 서북면 쪽도 참호를 파두어 큰 늪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곳은 성의 동쪽뿐이었다. 진주성은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철저한 수비와 외부의 지원만 있으면 쉽사리 함락될 곳은 아니었다.

김천일은 성 안의 수비주장으로서 도절제의 임무를 띠고 총지휘하였다. 계사년(1593년) 6월 21일 오전, 처음으로 왜병이 진주성 동북산상에 출몰하였으나 응전을 하지 않았다. 산허리로부터 향교 앞길을 거쳐 마현에 이르기까지 바둑판처럼 벌여진 적진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탐색전으로 하루가 지나가자 다음날인 22일 왜군은 온종일 진주성 안쪽으로 포탄을 쏘아댔다. 해가 서산에 기울무렵 드디어 대접전이 벌어졌다. 성벽을 사이에 두고 불길이 성벽 아래로 날아갔다. 그리고 몇시간이 흘렀는지 다시 진정되면서 조용해졌다. 다시 자정이 되면서 또 한차례 왜군이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새벽이 되자 그들은 별소득을 얻지 못하고 물러갔다. 진주성 안에서 전투 광경을 지켜보던 목사 서예원이 놀라 겁에 질리고 실의에 빠지자 군민의 사기가 떨어졌다. 김천일은 여러 장수와 상의 끝에 사천현감 장윤을 임시 목사로 삼았다. 23일에도 왜군은 주기적으로 공격을 가해왔으나 의병들은 다시 사기를 회복하여 대나무와 판자를 엮어 방패를 만들고 공격해오는 왜군에게 뜨거운 물과 햇불뭉치와 돌을 퍼붓고 던지면서 무수한 왜병들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물밀듯 다가오는 적은 성 안 입구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백병전이 벌어졌다. 힘과 힘의 대결이 지나

쳐 죽음의 대결이었다. 이날 밤 큰비까지 쏟아져 축대가 무너지고 성벽 틈으로 스며든 물줄기가 많아지면서 사태가 나자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었다. 거제 현령 김준민은 앞장서서 이를 저지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여 의병장으로 첫 비극을 당하였다. 24일에도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날도 왜군이 대거 밀려왔으나 의병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처음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 비가 계속오는 장마철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왜군이 동문 밖에 산더미처럼 흙을 쌓아 그 위에 망루대처럼 지어 성 안을 굽어볼 수 있게 하고 철탄을 비오듯 쏘아대어 성 안 군사들이 많이 다치고 죽어갔다.

김천일이 여러 장수들에게 성안에서도 축대를 쌓아 망루대에서 현자통을 쏘아 적의 망루관옥을 부수도록 명령하자 삼시간에 망루대가 완성되고 이를 활용하여 왜군을 살상하니 병사들의 사기는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이날 왜군과의 접전은 주간에는 3전 3퇴, 밤에는 4전 4퇴의 막상막하인 전투가 계속 되었다. 김천일은 명나라 군사나 관군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원특사를 보냈으나 아무 기별이 없었다. 6일째가 되는 날 적은 커다란 목재를 만들어 소의 생가죽을 씌우고 목재를 여럿이 머리에 이고서 육박하여 성벽을 뚫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 중 망루대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큰 돌을 굴러 떨어뜨리면서 총통을 쏘아 왜적을 물리쳤다. 적도 동문산상에 설치된 망루대 관옥에서 성 안을 내려다 보며 불뭉치를 던지니 성 안에 있는 초가에 불이 붙어 그 화염이 하늘을 가렸다. 그럼에도 성 안의 관군과 의병은 이 싸움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백성들과 합세하여 왜군을 막아내었다. 온 종일 이러한 싸움이 십여 차례나 거듭 되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성 안에서는 이레째 쉬지 않고 싸운 탓으로 군사들과 백성들이 탈진상태에 빠졌다. 이 날 적진지에서는 항복을 종용하는 심리전을 펴고 있었다. 포의병장 강희보가 힘을 다해 싸우다 전사하였다. 계속 밀려들어오는 왜군은 구갑계를 만들어 네바퀴 달린 차 위에 설치하고 그 속에 병졸들을 싣고 성벽에 돌진하여 쇠몽둥이로 성벽을 뚫었다. 성 안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기름 묻힌 쉼에 불을 붙여 던져서 갑계를 불태웠다. 밤이 깊어지자 왜군은 또다시 북문을 향하여 쳐들어왔으나 김해 부사 이종인과 그 부하들이 힘껏 싸워 물리쳤다. 온종일 쏟아지는 비는 조금도 그치지않아 성벽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수축하면 다시 무너졌다. 그 다음날 진주부사였던 서예원의 불찰로 그의 담당구역이 기습당하여 그곳이 거의 뚫린 상태에 이르렀다. 날이 밝자 적은 뚫린 성벽을 향하여 집중공격을 감행하여 왔다.

이 때 충청병사 황진, 김해부사 이종인 등의 의병장이 앞장서서 용전분투하여 침공한 적을 물리쳤다. 그러나 이날 순성장 황진이 순시 중 전사함으로써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밤에도 적은 공격을 가해왔다. 9일째가 되는 날, 전사한 황진을 대신해서 임시 진주목사인 사천현감 장윤이 순성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도 순찰중 전사하고 말았다. 성안의 군 · 관 · 민의 사기는 더욱 떨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많은 비가 쏟아지면

서 성 동쪽 문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틈을 타서 적병들이 물밀듯이 달려들어 오고 있었다. 이때 이인종과 그의 휘하 의병들은 죽기를 마다하고 육박전으로 이를 물리쳤다. 그러나 다시 서북문 쪽을 향하여 적이 돌진해 오자 서예원은 달아났으며 군사들마저 방향을 잃은 채 제각기 흩어져 마침내 왜군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김천일 휘하 정예군도 하는 수 없이 축석루 쪽으로 후퇴하였다. 쫓기고 쫓고 도망치며 피비린 내 나는 성안의 아비규환, 이제는 속수무책이었다. 김천일은 심한 병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성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보행조차 어렵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비장한 각오로 김천일은 의병에 참전한 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들 상건의 손목을 꼭 잡았다. 그는 아들과 군부장 양산숙의 부축을 받으며 최후의 결심을 피력하였다.

“나의 죽음은 기병한 날 결심한 것이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른 것도 늦었다 할 것이다. 다만 그대들은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 신고를 겪은 지 2년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대들이 가련할 뿐이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김천일은 곧 일어서서 북쪽을 향하여 재배한 후 먼저 칼을 강물에 던지고 큰아들 상건을 껴안았다. 군부장 양산숙이 무릎을 꿇고 소리를 쳤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들을 안은 채 남강 절벽 아래로 떨어진 후였다. 김천일은 이렇게 순절하였다. 이날 진주성은 적에게 몰락되고 말았다.

4) 文烈의 諡號가 남긴 뜻

김천일이 순절하자 뒤를 따르던 의병들은 연달아 몸을 남강에 던져 죽거나 흩어져 버렸다. 노병으로서 최후까지 병든 몸을 이끌고 부축받으며 친히 부하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앞장서서 싸우다 끝내는 목숨을 던진 거장의 최후는 의병으로서의 기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순절한 후 더할수 없는 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다. 진주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왜군은 그들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막대한 병력손실과 작전의 차질로 호남진격의 꿈이 좌절되어 철군하고 말았다. 기록에 의하면, 진주성 싸움에서 관군 2,004명이 전사하였고, 김천일 휘하의 의병 3,000여명 가운데 800여명이 전사하였으며, 확인하지 못한 병력까지 합치면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운 순국의병이 희생되었다.

송방준이 쓴 진주서사에는 김천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이 진주에서 죽은 일이 다만 인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슬프다. 성을 쌓고 못을 판 것은 장차 왜적을 물리치고자 함이었다. 하물며 공이 진주를 지키지 않았다면 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을 터인즉, 호남의 50성은 모두 짓밟혀 반드시 진주성의 참화보다 더욱 심하였을 것이다. 호남의 인명수가 진주, 그 한 성의 그것과 어찌 같다 하겠는가.”

또한 명나라의 장수 오종도는 김천일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제문에서 이렇게 썼다.

“나라 일을 잘못 보아 임금을 피난가게 하고 군사를 가지고서도 구원하지 않아 성읍을 잿더미 되게 하고서도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살아있을지라도 어찌 장군의 죽음만 같으리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조의 정치 및 국방면에 있어서는 비변사의 강화와 훈련도감을 위시한 군사기구의 개편이 시작되었다. 또 난중에 각종 무기가 제작되었으니 즉 비격진천뢰와 화차를 발명하였고 불랑기포를 모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재정을 바로잡은 대동법과 면세전의 확대 방지, 균역법의 시행, 어려운 백성을 돕는 환곡, 모곡의 회수책 등이 제도화된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전염병이 만연되자 질병퇴치를 위한 동의보감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의병활동에서 비롯된 애국심의 발로는 자아반성과 함께 명나라에 대한 사대사상을 더욱 고조시켰지만 왜국에 대한 재인식과 적개사상도 더욱 강해졌다.

김천일의 둘째아들 상곤은 진주 남강에서 며칠을 두고 부친의 시신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치발조갑을 모아 나주 영산강 언덕에 장례를 지냈다. 나라에서는 김천일의 구국정신과 순의를 높이 평가하여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하였다. 또한 나주사람들은 정렬사를, 진주에서는 창렬사에 위패를, 순창에서는 화산서원에, 임실에서 학정서원에서 배향하였다.

1618년, 광해군은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 관상감사로 추가 가증하고 인조 5년에 문열의 시호가 내려졌다.

“신이 생각하건대 동심하면 대사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심하면 작은 일도 구제하기어려운데, 지금은 삼도가 운물하고 만백성은 어육이 되었으니 정히 군신 상하가 모두 협력동심하여 원수를 갚기 위해 만남을 이겨야 할 때입니다. 주상께서 어찌하면 토적 복수할 것인가 하고, 대부도 어찌하면 토적 복수할 것인가 하며, 사서민 또한 어찌하면 토적 복수할 것인가를 궁리하되, 무릇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토적하기를 자신의 일처럼 한다면 … 단결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살아 생전, 김천일이 선조임금께 상소한 글귀에는 동심협력의 중요성이 국난극복에 미칠 영향을 이렇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제 김천일 의병장이 간 지 394년이 지나갔지만 그의 발자취는 아직도 한에 맺힌 듯 후세가 남긴 서원 사당에 모신 위패 앞, 향이 타는 내음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3. 健齋 金千鎰의 學文과 義兵活動(김정우,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1) 수학과 사우관계

권신정치와 호남사림의 동향

金千鎰의 본관은 彦陽이고 字는 士重, 號는 健齋로 高麗侍中 就礪의 14대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전라도에 거주하였으며 옛집은 昌平縣 台山里에 있었으나, 아버지 彦琛이 暘城 李氏에게

장가가면서 처가가 있는 나주에 정착하였다. 그는 중종32년(1537) 나주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 彦琛과 어머니 暘城 李氏가 세상을 일찍 떠나 외조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중종 32년(1537) 이후 정계에 재등장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사림세력은 大尹을 지지하며 仁宗의 등극과 함께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었다. 사림계 신료들은 臺諫職을 중심으로 小尹을 견제하는 한편 公道政治를 표방하던 己卯士林의 정국 운영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종이 즉위 7개월 만에 죽고 明宗이 등극하자 외척 尹元衡을 중심으로 戚臣政治가 이루어진다. 이 배후에는 文定王后가 있었다. 12세의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관례에 따라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윤원형의 소윤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 명종의 친정 이후에도 문정왕후는 ‘나와 윤원형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라는 말로 명종과 자신 및 윤원형의 관계를 새삼 확인하려 하였다. 이에 공적 권력관계를 일탈한 명종과 문정왕후 사이에 권력 배분 관계가 형성되었다. 문정왕후는 왕권을 빙자하여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특히 內需司에 직접 中使를 파견하는 등 독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려 하였고, 윤원형 등 외척권신들은 議政府·六曹·郎官·備邊司 등 주요 정치 기구를 수중에 두고 국정을 농단하였다.

또 윤원형 등 외척권신은 그들을 탄핵하려는 일군의 사류를 축출함으로써, 사림의 성장을 저지하고 그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그들은 당시 사림을 기묘사림으로 인식하고 黨流 乙巳士禍를 일으켜 제거하였으며, 이후에도 ‘양재역벽서사건’, ‘安名世사건’ 등을 통해 끊임없이 탄압했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려는 사림이 제거됨에 따라 정치세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명종은 또 다른 외척인 李櫟을 발탁하여 훈척 체제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로써 대비의 외척과 중전의 외척이 정국을 농락하고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는 ‘君弱臣強’의 시대가 되었다.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짐에 따라 지방에서도 양반들의 토지 검병과 관료들의 과도한 수취로 농민들의 몰락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 초기 이래 누적되어 온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과 명종代 심화된 정치 과행 양상이 중첩되어 급기야 민심이 이반되었고, 국가가 망해간다는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었다.

李滉, 曹植과 같은 일군의 학자들은 조정에 나아가지 않는 대신 향리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제자를 양성하며 미래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점차 공부하는 방법이나 학풍에 따라 차이가 생겼고 이에 따라 퇴계학과, 남명학과 등의 학파가 형성되었다. 퇴계가 주자성리학 위주였다면, 남명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노장사상이나 양명학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처세관이나 지역 기반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퇴계학파는 ‘難進易退’를 모범으로 하여 경상좌도에, 남명학파는 ‘士尊官卑論’에 따라 재야 본위의 처세관을 견지하며 경상우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천지가 생물에 은택을 베풀 듯이 군주도 인정을 베풀어 민생을 복돋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

지고 상호소통과 연계의 망을 갖추어나갔다.

이때 호남에는 金麟厚·盧守愼·李恒 등이 학문을 주도하며 학계를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김인후는 金安國과 崔山斗 등에게 배웠으며, 인종이 죽자 사직하고 장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그의 사상은 . 기본적으로 주자성리학에 충실히 따르면서 主理論의 입장에 가까웠다. 그는 理와 氣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理와 氣를 같은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반대하고 理의 우위성을 인정하였다. 盧守愼은 장인인 李延慶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乙巳土禍로 호남에 유배되어 19년간 생활하며 김인후·이항 등과 교류하였다. 그는 羅欽順의 『困知記』에 영향을 받아 道心은 性이며 人心은 情이라고 정의하며, 道心이란 天理가 마음 속에 갖추어진 것이며 이런 天理가 氣를 타고 드러난 것이 人心이라고 생각해 정통 주자학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항 또한 태인에 머물며 후학을 양성한다. 그는 理란 氣 속에 있으며 영원불멸하는 것으로 理氣不雜을 강조하며 理와 氣는 渾然한 一物이라고 주장한다. 人心道心說에서는 人心과 道心을 모두 理와 氣가 交發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已發이며 情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理氣說은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는 徐敬德, 李珥와도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理氣說에서는 나흠순의 영향을 받은 반면 인심도심설에서는 정통 주자학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은 서로 서신을 통해 理氣說과 人心道心說에 관해 활발히 토론하였으며 이 결과 호남에서는 李滉과 奇大升의 四端七情論爭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主理과 主氣의 사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공부와 사우

김천일이 공부하던 시기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이 고조되는 때였다. 특히 그가 19세 때인 명종 10년(1555)에는 乙卯倭變이 일어나 전라도 연안 일대가 노략질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김천일은 당시 豪傑之士로 이름이 높은 一齋 李恒을 찾아가 수학한다.

이항은 배우기를 ‘ 쉬지 않으면 모든 이치가 절로 통한다(學不息 萬里自通)’고 하는 자강불식의 지속성과 주밀성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시조 「泰山歌」는 바로 이항의 학문 경향을 잘 드러내주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후진 양성에도 철저하여 제자들은 쉬는 틈에도 이 시조를 불러야 했다. 이항의 문하에서 김천일은 『小學』과 『大學』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항이 5일간 식음을 廢하라고 명하자 김천일만이 스승을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강독했다고 하는 일화는 그가 이항의 학문자세를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일은 이항의 소개로 당시 호남의 巨儒들을 만날 수 있었다. 명종 13년(1558) 22세가 된 김천일은 이항의 사돈인 河西 金麟厚를 만난다. 김인후는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려면 시련을 잊고 정진하는 그를 보고 ‘實을 얻은 선비를 남주에서 처음 보았네’라고 감탄하며 이별할 때 시를 지어주며 격려해준다.

종이 창문에 눈보라 칠 때 紙窓風雪時
 멀리 정자 대문 앞의 뜻을 잊지 말게 遠憶程門志
 자강하는 마음을 바꾸지 말고 勿替自強心
 천지간에 우뚝 밝게 서게나 昭然立天地
 바야흐로 봄바람이 세차게 불 때 正是春風浩蕩時
 옛 사람은 성은 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네 昔人言性自仁推
 조용히 함양하여 바야흐로 즐거움을 알면 從容涵泳方知樂
 인과 애는 효를 따라 베풀어진다네 仁愛皆從孝上施

송나라의 큰 학자 程頤를 뵈러간 제자가 스승이 눈을 감고 있으니 문밖에서 기다렸는데 눈이
 석 자나 쌓였다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自強不息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여 孝를 통해 仁愛를
 실천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명종 16년(1561)에는 羅士慄과 함께 진도에 유배와 있던 盧守愼을 찾아가 經義를 강론한다. 노
 수신은 진도에 유배된 이후 김인후, 이항 등과 서신을 통해 여러차례 학문을 토론하였으나, 정통
 주자학과는 차이가 있어 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 김천일이 처음 노수신을 찾아간 것은
 바로 이항과 노수신 사이에 토론이 시작된 때였다. 노수신은 비록 이항은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
 만, 김천일과 나사을 두 사람이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시를 지어준다.

일재를 꿈에 보지 못한지 오래러니 不夢一齋久
 도리어 명의 젊은 선비를 만났네 還逢二妙新
 서로 남은 회포를 전하면서 相傳只餘論
 스스로 고독한 신하임을 깨달았네 自警獨孤臣
 금리에 맑은 거문고 밤이요 錦里清琴夜
 燕山에 흰 국화 피던 때로다 燕山白菊辰
 취한 노래를 화답한 이 역시 있으니 醉歌猶有和
 늙은이의 흥취 어찌 신나지 않으리 老興豈無神

그리고 명종 20년(1565)에는 김천일 또한 노수신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그는
 먼저 인심도심설이 ‘萬古에 教를 세운 근본’임을 말하고, ‘朱子가 程子の 舊說에 우연히 미치지 못
 하였다’는 노수신의 견해에 대해 질문한다. 程子の 舊說이란 ‘人心은 人欲이고 道心은 天理이다’는
 말로 인심을 惡으로 도심을 善으로 보는 노수신의 인심도심설의 기본 명제를 말한다.

주자가 ‘人心은 善惡을 겸한 것이라’ 것은 道心은 오직 微하다는 설의 중복임을 보통 학자도 알
 거늘 하물며 문공이라? … 대개 道心이 人心의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人心은 참람하고 장황
 하여 정답지 못함에 흐르기 쉬우니 불가불 性命의 근원이 발현하여 그치지 않은 것을 말해야하

므로 人心道心の 기미와 발단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김천일은 마음을 虛靈知覺의 본체로 생각하고 理(性)와 氣(人欲)를 지각하는 것이 인심·도심이라는 주희의 인심도심설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 속에 善惡을 겸비한 人心은 正을 잃기 쉬워 人欲에 치우치기 쉬우니 도심은 미약(微)하다는 말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人欲에 치우치기 쉬운 人心을 억제하고 天理를 지각하여 실현하려는 道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김천일의 생각은 人心과 道心을 모두 理와 氣가 交發하는 것으로 보고 주희처럼 모두 已發이며 情이라고 생각한 이항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명종 18년(1563) 나주로 돌아온 김천일은 覆巖江 가에 집을 짓고 克念堂이라고 편액을 걸었다. 이에 이항 또한 시를 보내 축하해 주었고 朴淳·白光勳 등 당시 호남의 명사들이 찾아와 북암강에서 노닐며 이곳에서 학문을 토론함으로써 극념당은 이 지역의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高敬命 또한 후일 이곳을 찾아와 김천일과 극념당의 뜻을 되새긴다.

성인과 미치광이는 한 생각에서 나누어지니 聖狂分一念
잠간 사이라도 경계를 놓치지 마세 造次戒垂堂
털끝만도 잘못된 바가 있다하면 毫芒有所失
마침내 만 길의 구렁에 떨어지리라 終墮萬仞岡
편액을 건 뜻이 구차하지 않으니 揭扁意不苟
옛 성인의 가르침이 깊구나 古聖垂訓長
마땅히 극념당의 위에서 當於克念上
힘을 합쳐 노력하세 同力如挽強

克念이란 『書經』 「多方」 편에 나오는 말로 ‘오직 성인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도 능히 생각한다면 성인이 된다(惟聖罔念作狂 惟狂克念作聖)’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으며 잠시라도 생각을 잃지 말고 경계를 지킬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후에도 고경명은 김천일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김천일은 호남의 학문이 발달하던 시기 이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항의 학문은 이기이원론과 이기일원론의 중간 단계로 이원론에 반대하는 일원론의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김천일을 비롯한 이항 계열의 학자들은 학문적으로 서인 계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천일은 박순·고경명 등 주로 서인계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였으며, 특히 서인의 영수가 되는 鄭澈과는 사돈관계를 맺을 정도로 돈독한 교분을 쌓고 있었다.

2) 관직생활과 기축옥사

관직생활

선조 1년(1568) 유일의 선비를 천거하라는 유지가 내리자 羅州牧使 韓輓은 羅士忱과 함께 김천일을 효행으로 천거하였으며, 柳希春 또한 전라감사에게 김천일을 추천하였다. 일찍이 유희춘은 김천일을 보고 ‘의리와 사물을 체득한 것이 명백하니 참으로 益友라 할만하다’고 격려해 준 적이 있었다.²⁹⁾ 그러나 김천일은 유희춘에게 편지를 보내 병과 어리석음을 핑계로 아직 관직에 나갈 뜻이 없음을 내비친다.

천일은 학식과 생각이 혼매하여 항상 일신의 운기에 조섭을 잃어버려 지난 가을부터 병을 얻은 것이 침중하여 거의 안식의 날이 없으므로 지금은 더욱 寒病을 얻어 고질의 징후가 되었습니다. … 15세가 가깝도록 천자도 배우지를 않아 사방도 분간을 못한 어리석고 방탕하기 짝이 없었는데 성장하여 나가보니 다 책을 끼고 학업을 익히는데 나 혼자 무지함을 부끄러움이 없지 않아 비로소 향학의 뜻을 두었습니다. … 만일 선생이 이 뜻을 깊이 살피셨다면 반드시 측은히 생각하여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뤄지게 할 것이어늘 어느 여가에 급하지않은 천거를 함이 있겠습니까

유희춘은 이런 김천일의 뜻을 받아들이고 경연석상에서 병으로 벼슬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藥物을 내려 포창할 것을 건의한다. 또 어진 인재는 조금하게 작은 관직에 쓰지 말고 대성하기를 기다려 중용할 것을 말하였다. 5년 뒤인 선조6년(1573) 김천일은 趙穆·李之菡·鄭仁弘·崔永慶 등과 함께 學行으로 천거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처음 군기사 주부에 제수되고 이어 가을에 용안현감이 된 김천일은 실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여주목사 黃琳, 해주목사 李遴과 함께 治積이 좋은 곳으로 선정되었다. 이후에도 그는 주로 지방관으로 부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수원부사 시절에는 부세를 균등히 하다 토호들과 마찰을 빚고 탄핵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기도 하였으며, 임실에서는 부역을 균등하게 하고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다고 한다.

선조 9년(1576) 김천일이 경상도 도사에 제수되었을 때 스승인 이항의 상을 당하고 동문인 奇孝諫·邊士貞 등과 함께 장례를 지낸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스승을 부모처럼 따랐던 김천일은 그 슬픔이 더하였을 것이다. ‘망망한 전통이 떨어졌으니 누구를 다시 찾겠는가, 실성하고 길이 없이 부르짖으니 피눈물이 내려 옷깃을 적시네’라고 탄식하며, 스승의 추모 사업에 전력을 다한다. 묘갈명은 許曄을 통해 盧守愼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동문들과 이항의 행장을 짓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다음해 태인에 南臯書院을 세워 이항을 배향한다.

선조 11년(1578) 사헌부 지평에 제수된 김천일은 입시하여 시패를 논하고 현재를 등용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하자 의기가 저상되어 마침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선조 15년(1582) 김천일은 순창군수를 제수 받고 다시 관직에 오른다. 이듬해(1583) 牛溪 成渾이 이조참판에 특배되자 김천일은 편지를 보내 관직에 나갈 것을 권유하며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 각자의 역량에 맞는 합당한 직책을 맡김으로써 봉당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

고 말한다.

조정은 봉당으로 나누어진 것이 병이 되어 식견이 있는 이도 편벽한 사람이 되어 꺼리고 시기를 한 위망의 화를 양성한 이때를 당하여 성상의 신뢰한 바가 된 이상 넘어진 국세를 붙잡아 상감의 소망을 맞게 아니할 수 없으니 크고 공정한 마음을 넓히고 쓸만한 인재를 사랑하되 그 기량을 다라 그 직을 충당하여 드디어 위험한 봉당의 무리로 하여금 군자는 크고 공정한 뜻이 있음을 알아 돌이켜 부끄러움을 알도록 교화에 훈도된 효험을 보게 하면 국가의 사민이 그 혜택을 받음이 클 것이고 저와 같은 천한 이도 능히 기원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다.

이즈음 이 날로 퇴폐해지고 土風 경박해지자 김천일은 국가의 초석인 선비들이 이 같은 지경에 이렀으니 조정의 불화와 국가 병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소를 올린다. 담양부사에 임명되고 가뭄으로 바른 말을 구하는 교지가 내리자 김천일은 다시 한 번 상소를 올려 당시 폐단을 극론한다. 그는 北胡의 준동과 형옥의 잔인함을 문제 삼고 성학을 밝혀 사습을 바르게 하고 재상을 존중하여 조정을 높이고 수령을 가려 방본을 튼튼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586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친다.

이듬해 선조 20년(1587) 홍양에 침입한 왜군이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노략질하는 일이 일어난다. 바로 정해왜변이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천일은 분개하며 그 대응책의 문제점과 상벌을 바로 잡을 것을 상소한다. 그리고 왜가 화의를 구하자 당시 재상이었던 柳成龍에게 방어 계획과 함께 화의를 배격하자는 편지를 보낸다.

기축옥사와 김천일

안으로는 봉당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밖으로는 외적이 준동하는 가운데 선조 22년(1589) 己丑 獄事가 일어난다. 특히 이 시기 호남은 사류 간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당시 鄭澈은 李潑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나 昌平에 거주하며 이발·정개청 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천일 또한 정개청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 선조 9년(1576) 김천일이 경기도 도사로 있을 때 스승인 이항이 세상을 떠났다. 김천일은 물론 즉시 달려와 문상하였으나, 임지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고 만다. 그러자 나주 사족 사이에서 너무 가볍고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羅德明의 물음에 정개청은 스승에도 차이가 있으니 禮도 한결같을 수 없다고 답한다.

스승의 은의에 대한 가볍고 무거움과 깊고 얇은 바의 차등은 한결 같지 않은 것이니 혼계하여 타이르는 스승이 있고 문장 공리의 스승이 있으며 종유하고 수학하는 스승이 있는가 하면 수업 전도의 스승이 있고 대성, 대현, 차현이 있는 것이니 그 도덕의 크고 작음과 은의의 가볍고 무거움을 보아 상복을 저울질함으로 상기가 3년이기도 하고 1년, 9개월, 5개월, 3개월이기도 하여 스

스로 그 등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천일의 경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스승을 부모처럼 따랐기 때문에 부모상에 준하거나 심상 3년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승이 돌아감에 마침내 잊고 거스르니 인의를 잊은 자이다’라며 비판을 가한다. 이것은 ‘排師論’으로 전달될 소지가 있었다. 김천일은 화가 났을 것이다. 그는 ‘儀典의 예는 천박하고 고루하여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정개청은 더욱 신랄하게 비판한다. 결국 단호한 언변으로 인해 정개청은 김천일과 그를 따르는 사족 집단으로 원망을 샀다. 이후 김천일은 원생들과 마찰을 빚고 물러난 정개청을 대신하여 景賢書院의 원장이 된다. 경현서원은 나주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으로 선조 17년(1584) 목사 金誠一의 주도로 건립되었으며, 金宏弼·丁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을 봉사하였다. 당시 나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써 동서분당 이후에는 원장직 뿐만 아니라 원생 내부에서도 당색에 따라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김천일이 東人의 대표 학자라 할 수 있는 정개청의 후임으로 원장에 취임하여 분란을 종식시킨 것은 그가 나주에서 西人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천일이 담양부사 시절 선정을 베풀어 부민들이 계속 머무르기를 청원했으나 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유생 梁千會의 상소로 호남에서도 옥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친다. 이 과정에서 鄭汝立과 연결됐다는 혐의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입게 되고 민심이 어지러워진다. 이즈음 군자감 정을 제수받고 다시 등용된 김천일은 상소를 올려 처참한 상황을 전한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때에 기황이 든 백성이 조석 사이에 흩어지게 된 것을 보았고, 또 적변으로 달마다 소동이 있었는데, 적을 체포하여 호송하는 군사가 굶주려 쓰러지면서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소리가 도로에 전파되어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잇달아 듣건대 남쪽 지방 백성의 소요가 다시 전일보다 더 심하고 연좌되어 갇힌 사람이 열읍의 감옥에 가득 차고 체포하는 군졸이 원근의 도로에 층만하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참상을 김천일은 나주에서 직접 목격하였을 것이다.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 나오고 옥사가 더 확대되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옥사가 수습되기를 원했다. 비록 나주 지역의 서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정개청 등과 갈등하고 있었지만, 김천일은 옥사가 신속하고 온건하게 종결되기를 바란 것이다.

대단한 연좌가 아닌데도 말이 힐문하는 무리에게 간련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많으니, 얼어 죽는 원통함이 없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인애를 베풀어 자세히 살펴소서. 신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밖으로는 나라의 근본이 이미 손상되었고 안으로는 심복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급급히 수습하여

진정하는 방도가 없으면 치란의 기틀이 오늘날에 당장 판정되어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토호들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김천일은 어지러운 정세를 걱정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성훈에게 편지를 보내 국난을 방관하고 구경하지 말고 직접 나서 조속히 옥사를 처리해 줄 것을 청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영공께서는 국가의 후은을 받고 일찍이 몸을 바쳤으니 그 국난에 급히 하고 방관이나 구경만으로 구급한 일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한 실중에 들어간 것이 험착하여 다시는 불을 피할 땅도 없는데 연기와 불길이 이미 실상에 번졌다면 불을 끄고 못 끌 것은 논한 것이 없으며 티끌과 연기가 더럽히고 안 더럽힌 것을 따질 것도 없이 급히 달려가 불을 끄려는 것이 인정의 본연이니 오늘 형편이 이와 같고 영공의 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호남 유생이 상소를 올려 성훈을 꾸짖는 일이 일어나 성훈은 사직을 결심하자 김천일은 적극적으로 나서 사직을 만류시킨다. 그는 俗儒의 나쁜 버릇이 극도에 이르렀음을 탄식하며 ‘유생의 부박한 말을 개의치 말고 중임을 잘 수행하고 인재를 사랑할 것’을 당부한다. 또 성훈과 정철에게 모두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정국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성훈에게는 정철이 ‘포용하는 아량이 작고 일을 처리하는데 주밀하지 못 한’ 흠이 있지만, 성훈의 보필과 규계가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평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한편 정철에게도 사직을 만류하며 성훈과 서로 마음을 합한다면 정국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낸다.

굳게 움직이지 말고 어리석은 것처럼 행동하며 시국을 진정한테 힘을 쓰되 나라를 돕는 자의 중심을 합하여 넘어짐을 붙잡는 피에 협력하면 비록 치평의 상사에 만회함을 보지는 못할지언정 가히 쇠시의 위급은 구할 것입니다.

김천일은 당시 나주 지역 서인의 대표 인물로 기축옥사 당시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그는 비록 정개청 등 기축옥사의 주요 인물들과 갈등을 겪었지만, 온건한 입장을 취하여 옥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기를 바랐다. 한편 기축옥사 이후 혼란한 정국을 성훈으로 하여금 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정철과 조화를 이루면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 사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자신은 나주에 머물며 사습을 교화하고 사론을 규합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3) 의병활동과 평가

재지적 기반

김천일은 관직에 물러나 나주에 은거하고 있을 때 壬辰倭亂을 맞이한다. 이미 정해왜변이 일어났을 때부터 그는 조만간 국가에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무예를 연마하며 兵事를 익혔다. 김천일은 선조 25년(1592) 선조가 평양으로 몽진을 하고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의 기강이 문란하고 인심이 이탈되었음을 걱정하며 高敬命·朴光玉·鄭謙·崔慶會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 특히 고경명과는 5월 6일 潭陽에서 회합하였으며, 29일 고경명이 기병하던 날에도 담양에서 만나 거병에 관해 상의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천일은 5월 16일 宋濟民·梁山龍·梁山壽·林權·李光宙·徐廷厚 등과 함께 鄉子弟를 불러 모아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국사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우리 무리가 어찌 구차히 살리오. 가령 살고자 한들 홀로 온전할 이치가 없는 것이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적을 토벌하다 죽는 것이 낫지 않은가

300여 명이 김천일의 뜻에 동조하여 의병이 되었으며, 병기와 식량도 차츰 갖춰져 갔다. 본래 김천일은 그의 부친인 彦琛이 처가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주에 거주하여 처음에는 재지적 기반이 상당히 미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천일이 이렇듯 짧은 시간에 의병 활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가인 陽城 李氏의 지원이 컸다. 또 이 시기 김천일은 이미 나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나사침이 목사의 부름을 받고 서원에 나아가 서원유생들을 뽑으려고 할 때에, 김천일이 사침에게 맨 윗자리를 양보하려고 하자, 사침이 이를 만류했는데, 이를 본 목사가 “향당은 나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尼山이 마땅히 상좌에 앉아야 한다”고 하여 사침이 윗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이것은 1587년(선조 20) 나주목사로 任允臣이 부임해 왔을 때의 일로 나사침과 김천일이 나주 지역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湖南節義錄』에 기록된 文烈公金健齋同殉同倡諸公 45인의 명단에서도 김천일의 나주에서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명단에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합류한 사람도 있어 이질 집단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나주 16명, 남평 6명 등 반수 정도가 나주 지역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병 초기의 인사 30명을 분류하면 나주 16명, 남평 3명 등 광주, 장성, 영암 각 2명, 함평, 무안, 순천, 순창, 곡성 등 10개 읍에 한정되며 특히 나주 출신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기병한 高敬命 의병의 경우에는 광주, 남원, 남평, 영암 등 도내 21개 읍에 분포하고 있어 초기의 김천일 의병보다 많은 지역에서 의병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천일이 화급한 거병의지를 가진 것과는 달리 고경명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경명은 박광전·유팽로·양대박 등과 연합하여 潭陽會盟軍의 맹주로 추대되었으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병을 결집하여 6000여 대군을 결집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고경명 군 휘하에 나주 출신의 인사가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김천일이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점과 또 나주에서 김천일의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천일 의병 내의 중간 지도층의 구성에도 학연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천일 군 휘하의 梁山疇는 成渾의 문인이고, 金光運·洪遠은 李珥의 문인이며, 崔希偈·洪民聖은 조현의 문인이고 김천일의 문인으로는 徐廷厚·柳彙進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西人 계열의 인사들로 당시 고경명 의병을 비롯한 호남의병의 경우에 서인계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학연은 의병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항의 제자인 黃進과 張潤은 제 2차 진주성 전투 때 김천일의 뜻에 동조해 진주성을 지키다 殉死하였으며, 同門인 邊士貞 또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장 李潛을 보내 김천일을 돕게 하였다.

서인 계열의 인사들이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기축옥사 이후 향론을 장악하였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군량과 무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호남 지역 동인의 경우에는 의병에 투신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李舜臣·李福男 등의 관군의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이것은 호남 지역이 특히 학연에 얽힌 반목과 갈등이 심해 서인 계열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기보다는 建儲 문제로 재집권한 동인 계열의 관군에 투신하였기 때문이다.

근왕의병 활동

임진왜란 초기 의병활동은 크게 ‘勤王義兵’과 ‘鄉保義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근왕의병이란 아직 적침을 받지 않은 지역에서 자진하여 왕의 주변을 호위하거나 타군을 응원하는 것이고, 향보의병은 자기 고장에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치는 한편 적의 전후방을 차단하거나 보급로를 단절하는 등 진격을 더디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향보의병이 자연발생적인 것이라면 근왕의병은 의지발생적인 것으로 김천일을 비롯한 호남의병의 경우가 근왕의병에 해당한다.

나라는 장차 위태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옹드려 원하노니 많은 선비와 용맹스러운 무부는 나의 글을 보고 나의 말을 들을 지어다. 돌아 보건데 지금의 문물은 모두가 선왕의 의관인데 저 왜노를 섬멸하는데 충용한 장군은 누구인가. 절의 있는 이 병을 모집한 이 작으나 어찌 국가를 호위한 왕사가 없으며 뜻있는 이 때로 일어남은 죽기를 기뻐하는 의병을 얻으려는 것이다.

김천일은 나라의 위급을 구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의병 전쟁의 목표가 왕실을 지키는데 있음을 자임하였던 것이다. 김천일 의병은 6월 3일에 단독으로 서울을 향해 북진하기 시작한다. 최초의 근왕의병이었다. 김천일이 고경명 의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북상한 것은 선조의 서천과 서울의 함락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일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군의 후퇴 소식에 실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라도 관찰사 李洸은 전쟁이 발발하자 관군을 소집하고

복상하지만 공주에서 해산시켜 버린다. 이에 실망한 김천일은 고경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의병만이라도 먼저 복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행군이 湖西에 이르자 따르는 이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5만 군사가 용인에서 와키사카 아스하루(脇坂安治)의 군대에게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김천일 의병의 사기는 일시에 떨어진다.

그대들이 만일 나를 따르기 싫어한다면 어찌 강제로 내몰 수 있겠는가. 다만 왜적을 토벌하지 못한다면 비록 이 땅의 어느 곳을 간들 살길은 없다. 하물며 임금이 욕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어가는데, 그대들은 이 나라의 이백년 사직이 길러낸 백성들이 아닌가.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면 도리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김천일의 호소로 의병은 겨우 안정될 수 있었다. 공주를 지날 때 趙憲이 찾아와 김천일과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를 상의하였다. 김천일도 막하의 宋齊民을 충청도로 보내 의병을 모집케 하고 조헌을 左義大將으로 추대한다. 6월 28일 김천일 의병은 수원에 도착한다. 수원은 일찍이 김천일이 부사를 지낸적이 있어 일대의 지리에 밝았을 것이다. 김천일은 먼저 척후를 보내 상황을 염탐하고 대오를 정리한 뒤 禿城山에 진을 친다. 그리고 군사를 나누어 보내 적과 교전하여 여러 번 승리를 거둔다. 일종의 게릴라 전법을 펼친 것이다. 특히 金嶺의 적을 습격했을 때는 수급 15과를 베고 갑주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한다. 김천일 의병은 전라병사 崔遠의 군대와 합세하고 곧이어 安山으로 이동한다. 이때 분조를 이끌고 이천에 머무르고 있던 왕세자 光海君이 선전관 朴承宗을 보내 김천일을 침중추 겸 방어사에 임명하고 諭書를 보낸다.

오늘날 국사가 십에 팔구는 값으므로 밤낮으로 오직 왕사에 부지런한 병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는 소식이 없으니 지금에 제군이 의를 창하고 병을 일으켜 이미 경성을 박두하였다 하니 이는 실로 천지조종이 묵묵히 도우시어 그러한 것이다. 종사의 준망이 오직 제군에게 달려있으니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려 큰 공훈을 세우도록 하라.

김천일이 근왕의병을 기치로 세우고 복상하여 전공을 세우고 있음을 격려한 것이다. 이즈음 군사가 많아지고 활동이 어려워지자 김천일은 江華島로 진을 옮기기로 결심한다. 먼저 從事 林權을 보내 강화의 피난민을 개유하는 한편 배를 구하여 도강을 준비시킨다. 이때부터 선조 23년(1593) 4월 일본군이 도성에서 철수하기까지 약 7 ~ 8개월간에 걸쳐 강화도는 김천일 의병의 활동 거점이 된다. 이때 행조에 보낸 광현과 양산숙이 돌아온다. 宣祖는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장악원판결사에 제수하고 倡義使의 號를 내려 의병활동을 격려하였다. 또 교서를 내려 의병활동을 적극 지원한 호남의 士民을 위로한다. 의병의 사기는 올라갔다. 이때를 기다려 김천일은 다시 의병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그는 전황과 군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일단 전략을 바꾼다. 먼저 김천일은 일본군에 붙은 자를 설득하고 후일 도성을 공격할 때 내응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도성의 수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변의 적부터 소탕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 가장 큰 전공으로는 양화도 전투를 들 수 있다. 양화도 전투는 김천일이 전라병사 崔遠·추의사 禹性傳·경기수사 李贊·충청수사 邊良俊과 함께 8월 2일 400척의 배로 양화도의 적을 공격하여 200여 명을 사살하고 수급 92과를 얻는 승전한 전투이다. 반면 패전하는 일도 있었다. 8월에는 김천일과 최원이 연합하여 長湍의 적을 공격하였지만 유인책에 걸려 김천일 등이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또 化藏浦에서는 최원의 군사가 먼저 도망가는 일이 있었고, 金浦에서도 우성전이 기약을 어겨 별다른 전과 없이 돌아온 적도 있었다. 강화에서의 유둔이 장기화되고 의병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비변사에서는 도성이 수복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김천일에게 出陸을 재촉하였고 선조 또한 ‘강화는 진취적인 곳이 아니므로 속히 下陸’ 하라는 명을 내렸다.

조정의 도성 수복 의지는 확고하여 비변사에서는 도원수 權慄로 하여금 김천일 등을 거느리고 도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⁶⁸⁾ 김천일은 일단 임환에게 수백의 군사와 함께 권율의 진에 합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소를 올려 자신이 강화에 주둔하게 된 전략적 이유를 밝힌다.

엎드려 생각하건데 신이 외로운 섬에 入據함은 군사를 끼고 스스로를 방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남에서 끌고 온 향병이 卅千도 되지않고 열읍이 움직이면 잘못이 생겨 畿甸이 다 적의 소굴이 되었으나 오직 강화 한 구역이 산과 바다의 험함과 안팎으로 요충을 끼고 북은 漢京으로 통하였으며, 서로는 송도를 접하였으므로 고인이 적의 상류를 점령하여 그 목을 죄고 뒤에서 공격한다는 곳입니다. ... 신이 여기에 유둔함은 진실로 천박한 계획이 아닙니다.

강화 유둔이 결코 의 수단이 保身 아니라 도성 주변의 적을 견제하는 전략임을 설명한 것이다. 결국 김천일은 이 상소로 혐의를 피할 수 있었으며 비변사에서도 도성 수복 작전을 보류한다. 또한 김천일 의병이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충청·전라·평안·황해 4도가 행재소와 서로 통할 수 있었으며, 그 지역의 백성들을 안도시켜 국가의 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화 유둔이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도성 함락 이후 피난민들이 강화도로 몰려오기 시작하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 절박해졌다. 飢寒까지 겹친 것이다. 김천일은 대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에 품의하였지만 뚜렷한 방도를 찾지 못한다. 김천일의 건강도 악화되어 자신의 의병을 이빈에게 귀탁하려 하였으나 軍情이 흔들릴까 염려되어 허락받지 못했다. 의병과 관군 사이에 마찰도 심해져 갔다. 관군과 의병의 대립은 의병의 성군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관군 측은 백성들이 의병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고 의병을 관군에 강제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당연히 서로 간에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군의 영은 의병이 따르지 않고 의병의 공은 관군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 따르는 군사는 작은 데 영을 내리는 관은 많아 다투어 맹주가 되려고 즐겨 서로 양보하지 않고 여기서 영을 내면 저편이 흔들리고 저편에서 영을 내면 여기가 흔들려 군민이 현혹되어 따라갈 바를 모릅니다. ... 통술을 하는 관에 일러 오직 한 장수를 가려 원근의 관군과 대소의 의병이 한 호령을 듣고 피차가 서로 응하며 수미가 서로 원조한다면 회복할 수 있는 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병과 관군의 불화와 出多門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휘계통을 하나로 만들자고 제시한다. 선조 25년(1592) 말경에는 평안도에 柳成龍, 하삼도에 鄭澈, 경기·황해·강원도에 俞泓, 의병절제에 沈守慶 등 4명의 도체찰사가 임명되어 군병을 절제케 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평양과 서울 사이에서 체찰 업무를 수행하여 오히려 군령 및 군사지휘권이 중첩될 우려가 커졌다.

이 시기 김천일은 전란으로 방치되어있던 왕릉 보호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적장이 왕릉을 도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家禮』와 『五禮儀』를 보내 부장품이 없음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군사를 성 안에 잠입시켜 文昭殿의 位版을 강화에 가져와 강화에 奉安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근왕의병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며 전란으로 실추되었던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다.

해가 바뀌고 날이 풀리자 김천일은 도성 수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먼저 도성 인근의 적을 소탕하기 위해 경기수사 이빈·충청수사 정걸과 더불어 仙遊峰과 沙峴에서 적과 싸워 크게 승리한다. 그리고 권율이 주도한 행주대첩에서도 이빈·정걸과 함께 한강을 막아 승리를 거두는데 일조한다.79) 또 평양 수복되자 김천일은 화공을 시켜 도성 인근의 형세와 도로 사정, 적의 상황 등을 그려 명나라 제독 이여송에게 전달하여 도성 수복전을 준비했다. 일본군이 도성을 버리고 후퇴하자 김천일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부터 도성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김천일은 적에 협력한 백성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빠르게 민심을 안정시켜 나간다. 또 유민들을 위하여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하니 도성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고 한다.

이즈음 禁討牌文이 내려지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화의가 논의되기 시작한다. 김천일은 분개하여 明將 李如松에게 강화의 부당함을 진술하였다. 정철에게도 편지를 보내 ‘우리 무리의 죽을 곳조차 알 수 없으니 통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고 울분을 드러낸다.

제 2차 진주성 전투

남해안으로 주력군이 총퇴각한 일본군은 수륙 양면에서 조선군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일본은 축성을 통해 점령지 수비를 강화하여 조선군의 원정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였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이 명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아직 일본군이 건재함을 알리는 무력시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李舜臣과 金時敏에게 패

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진주를 공격하고 호남을 침범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선조 26년(1593) 2 3, 4 진주성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일본군은 총력을 동원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진영에 머물며 화의를 주도하고 있던 沈惟敬에 의해 조선군 진영에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경상남도 의령에 집결하였다. 權慄은 행주대첩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곧장 진주성으로 진격하려 하였으나, 郭再祐와 高彦伯은 ‘지금 日本軍의 세력은 성대하고, 아군은 오합지졸이 많아 전투를 감당할만한 자가 적으며 군량도 없으니 경솔하게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며 권을을 제지한다. 그리고 진주만 점령하면 적이 물러날 것이라는 심유경의 제안에 따라 空城策을 쓰자는데 의견이 모아진다. 宣居怡와 洪季男은 운봉에 진을 쳤으며, 곽재우는 정암진으로 돌아가 진주성 점령 이후 호남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을 견제하기로 한다.

선조 26년(1593) 5월 남하하는 왜를 추격하여 물리치라는 교지가 김천일에게 내려진다. 김천일은 병석에서 분연히 일어나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며 겨우 수백명의 병사만을 거느리고 남하한다. 대세가 空城策으로 기울어지자 김천일은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며 홀로 守成策을 주장하고 다른 장수들을 설득하려 한다.

왜적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진주만 공격한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대저 진주는 호남과 매우 가까워 마치 입술과 치아와 같다 하겠소. 만일 이곳을 버리고 가서 왜적들을 승승장구하게 만든다면 화가 반드시 호남에까지 미칠 것이니, 힘을 합쳐 견고하게 지켜서 왜적의 세력을 막는 것이 나을 것이오.

그러나 여러 장수들은 호응하지 않았으며, 明軍 또한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부총병 劉綎과 유격장 吳惟忠은 대구에, 부총병 王必迪은 상주에, 참장 駱尙志와 유격장 宋大斌은 남원에 주둔하며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화의가 교섭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천일은 6월 14일 진주성으로 들어간다. 김해부사 李宗仁이 가장 먼저 입성해 있었으며 경상우병사 崔慶會·충청병사 黃進·거제현령 金俊民·조방장 鄭命世·사천현감 張潤·복수의병장 高從厚·의병장 李繼璉·표의병부장 姜希輔 등이 입성하였으며, 18일에는 姜希悅·李潛이 수성을 위해 차례대로 진주성에 들어왔다. 진주성은 천연의 요새로 남면은 남강에 접한 험준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침략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서북면 또한 濠가 있어 적의 진입이 쉽지 않아 오직 성의 동쪽만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함락될만한 곳은 아니었다.

김천일은 최경희와 상의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수성 계획을 세우고 한편으로 양산숙과 홍함 등을 유정에게 보내 원병을 요청하였다. 당시 진주성에 있는 군사는 약 3600명으로 성을 지키기에는 부족했으며, 士女를 모두 합해 6~7만이 있을 뿐이었다. 부족한 군사로 성을 지키기 위해 東西北 삼면은 비교적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의병이 지키고 황진·이종인·장윤은 관군을 이끌

고 급박한 곳을 구원케 하는 전략을 세운다.88) 또한 김천일과 최경희가 都節制가 되어 김천일은 의병을 최경희는 관군을 통솔하기로 하였으며, 황진이 巡城將이 되는 것으로 지휘계통도 확립하였다. 선조 23년(1593) 6월 21일 마침내 진주성 앞에 적이 나타나 성을 포위하는 것으로 전투가 시작된다.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필두로 한 총 92,927명의 대군이였다.91)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부터 진주성까지 주둔성을 연결하기 위해 부산포에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동래성에 마에노 나가야스(前野長康), 김해 죽도성에 모리 시게마사(毛利重政), 기장성에 가메이 고레노리(龜井茲矩), 거제도에는 하치스카 아에마사(蜂須賀家政)를 배치하였으며, 구키 요사타카(九鬼嘉隆)는 가덕도에서 조선 수군의 응원을 차단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축석루가 있는 성의 남쪽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북서면 있는 호의 물을 터트려 흙과 모래로 메우고 동서북 삼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25일에는 동문 밖에 토성을 만들자 성안에서는 현자총통을 쏘아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며 황진의 독전으로 4번 싸워 4번 모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26일 일본군은 木櫃에 생가죽을 둘러 탄환과 화살을 막으며 북쪽의 성벽을 허물려 하였고, 鐵甲車를 고안하여 공격하였으나 이종인 등의 분전으로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황진·이종인·장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돌아다니며 위기에 빠진 곳을 구원함으로써 성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특히 장윤은 적의 공격에 놀라 쓰러진 徐禮元을 대신해 假牧使의 소임을 잘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김천일 또한 병으로 견기조차 불편하였지만, 가마를 타고 성을 돌아다니며 의병들을 통제하고 독전하였다. 거듭되는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일본군은 화공과 심리전을 펼쳤다. ‘대국의 군대도 항복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어찌 감히 항거 하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성안에 쏘아 보내 군사들을 동요시켰다. 이 틈을 타 적이 다시 언덕을 쌓고 공격하자 강희보가 이를 막다 전사하였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 병사들은 지쳐가고 장마로 인해 궁시가 풀어지는 등 악전고투가 지속되었다. 28일에는 서예원이 야간 경비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적이 성을 뚫어 침입하여 황진이 이를 막았으나 탄환에 맞아 전사한다. 29일 장맛비로 무너진 동문 성벽으로 일본군이 난입하여 이종인, 이준민, 이잠 등이 성안에서 군사들과 더불어 결사항전을 했으나 역부족으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때 김상건·양산숙은 김천일을 문흥헌은 최경희를 오빈·김인훈·고경형은 고종후를 부축하고 축석루에 모여 북향 재배한 뒤 남강에 투신하였고 이종인은 마지막까지 싸우다 적 두 명을 옆구리에 끼고 남강에 투신한다. 진주성이 함락되는 날 김천일과 최경희, 황진이 축석루에 모여 죽음을 맹세한 시가 남아 있다.

「把酒誓死」

장한 세 선비 축석루에서 矗石樓中三壯士

술 한 잔에 웃으며 강물을 가리키네 一杯笑指長江水

강은 길고 물길은 넘쳐나는구나 長江之水流滔滔
물결이 마를까 혼백은 살겠지 波不渴兮魂不死

제 2차 진주성 전투의 결과 진주성이 함락되자 일본군은 조선 軍民을 학살하고 성의 파괴하여 평지로 만든다. 그리고 일본군은 진주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그들의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이때 입은 막대한 병력손실과 그로 인한 전략상의 차질로 인해 호남공략이 좌절되었다.

의병활동의 의의와 평가

일본군은 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김시민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성을 함락시키고 수만 명의 백성을 도륙한 후 호남으로 진격한다. 조선군은 애초 鼎津 山邑, 雲峰 치고 분산 작전을 펼쳐 호남을 방어하려 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이 함락되고 적의 대군이 밀려오자 일시에 후퇴해버린다. 일본군은 7월에 단성, 산음, 구례, 광양, 남원, 순천 등에 진격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다. 진주성이 무너지면 일본군이 호남으로 진격할 것이라는 김천일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진주성을 지켜 호남을 보호하려고 한 김천일의 의견은 전략적으로도 옳은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은 『晉州敍事』에서 김천일 등의 활약으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광양에서 明軍에 원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갔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林遇華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晉州敍事』를 저술하여 다음과 같이 진주성 전투의 의의를 설명한다.

공이 진주성에서 죽은 것을 두고 헛되이 사람 목숨을 죽였다하니, 아! 슬프다. 이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장차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려 한 것인가? 더구나 공이 진주를 지키지 않아 적의 예봉을 꺾지 못했다면, 곧 호남의 50여 성이 어육을 당함은 진주성보다 훨씬 심하였을 것이다. 한도의 인명의 수효가 어찌 한 성의 백성의 목숨과 같겠는가

그러나 최근까지 제 2차 진주성 전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유성룡은 자신의 저서인 『懲毖錄』에서 진주성 실패의 원인을 김천일의 실책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김천일은 경성의 市井에서 소모한 무리를 이끌었는데 兵事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 심하였고 평소 서예원을 미워하여 주객이 시기하게 되니 호령이 엇갈렸고, 이로써 심하게 패하였다’라고 하였고 ‘적이거의 퇴각하게 되었을 때 천일의 군사들은 복문을 지키다가 성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제일 먼저 무너져 흩어져버렸다’고 진주성 전투를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의 함락은 모두 김창의의 실책으로 말미암을 것이고 또 죽음에 임하여 통곡을 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 한 것 같다’고 하여 안방준과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로 『선조실록』은 ‘김천일은 도량이 편협하고 재량이 천단하니 어떻게 난을 평정하고 시대를 구할 재목이었겠는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유성룡 또한 선조의 물음에 ‘그의 성질이 또

한 실로 오황하고 용졸하였다'고 말하였다. 유성룡은 제 2차 진주성 전투 당시 4도 도체찰사에 있었지만 경기·황해·평안·함경 4도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懲毖錄』의 기록은 그대로 받

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김천일이 성혼·정철 등과 가까운 서인계 인물인 점을 감안할 때 유성룡이 동인의 영수였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懲毖錄』에서 변호하고 있는 서예원은 동인의 영수인 서인원의 동생으로 선조18년(1585) 회령첨사로 있을 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 또 진주성 전투 당시에는 겁을 먹고 당황하여 장윤이 그 소임을 대신하는 등 지휘관으로써 자질이 부족하였다. 이것은 안방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이 성혼의 문인으로 서인계 인물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그 또한 같은 서인계인 김천일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방준은 '서애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왜구가 남해에 침범한 이듬해 화의하게 되었을 때, 김천일이 유성룡에게 화의가 그릇되었음을 극언'한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진주성이 무너지자 조정에서는 선전관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고 상황을 보고하게 한다. 당시 도체찰사로 있던 柳成龍은 치계를 올려 패전의 원인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진주목사인 서예원이 늦게 입성하여 수성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여러 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명령에 혼란이 있었고 셋째, 조선군의 후퇴로 적이 승세를 타게 하였으며, 적의 길을 막아 원병을 보낼 수 없었던 점을 네 번째로 들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외원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 1차 진주성 전투 때는 광재우·조응도·정유경·김준민·정기룡·최경희 등이 성 밖에서 응원군을 이끌고 적의 배후를 교란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외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이 진주만 점령하면 물러날 것이라는 沈惟敬의 말에 空城策이 대세를 이루자 김명원·한효순·광재우·임계영 등은 호남 등지로 후퇴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아 일본군은 진주성 공략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성 준비 과정에서 이미 김천일은 의병을 절제하고 최경희가 관군을 절제하는 것으로 지휘 계통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이 결과 김천일 등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을 9일간이나 사수할 수 있었고 함락의 직접적인 원인 또한 장마로 인해 성벽이 무너진 것이지 결코 누구 한 사람의 실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성 함락을 직접 조사보고한 체찰사 李恒福은 『白沙記事』에서 김천일을 '三難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3難이란 진주성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입성한 것, 관군이 떠날 때 오히려 진주성을 사수할 것을 결심한 점, 성이 함락되던 날 조용히 殉義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明將 吳宗道 또한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살아 있을지라도 어찌 장군의 죽음만 같으리오'라고 김천일을 제사 지냈으며, 선조 28년(1595)에 진주민들은 최경희·황

진·장윤 등과 같이 진주 彰烈祠에 배향하여 그의 뜻을 기리고 있다.

V. 관련 문화재

1. 健齋集

임란 의병장 健齋 김천일(1537~1593)의 문집이다. 1893년(고종 30)에 8대손 金玟相, 金斗性 등이 편집한 필사본이다. 김천일의 문집은 1802년(순조 2)경 간행을 위해 글을 모아 편집한 후 金世淵이 서문을 짓기까지 했지만 간행되지 못하였고, 1867년(고종 4)경에 다시 방계 후손인 玟相이 奇正鎭의 도움을 얻어 간행을 추진하여 1893년 봄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직계 후손인 蓮洙가 기정진의 손자인 奇宇萬의 도움으로 다시 편집하여 활자로 간행하였다. 이 활자본은 본집 4권 부록 7권 합2책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규장각 소장본은 김민성 등이 편집한 필사본이다. 김천일의 문집은 국정과 의병활동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請安固邦本疏>는 1589년 軍資監正으로 있을 때 올린 것으로 역옥사건이 빈번하여 邦本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백성을 침략하고 재산을 탕복하여 逃散者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실들을 들어 시정을 촉구하였고 <待罪兼陳兵勢疏>는 강화도에 의거한 의병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行狀에서 인재의 육성이 治道の 근본이 되고 士習을 바로잡고 守衛를 잘 임용해야 한다는 것 등의 진언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도 의병활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白沙收議>, <晉州廻事> 등의 자료는 관료들 간의 불화 내지 역옥 사건들을 규찰하는데도 참고가 된다. (자료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한국본도서해제』(集部1), 1979년, 21~22쪽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문집해설』1(15·16세기), 1995년, 55~60쪽 ; 『健齋集』 학민문화사가 한국 문집총간목록 47집으로 영인 발행)

1)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유실되고 남은 遺文을 모아 1802년경 金世淵의 교정을 거쳐 간행을 시도하였고, 1867년경에 奇正鎭의 서문을 받아 다시 간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93년에 奇宇萬이 쓴 발문에 “시문 약간 편이 300년 동안 간행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문집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뒤 8대 방손 金玟相과 金斗性 등이 1893년 3월경에 宋近洙의 跋을 붙여 활자로 印刊하였다.

『초간본』 : 현재 장서각(4-5724), 규장각(奎15627)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장본은 後寫本이다. 이 초간본에는 기정진, 김세연이 쓴 서문과 송근수, 김민상이 쓴 발문이 들어 있다. 같은 해인 1893년 11월에 本孫 金蓮洙가 약간 편을 증보하고 편차를 달리하여 다시 활자로 간행하였다.

『중간본』 : 기우만이 쓴 발문에 “傍孫 金玟相이 문집 간행에 공이 있지만 序次가 소루함을 먼



그림 29. 건재선생문집, 정렬사 유물관 소장(좌측 영인본)

치 못하여 本孫 金蓮洙가 사림과 의논하여 개정하여 간행하였다.”라는 말이 들어 있다. 중간본에는 초간본에 있던 김민상의 발문은 제외되었으며, 송근수의 발문도 초간본에 있던 “지금 그 방손 김민상과 김두성 등이 함께 도모하여 문집을 인행하였다.”라는 내용이 “지금 몇몇 후손들이 사림과 의논하여 인행을 도모하였다.”라고 수정되어 실려 있고, 기우만과 朴昌壽가 쓴 발문이 추가되어 있다.

초간본과 중간본은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편차는 중간본이 체계적이며, 行狀은 초간본에는 姜沆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의 행장이 중간본에는 林權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우촌古3648-文10-120),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30)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중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2)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원집 4권, 부록 7권 합 2책으로 되어 있다.

卷首에는 1867년 奇正鎭이 지은 序와 1802년 金世淵이 지은 舊序, 문집 총목록이 있다.

원집 권1에는 賦 2수, 詩 2수가 실려 있다. 쌍으로 나는 평을 보고 자신의 외로움을 읊은 〈援琴歌雉我賦〉, 忠을 주제로 한 〈梁君弘澍…〉와 孝를 주제로 한 〈題白棗堂鄭公玉良旌閭〉 등이 다. 권2에는 疏 3편이 실려 있는데, 1편은 1589년 한성서윤으로 재임할 때에 逆獄 사건에 관련해 올린 글이고, 2편은 임진년과 계사년에 올린 것으로 전란에 대처하는 방도를 진달한 글이다. 권3은 10여 편의 書이다. 盧守愼, 柳希春, 成渾, 鄭澈, 權慄 등에게 쓴 편지이고, 그 중 1편은 전란 중에 재상에게 올린 글로서 당시 폐단을 10조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4에는 銘 1편, 祭文 3편, 檄 1편이 실려 있는데, 제문은 李恒, 盧禎, 白光勳에 대한 글이고, 檄은 임진란 때에 의병을 일으킨 격문이다.

부록 권1에는 敎書, 諭書, 賜祭文이 실려 있다. 교서와 유서는 임진란 때 받은 것이고, 사제문은 선조부터 순조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으로부터 받은 제문이다. 권2에는 金德齡, 吳宗道 등이 지은 제문과 정렬사 등의 봉안축문, 향축문 등이 실려 있다. 권3은 연보이다. 奇字萬이 지은 年譜後識에 의하면, 原撰者는 미상이고 奇字萬이 增刪을 가하여 재판한 것이다. 권4에는 林權이 지은 行狀, 金鎮玉이 지은 墓碑陰記, 후손 金斗性의 부탁으로 宋秉璿이 지은 神道碑銘, 張維가 지은 정렬사비명, 李敏敍가 지은 旌忠壇碑銘이 실려 있고, 그 밖에 사당의 상량문, 중수기 등이 실려 있다. 권5는 진주 三忠祠의 請額啓, 1593년 진주의 격전 사실이 기록된 이항복의 〈白沙記事〉, 安邦俊의 〈晉州敍事〉 등이다. 권6에는 諸賢題詠이 실려 있다. 克念堂에 題한 이항과 박순, 고경명 등의 시와 金인후, 노수신 등이 저자에게 지어 준 시들이다. 권7은 摭錄이다. 「宣廟寶鑑」, 「重峯集」, 「牛溪集」, 유희춘과 이이의 「經筵日記」 등에 나오는 저자 관련 기사를 모아 놓은 것이다. 권미에는 1893년 2월에 송근수가 지은 跋, 1893년 11월 奇字萬이 지은 跋, 역시 같은 시기에 朴昌壽가 지은 跋이 실려 있다.

표 2. 건재집에 실린 김천일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중종 32	1537	정유	嘉靖 16	1	· 1월, 羅州 興龍洞에서 태어나다. · 모친과 부친이 연이어 졸하여 祖母에 의해서 양육되다.
명종 6	1551	신해	嘉靖 30	15	· 季父 金信琛에게 수학하다.
명종 9	1554	갑인	嘉靖 33	18	· 金海金氏 郡守 孝亮의 딸과 혼인하다.
명종 10	1555	을묘	嘉靖 34	19	· 一齋 李恒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다.
명종 13	1558	무오	嘉靖 37	22	· 河西 金麟厚를 배알하다 · 생원 초시에 합격하다.
명종 14	1559	기미	嘉靖 38	23	· 台山書舍에서 講學하다. · 朴希顔, 趙世鏡과 모임을 갖다. · 金麟厚가 내방하여 함께 覆巖江을 舟遊하다.
명종 16	1561	신유	嘉靖 40	25	· 8월, 珍島에 있던 盧守愼을 방문하여 經義를 강론하다.
명종 18	1563	계해	嘉靖 42	27	· 봄, 覆巖江舍를 짓고 ‘克念堂’의 편액을 걸다.
명종 21	1566	병인	嘉靖 45	30	· 7월, 召命을 받은 一齋 李恒을 전별하고 그대로 머물러 동문들과 講學하다.
선조 1	1568	무진	隆慶 2	32	· 1월, 柳希春이 監司에게 말하여 遺逸로 천거하려 하자 편지를 보내 만류하다. · 監司가 천거하다.
선조 6	1573	계유	萬曆 1	37	· 6월, 經明行修人으로 李之菡, 趙穆과 함께 뽑히다. 군기시 주부가 되다. · 가을, 龍安 縣監이 되다.

선조	9	1576	병자	萬曆	4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강원도 도사가 되다. 얼마 안 되어 병이 들어 체직되다. · 경상도 도사가 되다. 부임 도중 彦陽縣 松洞에 있는 祖威烈公의 묘소를 참배하고 碑를 세우다. · 6월, 李恒의 상을 당하여 奔哭하다.
선조	10	1577	정축	萬曆	5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李恒의 行狀을 짓다. · 南阜에 書院을 세우다.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평이 되다. · 任實 縣監이 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직되어 귀향하다. · 高敬命이 내방하여 함께 覆巖江을 유람하다.
선조	15	1582	임오	萬曆	10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淳昌 郡守가 되다. · 白光勳의 제문을 짓다.
선조	16	1583	계미	萬曆	11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소명을 받고 부임하는 成渾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낸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潭陽 府使가 되다.
선조	18	1585	을유	萬曆	13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으로 인한 求言에 응하여 상소하다.
선조	19	1586	병술	萬曆	14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사직하고 귀향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부 서윤이 되다. · 군사감 정이 되다. · 水原府使가 되다 - 豪貴家에 田庄稅를 내도록 한 것으로 인해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 귀향하다. · 12월, 成渾에게 조정에 계속 머물러 國事를 돌볼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왜란이 일어나자 高敬命, 朴光玉 등과 서신을 통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다. · 6월, 鄉子弟들을 모아 의병을 결성하다. · 伊川에 分朝한 왕세자로부터 褒諭의 글을 받고, 僉中樞兼 防禦使에 제수되다. · 江華에 들어가 木柵을 치고 戰艦을 정비하다. · 장례원 판결사가 되고, 倡義使의 칭호를 하사받다. · 陽川, 金浦 등지의 왜병을 격퇴하다.
선조	26	1593	계사	萬曆	21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倭와 의 和議를 반대, 京城에 들어가 陵廟를 봉심하고 수위하다. · 6월,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淸州에 가서 격전을 벌인다. · 6월 29일, 城이 함락되자 子 金象乾 등과 함께 矗石樓에 올라 南江에 투신, 순절하다. · 次子 金象坤이 內榮山에 장사 지내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	· 승정대부 좌찬성에 증직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	· 羅州의 人士들이 月井峯 아래 祠堂을 세우다. · 12월, 旌烈祠로 賜額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	· 7월, 晉州에 書院이 세워지고 彰烈祠로 사액되다. · 9월, 淳昌 花山에 서원이 세워지다.
선조	41	1608	병신	萬曆	36	-	· 任實 鶴亭에 서원이 세워지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	·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에 증직되다.
인조	5	1627	정묘	天啓	7	-	· ‘文烈’의 시호를 받다.
고종	30	1893	계사	光緒	19	-	· 문집이 간행되다(奇字萬의 跋)

2. 教旨

1) 김천일 선생 증직교지 - 정렬사 유물관 보관

-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 벼슬에 경연영사, 홍문관영사, 예문관영사, 춘추관영사, 관상감영사와 세자사를 겸임시킨 증직교지(16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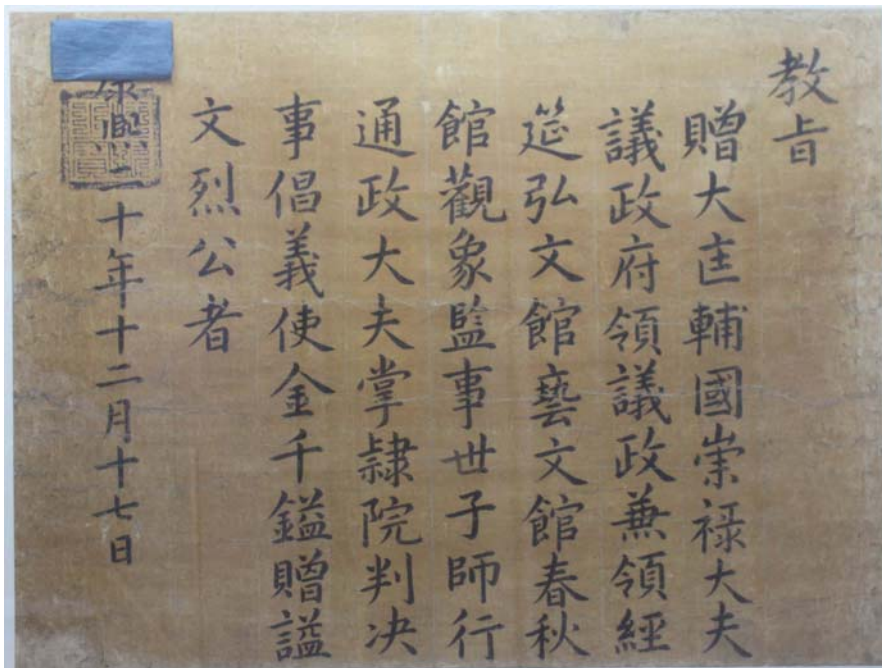


그림 30. 김천일 증직교지

2) 양산숙 선생의 증직교지 - 정렬사 유물관 보관

- 양산숙 선생에게 자헌대부이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의 증직과 충민공 시호를 내린 교지(조선 철종 8년, 함평 7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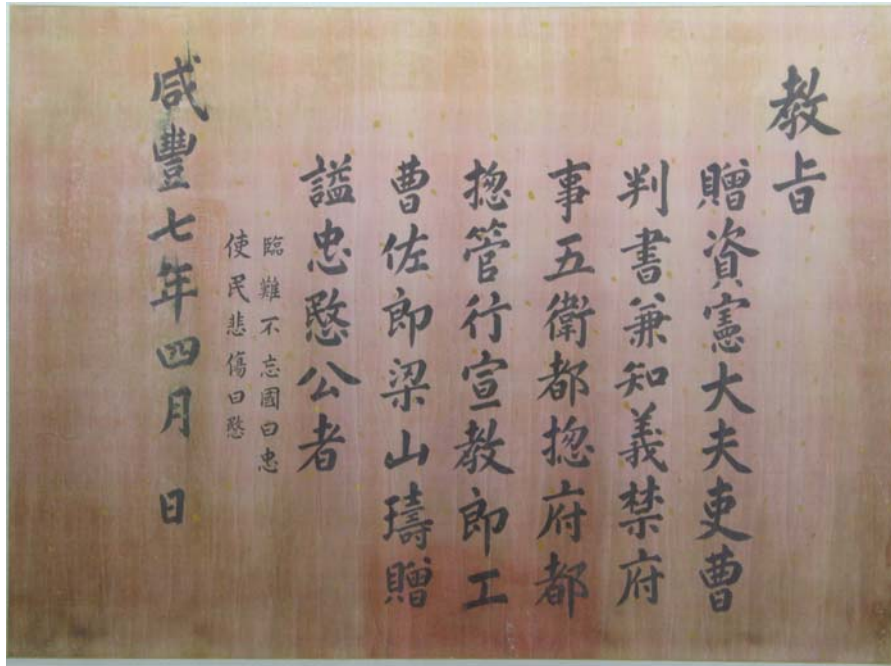


그림 31. 양산숙 증직 교지

3. 기타문서

1) 김천일 선생 친필 서한 - 정렬사 유물관 보관

- 1560년(명종15) 3월에 문열공이 어느 선생택 잔치에 참석하고 왔는데 그 집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서신을 보내온데 대한 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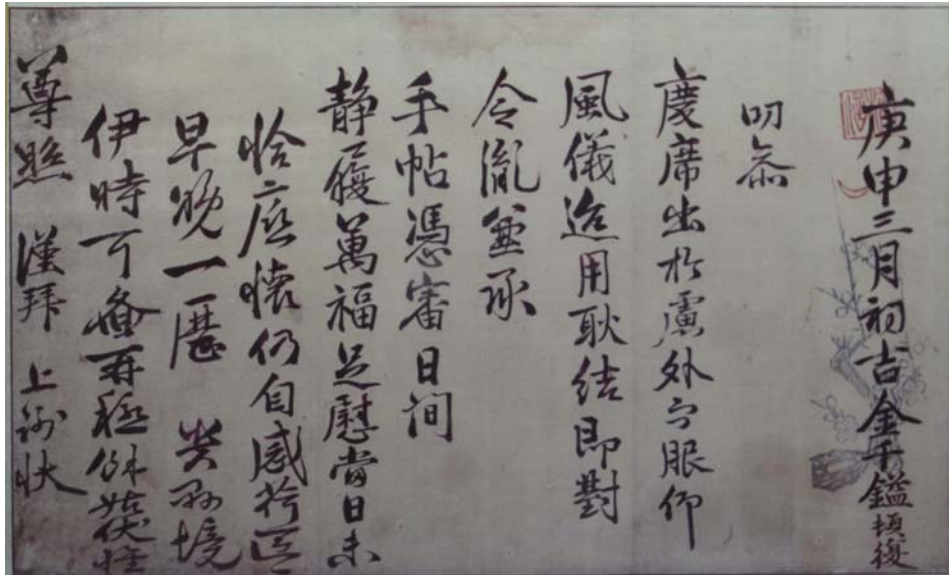


그림 32. 김천일 친필 서한

4. 旌烈祠碑 - 전라남도 기념물 제 48호, 1981년 10월 20일 지정

이 비는 임진왜란 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천일 의병장을 추모하여, 그의 서거34년 후인1626

년(인조4) 나주 유림들이 김천일의 사우(祠宇) 정렬사에 세운 것이다. 1985년 정렬사가 정화되면서 현 위치로 옮겼다. 비 제목은 「倡義使金公旌烈祠碑」라 전각되어 있고, 비문을 지은 사람은 신흥군 장유(張維)이며, 이숙(李瀟)이 썼고, 김상용이 전(篆)했다. 당시 관찰사 민성징(閔聖徵), 나주 목사 유여각(柳汝恪), 조홍립(曹弘立)이 세웠다. 비의 높이는 173cm, 폭 64cm, 두께 18cm이며 귀부와 이수를 갖추었다.

정렬사묘정비 번역문

만력 계사년(1593) 봄에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가 경성에 있는 왜적을 포위하고 전선을 압축해 들어가자 왜적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쳐 창의사 김공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쫓아 영남으로 내려가 진주에 진군하였다. 이 해 6월 갑진일에 왜적이 총병력을 투입해서 진주성을 포위한지 구일만에 함성되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죽으니 선조 임금이 크게 슬퍼하고 좌찬성의 증직을 내리고 위령제를 지내게 했다. 공이 죽은 지 14년 뒤에(1606) 호남 선비들이 나주에 공의 사당을 짓고 조정에 사액을 청하니 정렬사라 액을 내리었고 또 20년이 되는 천계 병인(1626)에 나주 사람들이 묘정비를 세우면서 공의 높은 충절을 기술했다 비문을 내게 청해왔다.

지난 임진년에 왜노의 많은 병력이 침입해 들어와 부산을 점령하고 동래를 함락시킨 후 줄곧 북상하니 모든 성과 진이 소문만 듣고도 무너지고 이일과 신립의 군사가 계속해서 패전하니 선조 대왕은 서쪽으로 몽진해서 떠나고 왜적은 경성을 함락하였다. 이때 공은 전부사로 관직을 그만두고 나주 전사에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피 울어 거의 혼절했다가 얼마 후에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울기만 하면 국난극복과 임금님의 피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집은 여러 대 벼슬한 가문인데 새끼처럼 구차하게 숨어서 피난할 수 없고 장차 의병을 일으키면서 전쟁터로 나아가야 하겠으나 강하고 약한 것이 너무나 다르니 주검이 있을 뿐이지만 죽지않으면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없다”하고 고경명, 박광옥, 최경희, 정심 등에게 격문을 보냈다. 의사 송제민, 양산숙, 양산용, 임환, 이광주, 서정후 등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어 날쌔 군사 수백인을 얻었다. 6월 3일에 모든 군사들과 피를 마셔 국난에 몸바칠 것을 맹세하고 북서쪽으로 행군해 떠났다. 공은 원래 병약했는데 이때 혼연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칼 차고 말에 오르니 유쾌한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하였다. 이때는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순찰사의 군사가 용인에서 패전한 뒤라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으므로 공이 의병들에게 타이르기를 “우리는 의병이라 앞으로 나아갈 뿐이요 후퇴해서는 안되겠으니 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하니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서 한 사람도 몰래 도망치는 자가 없었고 용인에서 패전하여 낙오된 삼도 관군이 조금씩 찾아와 충청도에 이르렀을때는 병력이 수천명에 달하였고 수원에 주둔하게 되자 군세가 매우 늘어났다. 공은 장사를 뽑아 유격전을 벌여 많은 승리를 얻었고 또 금령(용인)에 있던 왜적을 무찌른 다음 막로 양산숙 등을 의주 행재소에 보내서 장계를 올렸다. 이때 우리 관군 장수들을 의병활동을 방해하고 왜적들은 더욱 극성을 부리므로 공이 참모들과 상의해서 강화도에 들어가 주둔하니 도망쳐 숨어 있던 관리들이 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점점 찾아오고 모든 관군들도 모여들었다. 공이 여러 군사들과 약속을 정한 후에 강변에 진지를 설치하고 선함을 배치해서 지키고 싸울 준비를 하니 경기도내의 사민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단결해서 모두 의병이라 이름짓고 공에게 따랐다. 양산숙 등이 행재소로부터 돌아와 공에게 장예원판결사의 직첩과 창의호칭을 전해주었고

이때부터 행조(피난정부)의 명령이 양호 지방에 비로소 전달되었다. 왜적들이 경성을 점령해 있던지 오래되었으므로 피란갔던 도성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섞여 사는지라 공이 용감한 사람을 모집해서 몰래 도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역설과 이해로 설득시키니 성중 백성들이 모두 감동해서 공에게 협조하는 자 수만인이 되어 혹 왜적을 가만히 죽여서 그 머리를 군전에 드리는 자가 있고 스스로 빠져나가 공을 찾아 강화로 오는 자가 하루에 백명이 넘어 초막이 사방에 가득히 들어서 땅이 좁아 모두 수용하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다. 공이 때때로 병력을 출동시켜 한강연안에 있는 여러 곳의 왜적을 기습하니 왜적들이 줄지어 도망쳤다. 공이 여러 장수들과 큰 전선 사백여척을 타고 양화진까지 들어가 수길의 죄상을 써서 방문을 붙이고 도성 안에 있는 왜적에게 도전하였으니 성중에 있는 왜적들이 끝내 나오지 못했다. 다음해(1593) 정월 명나라 제독 이여송이 이미 평양을 수복하고 개성부에 진군해서 장차 경성의 적을 치려할 때 공이 도리, 지세와 적의 정세 등 모든 자료를 제독에게 제공하고 곧이어 선유봉(현. 양화대교 남쪽)에 진군하여 제독의 작전을 지원하면서 때때로 적군을 괴롭히니 왜적들이 날로 위축되어 도성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의 군막을 불사른 후에 경성을 비우고 영남으로 도망쳤다. 이에 공은 장군과 참모들을 데리고 도성으로 들어가서 불타버린 종묘 터에 나아가 재배 통곡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공에게 왜적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이 병중에 누워있다가 이 명령을 받고 벌떡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하였다. 이즈음 공의 부하는 여러 관군 장수들에게 빼앗기고 겨우 수백인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공이 이들을 거느리고 남으로 내려가니 왜적은 영남해안에 장기진지를 만들고 장차 서쪽으로 호남을 침범하려 하나 우리의 제군이 서로 협조가 안되어 왜적과 부딪치는 것을 회피할 뿐이었다. 공은 “호남은 나라의 근본이요 진주는 실로 호남의 울타리라”하고 진주를 지켜 호남을 보호할 것을 주청한 후 회보를 기다리지 못하고 진주에 들어가니 진주는 심히 황폐되어 성지와 무기 모두 쓸만한 것이 없었다.

공이 절도사 최경희, 황진, 복수장 고종후, 의병장 장윤 등과 이곳을 사수하기로 하였다. 며칠 후에 적의 유격대가 이미 성동에 이른지라 공이 정예기병을 내보내서 격퇴하였고 얼마 후에 적병의 대부대가 다가와 성을 둘러싸서 진지를 세웠다. 보병과 기병이 바로 성문으로 몰려오면 공이 장군수로 하여금 쏘게하니 적들이 더 접근해 오지 못하고 다시 대나무로써 방패를 만들고 그 사이에 총구멍을 내어놓고 성을 공격하거늘 우리 군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응전하였고 적이 또 토산을 쌓고 그 위에 망루를 지어 성중을 내려다보며 포탄을 비오듯이 쏘아대니 공 또한 성주에 토산을 쌓고 거기에서 화포를 쏘아 적의 산상에 있는 집을 쳐부수고 적장 몇 사람이 성 동쪽 산꼭대기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만히 총을 쏘아 두 번째 앉아있는 자를 맞추어 땅에 쓰러뜨렸다. 공이 원래 무릎이 아파서 자유롭게 걷지못하므로 견여를 타고 밤낮없이 성을 순시하면서 손수 죽을 들고 다니며 성을 지키는 군졸들에게 먹이니 군졸들이 감격해서 더욱 목숨을 바쳐 싸웠다. 이에 앞서 왜적의 두목 수길이 제로군이 모두 승리하지 못함을 분히 여겨 전령을 보내서 여러 장수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반드시 이름있는 도읍 하나를 무찔러 그들의 희생 댓가를 얻으라고 하는 고로 이번 싸움에서 성을 오래도록 뺏지못하고 적병 반이상이 죽어갔지만 후퇴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날 장마에 성 흙이 물렁거려 잘 무너지고 대장 황진과 장윤이 총탄에 맞아 잇달아 죽으니 성중 사기는 떨어지고 적병은 더욱 증원 병력을 투입해서 성을 급하게 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서로 앞 다투어 성 위로 기어 올라왔다. 이때 성중에는 화살과 탄환이 모두 떨어져 한갓 창과 몽둥이로 찌르고 칠 뿐이었다. 적병이 이 틈을 타 몰려드니 성은 드디어 함락되었고 공이 축석루에 있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이 모두 흩어지고 오직 공의 큰아들

상건과 막료 양산숙 등과 호위병 18인이 옆에 있으면서 “일이 다 틀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하고 울부짖었다. 공이 편안한 자세로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키는 날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하였으나 다만 너희들이 가련하다”하고 드디어 일어나 임금님이 있는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먼저 병기를 강물에 던진 후 아들 상건과 더불어 서로 안고 축석루 밑 남강에 몸을 던지니 장병들이 따라 죽은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적군 또한 힘이 다하여 감히 호남에 침범하지 못했다. 명나라 지휘사 오종도가 본래 공을 존경하여 오다가 공의 죽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하니 제문의 뜻이 심히 슬펐고 총독 형개 또한 “공의 충혼이 의혼이 능연히 있는 듯하다”하니 공의 충의가 그제서야 천하에 알려졌다. 군자가 이르되 “공이 대의를 부르짖어 국난타개에 뛰어든 것은 안노공에 뒤지지 아니하고 강도를 점령하고 행재소와 소식을 통하게 한 것은 설경선도 더 낫지 못할 것이요 외로운 성을 지키며 강대한 적군을 막다가 몸은 이미 죽었으나 적군 또한 힘이 약해져 호남을 온전하게 한 일은 장휴양과 똑같고 그 부자가 충과 효르르 위해서 함께 죽은 것은 또한 변성양과 같다”고 하였다.

공의 휘는 천일, 자는 사중, 선대에 광주에서 살다가 나주로 이사한지 이세가 되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일제 이항선생에게 글을 배우면서 뜻을 돈독히 하고 실천하는데 힘써 goded은 성현으로 법을 삼았다. 유일로 천거되어 내·외관직에 있으면서 충실히 근무하였고 대관이 되어선니 바른 말을 과감하게 하였다. 신체가 허약해서 옷을 이기지 못할 듯하였으나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용감함은 비록 맹분과 하육의 힘으로도 앗을 수 없었으니 그 충의는 선천적으로 타고 났고 또 학문으로 보강한 것이라서 전에 말한 “志士와 仁人은 몸을 죽여 仁을 이룬다”한 것을 공은 실로 가졌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가지로 공을 평가하는 것은 공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사당이 주치 월정봉하에 있으니 雜가 이미 공의 행적을 간추려 기술하고 초사 일장을 덧붙여 신을 송양하는 뜻을 나타내고 아울러 돌에 각하게 하니 그 詞에 이르기를

영산강 물가 월정봉 밑에
우람하다 공의 사당이여
향기로운 술 좋은 안주요
瑤勺에 따르고 芬芳을 올리는 도다

공이 성내면 머리털은 관에 대지르고
큰 칼을 휘두르면 위엄을 북돋우었네
우주에 가득히 위령이 나타나지마는
음산한 구름은 흠비 오는 듯하네
공의 영령이 오시기를 바라오니
바람이 휘장에 불고
매우 용맹하고 굳센 영혼이
혹 앞에 혹 곁에 있도다

안주 이미 마르고 술도 이미 익어
기쁨이 다하지 못하여 義憤이 복받쳐 슬퍼하노라
홀연히 가고 조금도 머물지 아니하니

天門이 열려 아름답구나

상제의 명을 받들어 南土를 보살피며
사나운 무리와 미친 것들을 없애소서
봄에 난조나고 가을 국화필 때
살찐 짐승 좋은 곡식으로 제수를 마련하겠노니
천추만세까지 공은 고향을 버리지 마옵소서

萬曆癸巳春 大明兵 及我師 進逼京城賊 賊南遁 昌義使金公 率師追賊 至嶺南 軍于 晋州 是歲六月 甲辰 賊悉衆圍晋 九日而城陷 與諸守將 皆死之 宣廟震悼 命贈左贊成 賜吊祭 越十四年 湖南人士 爲公 立祠於羅州 祠成 請額於朝 賜額旌烈 又二十年 爲天啓丙寅 羅之人 將豎 繫牲之石于 公之祠 走書于 維 請記 公勳烈而 鑿之石 先是 歲壬辰 倭奴 大舉入寇 屠釜山 陷東萊 長驅北上 諸城鎮望 風奔潰 李鑑 申砮之師 相繼敗沒 宣廟定計西幸 賊 遂陷京城 時 公以前府使 罷官 屏居于 羅之田舍 聞報號哭幾絕 既而 奮曰 吾徒哭 何爲 國有難 君父播越 吾世臣也 不可烏窳苟活 吾將舉義師 以赴 難 卽 強弱不敵 有死而已 不死無以報國 乃以書 馳告于 高敬命 朴光玉 崔慶會 鄭謙等 義士 宋濟 民 梁山龍 梁山濤 林權 李光宙 徐廷厚等 聞風赴集 得精銳數百 以六月三日 歃血誓衆 引兵西 公素 羸疾 至是 欣然語人曰 今日 吾帶劍跨馬 灑然 欲輕舉矣 會 三道 勤王之師 潰于龍仁 軍中氣懾 公 諭衆曰 我師義舉也 有進無退 欲去者任其去 衆皆感奮 無一人潛逃者 潰師 亦稍稍歸公 比至湖西 衆 可數千 遂進壁于水原 軍勢稍振 公募壯士 間出擊賊 頗有所獲 又襲破金嶺賊 乃遣幕下士 梁山濤等 奉疏問行 赴行在時 藩閩諸帥 多沮撓義兵者而 賊來益盛 公與將佐 謀 移兵入據江華 官吏之窳匿者 聞公至乃 稍稍出 諸官軍 亦多來會 公與諸軍 申約束 沿江樹柵 列船艦 爲守戰備 畿輔士民 所在 團結皆稱義兵 以應公 梁山濤等 廻自行在 得朝命令 拜公 掌隸院判決事 賜號倡義使 自是 行朝命令 始達于兩湖矣 賊據京城久 都民之避兵者 多還京城 與賊雜處 公 乃募死士 潛入城中 曉以逆順利害 城中民 皆感悅 送款于公者 數萬人 或潛殺賊 獻馘軍前 其自拔歸 公者 日以百數 庵廬遍滿四境 至 地窄無所容 公 時出兵 抄擊 治江諸屯賊 賊相繼遁 公乃 率諸將 蒙幢四百餘艘 沂江直進 鼓譟 耀 兵于楊花渡 揭榜罪狀秀吉 以挑城中賊 城中賊 終不敢動 明年正月 明提督李如松 既復平壤 進次開 城府 將討京城賊公 悉具 道里 地勢 及賊情形 以報提督 仍進軍仙遊峯 爲提督聲援 分兵間出撓賊 賊日以窮蹙 乃大殺都中民 燒廬舍棄城南走 公 率將佐入城 臨于宗廟故墟 再拜痛哭 會 朝廷 命公追 賊 公方臥病 聞命 蹶然而起曰 我得死所矣 時 公部曲 爲諸帥所侵奪 存者僅數百 公率而南 賊盤據 嶺海 將西窺湖南 諸軍多左次 以避其鋒 公謂 湖南國之根本而 晋州實爲湖南蔽 請守晋以捍湖南 不 待報而 進于州 州甚創殘 城池器械 一無可恃者 公與 節度使崔慶會 黃進 復讐將高從庫 義兵將張潤 等 約以死守 居數日 賊遊兵已至城東 公 出精銳 擊却之 無何 賊大至 環城列柵 步騎 直薄城門 公 令強弩射之 賊不得近 乃編竹木 爲櫓盾 中列砲穴 以攻城 我師 亦隨機應之 賊 又爲土山 山上起屋 以瞰城中 砲丸雨下 公亦於城中 對築土山

發火砲 擊碎 賊山上屋 賊將數人 會城東山頂 公覘知之 密發砲 中第二坐者 仆地 公素病脚不能行 肩輿行城 晝夜不小休 手糜 以哺守堞士 士皆感勵 益致死 初 倭酋秀吉 憤諸路賊 皆無功 使使責讓 諸將 必欲屠一名都 以取當 故 是役也 城久不下 賊死者過半而 猶不退 會久雨 城土瀝 善崩大將黃 進 張潤 中丸 先後死 城中奪氣 賊益添兵 急攻城 呼聲振天地 肉薄爭登 城中矢石俱盡 徒以 竹木刺 擊 賊乘勝闖入 城遂陷 公在轟石樓上 左右皆奔潰 惟長子象乾 及幕 下梁山濤等 褊裨親兵十八人 在

側不去 泣且號曰 事去矣 將奈何 公恬然曰 起事之日 吾已斷吾死矣 但 爾曹可憐耳遂起 北向再拜 先投兵器於水中 與子象乾 赴樓下潭水 將佐從死者 不可勝記 然 自是 賊亦力盡 不敢復軟湖南 皇朝 指揮使 吳宗道 素敬服公 聞公死 遣使 操文以酹之 其辭甚悲 摠督邢玠 亦稱 公 忠魂毅魂 凜然如在 公之忠義 於是乎 聞於天下矣 君子謂 公之 倡大義 赴國難 不讓於顏魯公 扼江都而 通行朝 卽薛景 仙 亡以踰也 死守孤城 遮遏勅虜 身既歿而 賊亦勦 使湖南得全 其事正類 張睢陽 若其父子 同死忠 孝 又與卞成陽 同符云公 諱千鎰 字士重 其先居光州 徒羅二世矣 少孤 從一齋李恒先生學 篤志力 行 動以聖人爲法 舉遺逸 歷內外任 皆稱職 爲臺官 骨鯁敢言 生貌寢退 若不勝衣者 至勇於爲義 雖 賁育 莫之奪也 其忠義 得之天性而 又輔以學文傳所謂 志士仁人 殺身以成仁者 公實有焉 以一節稱 公 非知公者也 祠在州治之西 月井峯下 維旣略記公之始末 係以楚辭一章 以寓 迎送神之意而 屬令 并刻之 其辭曰 榮之滸兮 月之崗 儼奕奕兮 公之堂 兮椒漿兮 蕙殼 陳瑤勺兮 薦芬芳 公惟怒兮 髮衝 冠 愆雄劍兮 翼威揚 橫天宇兮 揚威靈 雲暄暄兮 靈光 望公兮 公來靈 風肅兮 惟旁 孔武兮且毅 紛 或前兮 或旁殺既拂兮 酒既清 歡未極兮 慨慷 歎去兮不少留 天門關兮 皇皇 龔帝命兮 芘南土 斷疆 鯢兮 捐獠狂 春蘭兮秋菊 牢有暄兮虞有薌 千秋兮萬世 公無斃兮 公之鄉

天啓六年 嘉善大夫行大司諫 張維 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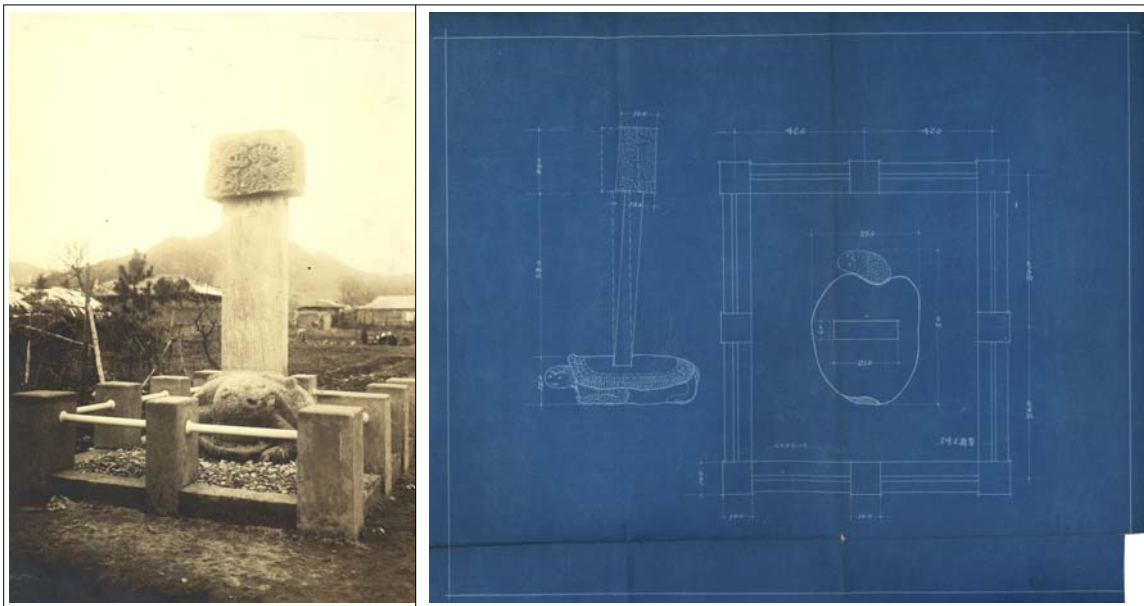


그림 33. 조선고적보존공사 내 정렬사비 기록물(1934~1936년)



그림 34. 남산 내 정렬사비(1979년)



그림 35. 정렬사비 현재 모습

5. 旌烈祠遺墟碑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김천일 선생을 주벽으로 한 진주 창렬사와 나주 정렬사 중 순절한 곳에 있던 진주 창렬사가 보존되고 정렬사가 훼손되었다. 그해 9월 나주 선비들이 이 유허비를 세웠다. 1961년 8월 유허비를 삼영동 51번지로 옮기고, 1964년 유허비가 있는 곳에 정렬사를 복설하였으나 1966년 남산으로 정렬사를 다시 옮겨 세우면서 유허비는 舊址에 두었다.

이후 2003년 4월 28일 지금의 정렬사 경내에 옮겨 세웠다. 앞면에는 정렬사에 봉안된 다섯 선생의 위패글씨를 그대로 새기고, 뒷면에는 선조 39년(1606) 정렬사를 건립하고 사액된 내용과 고종 8년(1871) 9월에 이 유허비를 세웠다는 내용을 기록하였다. 연대를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글씨는 유학 羅晟斗가 썼다. 전체적인 형태는 역사다리꼴에 가까우며 장방형 석재 비좌를 두었다. 크기는 높이 154cm, 너비 42~54cm, 두께 16~19cm이다.



그림 36. 정렬사 유허비

VI. 배향인물 관련기록

1. 金千鑑

표 3. 『조선왕조실록』 내 김천일 기사

출전		기사내용
선조실록 2권(1568)	선조 1년 5월 10일 기미	전라 감사가 유일을 천거하라는 전교에 따라 김천일·나사침을 아뢰다
	선조 1년 6월 9일 정해	헌납 최용과 유희춘이 김천일을 강력히 추천하다
선조실록 7권(1573)	선조 6년 6월 3일 신해	삼공 이하가 초야에 있는 조목·이지함·정인홍·최영경·김천일을 추천하다
	선조 6년 6월 5일 계축	홍훈·조정기·박점·김천일·신점·윤희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 6년 6월 5일 계축	대신이 천거한 김천일 등 5인에게 6품직을 내리다
	선조 6년 6월 22일 경오	최홍한·윤복·김천일·남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실록 12권(1578)	선조 11년 5월 2일 임자	성운·임훈·김천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 11년 5월 5일 을묘	헌부가 천거된 이지함·김천일을 외직에 제배한 이조의 처사를 따지다
선조실록 27권(1592)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이 일어난 일과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선조 25년 6월 29일 정사	비변사가 의병을 모아 싸운 정인홍·김면·박성·곽재우·김천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자고 청하다
	선조 25년 6월 29일 정사	비변사가 충청 병사 신익의 교체를 청하고, 김천일 등 의병장에게 관직을 내리다
선조실록 28권(1592)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고경명·김천일·박광옥·이호민·정운룡·박희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비변사의 회계에 따라 김천일을 창의사라고 호칭하다
	선조 25년 7월 23일 경진	비변사가 의병들의 집에는 급복하자고 청하다
	선조 25년 7월 24일 신사	창의사 김천일의 장계를 가져온 곽현 등을 인견하여 전라도 의병 상황을 묻다
선조실록 29권(1592)	선조 25년 8월 7일 갑오	윤두수를 인견하고 김천일의 의병,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 왜적의 동향을 논의하다
선조실록 30권(1592)	선조 25년 9월 15일 임신	왜적과의 전투 내용을 담은 요동에 보낸 자문

	선조 25년 9월 21일 무인	비변사가 의병들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며 각 장수의 절제를 반도록 하자고 청하다
선조실록 31권(1592)	선조 25년 10월 4일 경인	대신을 인견하고 중국군의 출정 상황, 함경도의 왜적 동향 등을 논의하다 - 의병의 飢寒
	선조 25년 10월 11일 정유	윤두수 등을 인견하고 경성의 인심, 동궁의 상황, 군량 조달 등을 논의하다 - 김천일 군대 파견
선조실록 32권(1592)	선조 25년 11월 1일 정사	비변사가 관군과 의병의 통솔에 서로 상의하여 도모하도록 하게 하자고 청하다
	선조 25년 11월 3일 기미	비변사가 경성 회복을 위해 군대의 전진 배치 등을 아뢰다
	선조 25년 11월 16일 임신	조현범이 소해 왕후의 위판을 가져왔다고 김천일이 보고하자 군직 제수를 명하다
선조실록 33권(1592)	선조 25년 12월 15일 신축	비변사가 김천일의 서장에 따라 한강을 건너는 일을 신중히 하게 하라고 청하다
선조실록 34권(1593)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축	비변사가 창의사 김천일이 수사 이빈에게 귀탁할 계획을 세웠다고 아뢰다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각도에 있는 병마의 숫자
	선조 26년 1월 22일 정축	창의사 김천일이 도성 공격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치계하다
	선조 26년 1월 22일 정축	김천일이 왜적이 강릉과 태능을 도굴하려다 실패했다고 보고하다
선조실록 35권(1593)	선조 26년 2월 24일 기유	신경희가 권율의 행주 산성 대첩을 보고하자 인견하고 전투 상황을 상세히 묻다
	선조 26년 2월 26일 신해	호조가 수령에게 잡곡 등을 나누어 주어 기민을 구제하게 하라고 청하다 - 김천일의 장계
선조실록 36권(1593)	선조 26년 3월 10일 을축	창의사 김천일이 정부의 은인을 올려 보내다
선조실록 37권(1593)	선조 26년 4월 15일 기해	비변사가 수령의 독촉으로 민폐가 심하다며 안집시킬 대책을 강구하라고 청하다 - 김천일의 장계
선조실록 38권(1593)	선조 26년 5월 2일 을묘	강원 감사와 김천일 등에게 영남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하라고 분부하다
	선조 26년 5월 4일 정사	영의정 최홍원 등과 선릉과 정릉의 처리, 왜적의 토벌 등을 논의하다
선조실록 39권(1593)	선조 26년 6월 6일 기축	경략에게 이자한 각진에서의 승첩과 노획 보고
선조실록 40권(1593)	선조 26년 7월 10일 임술	창의사 김천일이 진주성의 방어 준비 상황을 보고하다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서성이 진주성의 상황, 유정의 반응 등을 보고하다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황해 방어사 이시언이 정로위 인발의 말로 진주성 함락을 보고하다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6월 29일 함락된 진주성 싸움의 자세한 경과
	선조 26년 7월 21일 계유	정원이 진주성 전사자 포상, 유성룡 소환, 어용 보호 등의 일을 아뢰다
	선조 26년 7월 21일 계유	비변사가 정원의 계사에 대해 전사자 포증 연기 등의 의견을 밝히다
	선조 26년 7월 22일 갑술	관찰사 김늑이 진주성의 수성 절차, 사망자, 패전 후 상황을 보고하다
선조실록 41권(1593)	선조 26년 8월 4일 을유	비변사가 김천일·황진·이종인·장운 등의 포상을 청하다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비변사가 진주성에서 죽은 이들에게 홀전을 거행하는 일을 아뢰다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이조와 김천일 등에게 포증할 전례의 등급을 의논하다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김천일·황진·이종인 등 진주성에서 전사한 이들에게 관직을 추증하다
	선조 26년 8월 24일 을사	덕양령 이충운이 정릉의 일에 관해 공초하다
	선조 26년 8월 24일 을사	이준경이 정릉의 일에 관해 공초하다
선조실록 45권(1593)	선조 26년 윤11월 14일 갑오	임금이 남별궁에 나아가 유성룡을 인견하고 나라 일과 중국 사신에 관해 의논하다
선조실록 49권(1594)	선조 27년 3월 20일 무술	중국에서 식량과 군병을 지원받는 문제·흉년으로 백성이 식인하는 문제 등을 대신 등과 의논하다 - 김천일에 관한 史臣論
	선조 27년 3월 29일 정미	진주에서 전사한 자와 그 가족에게 시상할 것을 명하다
선조실록 53권(1594)	선조 27년 7월 16일 임진	대신과 비변사 당상, 양사, 옥당 등과 요동 도지휘사의 자문 내용을 논하다 - 김천일 처자 생활고
선조실록 121권(1600)	선조 33년 1월 29일 갑술	이항복·이산해와 남방 방비책·마정·군공·봉화법·도적 대책·관왕묘 건립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 진주에 사당 건립
선조실록 139권(1601)	선조 34년 7월 23일 무오	이항복, 김천일에 대해 논평하다
선조실록 160권(1603)	선조 36년 3월 14일 경오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인이 김천일의 표창을 건의하다

선조실록 171권(1604)	선조 37년 2월 20일 신축	별전에서 이덕형·이항복·윤승훈·유영경 등과 녹훈 문제를 토론하다 - 김천일 포상
선조실록 180권(1604)	선조 37년 10월 20일 병인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선조 37년 10월 29일 을해	충훈부가 전교에 따라 회맹에 참여한 직장에게 상을 준 전례를 아뢰다 - 의병에 관한 史臣論
선조실록 181권(1604)	선조 37년 11월 1일 정축	홍식이 공신 이덕형 등의 가자(加資)와 김천일 등 자손들의 서용 건을 아뢰니 윤허하다
선조수정실록 7권(1573)	선조 6년 5월 1일	이조에서 이지함·최영경·김천일 등을 천거하다
	선조 6년 5월 1일	김천일의 인품
선조수정실록 12권(1578)	선조 11년 4월 1일	지평 김천일이 병을 핑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선조수정실록 20권(1586)	선조 19년 10월 1일 임술	주학 제독관으로 제수된 조현이 봉당의 시비와 학정의 폐단을 논한 상소문 ①
선조수정실록 23권(1594)	선조 22년 11월 1일 을사	군자감 정 김천일이 치란의 방도에 대해 상소하다
선조수정실록 26권(1592)	선조 25년 6월 1일 기축	각도에서 의병이 일어나다
	선조 25년 6월 1일 기축	호남 의병장 김천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복상하다
	선조 25년 7월 1일 무오	김천일·최원이 수원에서 인천으로 진을 옮기다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상이 유생 양산숙을 공조 좌랑에 임명하고 호남·영남에 유시하는 교서 2통을 내리다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최원·김천일 등이 장단의 적을 공격했으나 패배하다
	선조 25년 11월 1일 정사	전내에 묻었던 문소전의 위판을 강화에 봉안하다
선조수정실록 27권(1593)	선조 26년 2월 1일 병술	김천일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공격, 기세가 꺾인 적을 치고자 하였으나 제독이 따르지 않다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왜장이 진주를 공격하니, 관군과 의병에게 방비하게 하다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왜적이 진주를 함락시키자 김천일·최경희 등이 전사하다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창의사 김천일의 즐기
인조실록 14권(1626)	인조 4년 9월 12일 신사	김상룡이 고경명·김천일에 대한 사제 등을 논의하다

	인조 4년 9월 15일 갑신	관원을 보내 고경명·김천일을 사제하고, 김천일의 자손을 녹용하다
인조실록 44권(1643)	인조 21년 4월 13일 병자	김천일 시호 추증 등에 대해 논의하다
현종실록 22권(1674)	현종 15년 7월 4일 병인	김천일 시호 추증 등에 대해 논의하다
현종개수실록 28권(1674)	현종 15년 7월 5일 정묘	김천일 시호 추증 등에 대해 논의하다
숙종실록 12권(1681)	숙종 7년 9월 25일 갑술	성수침·송준길·김천일의 시호 개정, 이이 등의 문묘 종사, 원로 유신의 초빙, 녹봉의 감액 등에 관한 논의
	숙종 7년 12월 17일 병신	최명길·김천일 등의 시호를 내리다
숙종실록 17권(1686)	숙종 12년 윤4월 14일 정묘	임진 왜란 때에 순절한 김천일 등의 제사를 다시 거행하기를 청하다
숙종실록 27권(1694)	숙종 20년 8월 23일 무오	조명근이 김인후·고경명·김천일 등을 같이 향사한 서원에 사액하기를 청하다
숙종실록 50권(1711)	숙종 37년 3월 3일 임진	김천일 등의 자손 수록 등에 대해 논하다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1568) 5월 10일 기미

전라 감사의 서장(書狀)에

"遺逸의 선비를 천거하라는 有旨에 따라 각 고을을 조사하니, 나주목사 韓輿의 첩정에 '... 金千鑑은 기질이 온화하고 순수하며 학문에도 힘썼다. 일찍 부모를 여의어 외조모에게서 자랐는데 슬하를 떠나지 않고 친어미 섬기듯 하였으며 돌아간 다음에는 心喪 3년을 치루면서 죽으로 연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마다 공경하고 심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

선조실록 2권 선조 1년(1568) 6월 9일 정해

헌납 최용이 아뢰기를,

"호남에 묻혀 있는 선비 金千鑑은 학식과 품행이 매우 탁월한데도 관직에 서용되는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欠事입니다." 하자, 유희춘이 앞으로 나와 이르기를,

"김천일이 뜻을 독실히 갖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을 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겨우 32세로서 한창 학문을 해야 할 때이고 또한 질병이 많아 헛된 명성으로 벼슬길에 나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 마치 漆彫開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우선 그대로 두고 배양시켜 대성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급작스레 소소한 관직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1573) 6월 3일 신해

三公과 吏曹가 같이 의논하여 이조의 郎廳이 아뢰기를,

"巖穴에 은둔한 선비는 신들이 아직 들은 바가 없으므로 감히 論薦할 수 없으나, 우선 지금 학행

이 두드러지게 알려진 전 참봉 趙穆, 학생 李之菡, 생원 鄭仁弘, 학생 崔永慶·金千鎰 5인을 抄啓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례에 따라 참봉의 말직을 준다면 각별히 거두어 쓰는 뜻에 맞지 않을 듯하니, 參上의 상당한 벼슬을 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1573) 6월 5일 계축

… 洪渾을 正言으로, 趙廷機를 校理로, 朴漸을 副修撰으로, 金千鎰을 軍器主簿로, 申黈을 修撰으로, 尹希吉을 헌납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1573) 6월 5일 계축

대신들이 천거한 善士 5인 중에서 喪中에 있는 趙穆을 제외한 李之菡·鄭仁弘·崔永慶·金千鎰은 다 6품의 벼슬을 받았다.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1573) 6월 22일 경오

이날 都目政에, 崔弘僩을 右副承旨로, 尹復을 左副承旨로, 金千鎰을 龍安縣監으로, 南瑄을 濟州判官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1578) 5월 2일 임자

成運을 司宰正에, 林薰을 掌樂正에, 金千鎰을 任實縣監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1578) 5월 5일 을묘

사헌부가 아뢰기를,

"林下의 어진 사람을 버려둔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付職시킬 뜻이 없다가 公議가 시끄럽자 그 제야 비로소 제배하였으니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學行으로 부름을 받은 신하를 즉시 외관에 보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으니 이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추고하소서. 아산 현감 李之菡과 임실 현감 김천일을 체직하여 상당한 직에 제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인데 백성 다스리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윤택하지 않는다."하였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1592) 6월 29일 정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 나주에 거주하는 府使 金千鎰도 역시 의병 7백여 명을 모아 곧장 경성을 수복하기 위해 이달 13일 천안에 당도하였다고 하니, 이 사람에게도 급히 관직을 제수하여 권장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1592) 6월 29일 정사

김천일을 掌樂院正으로, 朴愷을 公造정랑으로, 尹景麟을 가선대부 청주목사로, 정인홍을 진주목사로, 金億秋를 통정대부 안주목사로, 尹安性을 肅川府使로, 金敬老를 김해부사로, 金沔을 함천군수로, 鄭訥을 草溪郡守로, 곽재우를 幽谷察訪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1592)년 7월 19일 병자

吏批가 아뢰기를,

"金千鑑·高敬命·鄭雲龍·朴希壽·郭賢·梁山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는데 대해서는 下教를 받았고 이미 承傳을 받들었습니다. 즉시 鄭元龍의 상소를 상고하니, 생원 柳思敬과 진사 朴宗挺은 정운룡과 連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及第 朴光玉은 고경명과 함께 의병을 招募하여 그대로 본도에 머물고 있으며, 또 앞으로 鄉兵을 규합하려 한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세 사람은 다른 예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1592) 7월 19일 병자

고경명을 통정대부 공조참의 知製敎에, 김천일을 통정대부 掌隸院判決事에, 박광옥을 承文院判校에, 李好閔을 홍문관응교에, 정운룡을 掌苑署掌苑에, 박희수를 漢城府參軍에, 文愼幾를 司贍寺參奉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1592) 7월 20일 정축

전교하기를, "김천일의 칭호에 대한 일을 의계(議啓)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이런 급난한 때를 당하여 진실로 칭호가 없으면 체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천일은 倡義使로 칭호함이 타당합니다. 공조 참의 고경명은 이미 김천일과 함께 동시에 창의하였으니, 使臣이라는 칭호에는 다른 점이 없을 듯합니다. 招討使로 칭호하고 節制 등의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예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1593) 7월 10일 임술

倡義使 判決事 金千鑑이 치계하였다.

"신이 이달 14일에 진주성에 도착하였는데, 목사 徐禮元이 중국군 支待하는 일로 나갔다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변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5일에 전라병사 宣居怡, 助防將 李繼鄭, 충청병사 黃進, 조방장 鄭名世, 경기조방장 洪季男, 경상우병사 崔慶會, 復讐義將 高從厚들이 잇따라 달려왔는데, 다음날 전라순찰사 권율이 전라병사와 各 項의 將領 등에게 전령하여 모두 나아오게 하므로 諸將이 일시에 달려가니 성중이 흥흥하여 이 때문에 일이 누설되었습니다. 신이 최경회·황진 등과 더불어 겨우 수합하였으나 3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성안은 넓은데 이처럼 주린 군사로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 지극히 우려됩니다. 대개 진주는 바로 전라도의 保障인데 순찰사 이하가 방어를 철수하여 山陰으로 옮겨 갔으니 더욱 우려됩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1593) 7월 16일 무진

황해도 방어사 李時言이 치계하였다.

"신들이 진주를 外援할 목적으로 三嘉 古縣에서 진군하였는데, 척후장인 安仁武·金億麟 등이 와서 고하기를 '발가벗은 남자가 수풀 사이에서 걸어 나오기에 잡아서 물어보았더니 「나는 본래 충청도 보령에 사는 定虜衛 印潑이다. 충청 병사의 군관으로 6월 23일 함안에서 진주로 옮겨 왔는데, 왜적이 이달 22일 아침 나절에 의령에서부터 무수히 쳐들어와서 本州의 동문 밖 산 위에

주둔하여 많은 포를 일제히 쏘았다. 적세를 탐지하려고 와서 함께 성 안에 있던 중국 군사 20여 명은 적의 형세가 매우 성한 것을 보고는 즉시 성에서 나갔다. 우리의 제장으로서는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희, 충청병사 황진, 본주판관 성수경, 김해부사 이종인, 거제현령 김준민, 사천현감 장운, 태안군수 윤구수, 결성현감 김응건, 당진현감 송제, 남포현감 이예수, 황간현감 박몽열, 보령현감 이의정, 본주 목사 서예원 등이 성 안에 留陣하고 있었는데 이달 20일 오후에 왜적 2백여 명이 동쪽의 성 밑으로 진격해 왔다. 얼마 후에 접전하였는데 여러 명이 화살에 맞아 퇴각하였다. 22일부터 28일까지 왜적이 사면을 포위하였는데, 그 넓이가 5리 가량이나 되었으며 나머지 군사를 1일정이나 2일정, 혹은 4일정 되는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인근 각 고을의 요해처가 될 만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가득히 모여 매복하여 아군의 사이를 격리시켜 외원을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 대나무로 높은 사다리를 많이 만들고 그 사다리마다 진흙을 발라 가지고 성 안을 압박하고 그 위에서 포를 쏘아대어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므로 성 안에서 탄환을 맞아 죽은 자가 하루에 1백여 명씩이나 되었다. 병사 황진도 28일 이마에 탄환을 맞고 죽었다. 29일 오후에 왜적의 모든 진이 성 밑으로 가까이 와서 일시에 성을 함락하니, 성 안에서는 혈전을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으며, 성 안의 장사와 대소 남녀들의 생사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나는 그때 신복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힘껏 싸웠으나 화살이 다 떨어졌으므로 성 밖으로 뛰어내려 시체 속에 묻혀 있다가 밤을 틈타서 몰래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험한 길을 걸어가 순찰사에게 진주성이 함락된 연유를 고하러는 참이었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1593) 7월 16일 무진

…29일에 서예원으로 황진을 대신하여 巡城將을 삼았는데, 예원은 겁을 먹고 전립도 벗은 채 말을 타고서 눈물을 흘리며 순행하니, 병사 최경희가 예원이 군정을 경동시킨다고 하여 참하려 하다가 그만두고서 장운으로 대신 순성장을 삼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장운도 탄환에 맞아 죽었다. 未時에 비로 인하여 동문쪽의 성이 무너져서 적이 개미떼처럼 붙어 올라오자 종인이 수하의 병사들과 더불어 궁시는 놓아두고 창과 칼을 들고서 상대해 육박전을 하여 처죽인 적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니 적이 물러갔다. 또 서북문에서 적이 고함을 치며 돌진해 오자 창의사의 군사가 켈산 하여 모두 촉석루로 모였다. 적이 성으로 올라와서 칼을 휘두르며 날뛰자 서예원이 먼저 달아나니 제군이 일시에 켈산되고 종인도 탄환을 맞아 죽었다. 좌우가 김천일을 부축해 일으켜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서 좌우를 돌아보며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마침내 아들 김상건과 더불어 서로 끌어안고서 강으로 몸을 던져 죽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1593) 7월 21일 계유

…그 중에 金千鎰·崔慶會는 당초에 조정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분연히 의병을 일으켰고, 高從厚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의 원수를 무찌르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몸을 희생하였으니 모두 더욱 특별히 우대하는 포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1593) 7월 21일 계유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정원의 계사를 보니 모두가 긴급한 시무였습니다. 진주의 일이 수양의 포위와 매우 흡사합니다. 힘을 다해 고수하였지만 외원이 이르지 않아 끝내 성이 함몰되었으니 그 참혹하고 원통한

상황을 말하자니 기가 막힙니다. 특별히 따뜻한 성지를 내리시어 충의의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한 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 권장되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김천일·최경회·고종후는 세운 공이 더욱 두드러지게 우뚝하니 등급을 높여 포증하여 그 충절을 표장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1593) 8월 4일 을유

비변사가 아뢰기를,

“진주성이 함락될 때 싸우다가 죽은 문무 제장들에게 서둘러 포상의 전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온 성이 다 도륙되어 한 사람도 살아난 자가 없고 우리 나라의 제군도 감히 가까이 간 자가 없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고서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진실된 보고를 기다리고자 하여 감히 계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에 전후의 장계를 상고하고 계문을 참고해 보건대, 판결사 김천일은 몸소 성을 순행하면서 눈물로 사졸들을 위무하였고 성이 함락될 때 좌우가 부축해 일으켜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은 채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니 너희들이나 피하라.’ 하고서 최경회와 더불어 축석루 위서 통곡을 하고는 이내 스스로 벼랑 밑으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하였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1593) 8월 7일 무자

… 이조가 회계하기를, “김천일은 적병이 쳐들어온 초기에 의병을 일으켰으니, 우리나라의 인심이 되돌아온 것은 다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전공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충의는 다른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므로 특별히 1품에 추증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1593) 8월 7일 무자

판결사 김천일을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로, 수 충청 병마절도사 황진을 의정부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로, 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경회를 이조판서 겸 대제학지경연 성균관춘추관사로, 김해부사 이종인을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거제현령 김준민을 형조판서 겸 지의금부사로, 훈원원정 겸 사천현감 장운을 형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추증하였다.

선조실록 49권 선조 27년(1594) 3월 20일 무술

…사신은 논한다. 신하를 알아보는 데는 임금만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상이 김천일을 논한 것은 김천일의 사람됨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천일은 도량이 편협하고 재략이 淺短하니 어떻게 난을 평정하고 시대를 구제할 재목이었겠는가. 그러나 그 마음만은 진실로 귀하게 여길 만하다. 처음 난이 일어났을 때 한산한 신분으로 전라도 나주촌에 있었는데 적병이 경성에 들어가고 거가가 서쪽으로 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강개하여 향정에서 모집한 의사 겨우 3백여 명을 이끌고 경성으로 곧바로 향하였다. 그때 전라 순찰사 이광이 용인 지방에서 패하여 수만 명의 군사가 일시에 쫓겨 도망을 하였는데, 김천일의 외로운 군사들은 저들의 패배를 보고도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고 마치 낙토로 달려가듯 하였으니 그가 사졸의 마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강화를 보존하여 지킬 때에는 3~4천의 군사를 모집하여 전진의 적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불리하자 경강 근처에 복병을 설치하여 전후에 참격한 것이 거의 4백여 급이나 되었고, 또 서울에서 적에게 붙었던 백성들을 유인해 내어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강화가 보존되어 위로는 행조와 통하고 아래로는 양호와 연결될 수 있었으니 그 공로 역시 작지 않았다. 그러나 기운이 매우 잔약하고 몸마져 병이 많은 데다 오래도록 군중에 있으면서 근심과 피로로 병이 생겨 낮이면 미음을 마시고 밤이면 앉아서 졸았지만 한덩어리 성심만은 일찍이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었고, 사람을 만나 행조의 어려운 형편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소년 시절부터 정철과 벗이 되었고 정철의 아들은 또한 그의 여서가 되었으므로 교분이 특별히 두터웠으나 사실은 일마다 모순이 있었다. 정철이 체찰사가 되어 행조에서 강화부를 들렀을 때에 김천일이 적을 토벌할 계획을 자문받으려고 방문했는데 정철은 때마침 찾아온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자 김천일이 목을 놓아 통곡하면서 ‘지금 어느 때인데 감히 이렇게 하는가!’ 하니 정철이 불쾌히 여기며 그만두었는데, 항상 남들과 말할 때 반드시 김천일을 조롱하여 ‘조선의 몽기로 내가 알고 있는 이가 일곱 명인데 김천일이 바로 첫번째이다.’고 하였다. 왜적을 영남에서 추격할 때에 미쳐, 심유경이 우리나라 장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왜적이 진일 전주에서 불리했던 것에 분개하여 반드시 함락시키려고 하니 여러 장수는 우선 성을 비우고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권을 및 고언백 등은 모두 멀리 피하였으나 김천일은 경상병사 최경희, 충청병사 황진, 복수장 고종후 등 여러 장수와 함께 뜻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 향불을 피워 군중과 죽음으로 지킬 것을 맹서하고는 8일 밤 9일 낮을 쉬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늘에서 비가 연일 퍼부어 성대가 무너져 내리고, 효견한 장수로서 온 군사가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던 황진이 또 탄환을 맞아 죽었으며, 적병이 더욱 급하게 성을 타고 올라오니 혈전을 벌인 지 9일째 되는 날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김천일이 군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죽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니 반드시 한 놈의 적이라도 죽이고 죽어라.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싸우다 죽는 것은 영광스럽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욕이 된다. 우리들이 지금에야 죽는 것도 너무 늦은 것이다. 다만 나는 의리상 흉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고 마침내 그의 아들 상건과 함께 축석루 아래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당시에 그를 애도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의로운 장수가 되었고 죽어서는 충신이 되었으니 무슨 유감이 있으랴.’ 하였는데 행조에서는 창의사라는 호칭을 하사하였다. 김천일은 평생동안 충의의 마음을 지켜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으니 어려운 일이라고 할 만하다…

선조실록 139권 선조 34년(1601) 7월 23일 무오

고경명 등의 사위 건립을 허락하였다. 처음에는 호남 사람 이지효 등이 상소하기를 ‘고경명과 김천일은 공이 똑같은데도 포증하는 은전이 김천일에게는 내리지 않았으니, 증직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고, 또 사재를 모아 묘우를 세워 숭경하는 뜻을 보이겠다고 청하였다. 이에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이항복이 아뢰기를,

"임진년 초에 列郡이 바람에 쓸리듯이 무너지자 김천일과 고경명 등이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켜 죽기를 맹세하고 근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공로와 마음에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만, 형적에 있어서는 선후고하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고경명은 금산전투에서 군사가 궤멸하여 죽었는데, 이 때문에 신은 말하기를 ‘그 공은 의병을 일으킨 것이요, 그 형적은 군사가 패하여 왕사에 죽은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천일은 그 형적이 남보다 몇 배나 더 합니다. 진주가 위급해졌을 때 김천일이 의병장으로 마침 그 도에 있었는데, 당시 上將이 전령한 일이 없는데도 유독 3백 명의 무리를 이끌고 먼저 입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차례로 입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첫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거이·홍계남이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물러나 내면에서 지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을 때 김천일이 반대하여 중지시켰으니, 이것이 둘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이 함락되던 날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김천일을 부축해 일으켜 잠시 피하기를 권하였으나 천일은 일어나지 않고 꼳꼳하게 앉은 채 그의 아들 김상건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마땅히 이곳에서 죽겠다.' 하고 그 말대로 하였으니, 이것이 셋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하나하나 반드시 믿을 수는 없지만 장계에 나타난 말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공과 마음은 고경명과 같지만, 그 형적을 논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열사들이 숭상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고 국가에서 포상하는 것은 그의 형적이니 차등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묘를 세우는 것이야 사력에서 나온 것인데 국가에서 비록 창립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옳다고 여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람들의 충렬이 지극한데, 국가에서 보답할 길이 없다. 다만 당초 職秩을 추증한 것은 조정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유사가 참작해서 한 것이니 이번 상소로 인하여 고칠 필요는 없다. 사우 문제는 이미 사력에서 나와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니, 이는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우리 나라는 충신과 열사에 대한 보답이 매우 박하다. 김천일 등의 공이 이와 같은데도 한 번 직질을 추증한 뒤에는 한 번도 실질적인 혜택이 자손에게 미친 적이 없었다. 사우를 건립하는 의논도 겨우 남쪽 사람들의 사론에서 나왔으니, 장차 어떻게 인신에게 충의를 숭상하라고 권장하겠는가.

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1603) 3월 14일 경오

전라 감사 한준겸이 아뢰었다. "...나주 생원 강위호 등 1백여 인이 와서 정소하를 '난 후 의병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고경명 같은 이는 광주에 사당을 세워 주었고 조헌 같은 이는 금산에 비석을 세워 주었는데, 김천일만은 아직 표창해 주는 은전이 없어서 충신의 마을로 하여금 문혀서 빛이 없게 만들어 수레타고 가는 사람이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도 존경할 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의 사론이 지금까지 답답해 하니 또한 조정에 알려져 충신의 공적을 표창해 주고 그 문려에 정표함으로써 후세에 권장되도록 해달라.' 하였으니, 모두 해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1604) 10월 20일 병인

전라감사 장만이 아뢰기를,

"도내의 나주 생원 강위호 등 58인이 정서하였는데, 그 대략에 '창의사 김천일은 호남의 석유로 지난 임진 왜란 때 왕성이 함락되어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적세가 맹렬하여 남북이 횡분되었으므로 모두들 「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 할 적에 분연히 일어나 동지를 규합하여 제일 먼저 대의를 창도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전으로 달려가 강회를 차단하고 행궁으로 가는 길을 뚫었으며 영남과 호남을 제어하였다. 남쪽으로 내려가 적을 추격할 적에는 외로운 성채를 힘을 다하여 지키고 상처를 싸매고서 독전하였으나 화살이 떨어지고 군량이 바닥이 나서 죽고 말았으니, 그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호위한 공과 살신성인한 절개는 옛사람에 견주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지금 의장 고경명의 사당을 광주에 세웠고, 조헌의 비석은 금산에 세웠는데, 유독 김천일에 대해서만이 아직까지 아름답게 여긴다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실을 조정에 전문하여 그의 충성스런 공적을 포장하고 그의 문려를 정표하여 충신과 효자

의 권면이 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김천일은 일개 서생으로 비분강개하여 한 고장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인심이 모두 무너져
 흩어질 때에 거의의 소식이 들리자 민정이 매일 데가 있게 되었고, 향곡의 난적들이 스스로 금급
 되어 감히 방자한 짓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의 파급 효과는 이미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도로 들어가 응거하고 있으면서 서북쪽에 명령을 통하게 하였고, 힘껏 진양을 지켜 동남
 쪽의 보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의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
 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한 여러 장수 가운데 뛰어난 자로 고경명이 수립한 공보다도 더욱
 빛나게 드러나는 자입니다. 사당을 세우자는 것이 선비들에게서 나온 일이지는 하지만 편액을 하
 사하는 은전은 유명이 함께 빛나는 일입니다. 호남의 선비들이 천일을 위하여 강개한 마음을 일
 으킨 것도 타고난 덕을 좋아하는 양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권면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
 다. 우선 문려에 정표하여 권면하는 풍교가 되게 함이 함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계하하기를,
 "국사에 죽은 신하를 위해 정문한 전례는 없다. 다른 사람 또한 본받게 될 것이니 다시 자세히
 살펴 대신들과 의논해서 참작, 시행토록 하라."하였다. 대신에게 의논한 바 완평부원군 이원익은
 의논드리기를,
 "김천일은 諸道에서 제일 먼저 창의하여 그의 강직한 지조가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드러나 있습
 니다. 따라서 정표하는 일을 속히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영중추부사 이덕형은 의논드
 리기를,
 "해조의 공사대로 시행하소서."하고, 오성부원군 이항복은 의논드리기를,
 "김천일이 창의하여 사지로 나아간 것은 태양처럼 찬란하여 다시 의논할 것도 없는바, 인격과 명
 망이 으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정표하는 일은 마땅히 성상의 결단에서 나와야 합니다."하
 고, 영의정 윤승훈, 좌의정 유영경, 우의정 기자현은 의논드리기를,
 "김천일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창의하였으니, 제도의 수창입니다. 마땅
 히 먼저 포상하는 은전을 시행하여 인심을 용동시키는 거조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조에서
 지금 이에 대해 마련하는 중에 있고 천일도 그 가운데 들어 있으니, 그 공사가 귀일되기를 기다
 려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거행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하니, 삼공의 의논을 따르라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할 적에 팔로가 무너지고 인심이 흩어져 곤수와 읍재들은
 거개가 자신과 처자식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에 숨어 구명도생하기에 바빴는데도 천일은 일개 서
 생으로서 자신을 잊고 창의하여 항병을 규합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강도에서 명령을 통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진주성을 보장으로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군졸이 다하고 화살이 떨어져 전사하
 였으나 후회하지 않았으니, 구구한 충의야말로 숭상할 만하다. 저 적 때문에 임금을 버리고 몸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를 등진 무리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아!

선조수정실록 7권 선조 6년(1573) 5월 1일 경진

김천일은 이항의 제자인데, 방정하고 근신했으며 행의가 완비되었다. 나주 출신으로 언양인이다.

선조수정실록 23권 선조 22년(1589) 11월 1일 을사

軍資監正 金千鎰이 상소하였다.

"《書經》 五子之歌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는데
 이는 만고에 밝게 계시한 교훈입니다. 신이 요즘 역적 괴수의 흉모 비계를 살펴보니, 위를 범하

는 죄악을 자행하고자 하여 먼저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 것을 엿보고 음모를 교묘히 내어 전하께 백성의 원망을 전가시키려고 오래도록 못하는 것이 없었으나 조정 신하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전하께서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대개 6~7년 동안 스스로 지식이 많은 것을 뽐내어 사대부를 속이고 당로의 무리와 체결하여, 몸은 외방에 있으나 멀리서 조정의 권세를 잡고 조정에서 계획하는 일을 참여해 의논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비변사의 공론을 빙자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을 이루려 하였고 권세 잡은 정승을 사주하여 해마다 서남 지방에 사신을 보내게 하였고 곤궁한 백성을 침학하여 재산을 탕복시켰으므로 서남 지방의 근본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변방을 실하게 한다고 가탁하여 6도에 살고 있는 사변되었던 백성들을 일시에 모두 추쇄하기 위하여 1백여 년 허접한 불명확한 사람을 침독하여 잡아 가두고 엄한 형벌을 성화보다 더 급박하게 가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참혹한 화와 연좌의 죄를 눈으로 직접 보고는 앞을 다투어 도망하여 온 마을이 텅 빈 곳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난을 겪으며 유리하는 즈음에 임금을 원망하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침으로써 6도의 방본이 여지없이 좌절되었으니 이것은 역적이 원망을 생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술책이 들어맞은 결과인 것입니다. 다행히 하늘에 계신 조종의 명령이 명명한 속에서 말없이 도와주심을 힘입어 이미 원흉을 제거하고 이어 요승을 주륙하였으며 그 밖의 도당들도 차례로 주륙하게 되었으니, 저 살 곳을 잃은 불쌍한 백성 가운데 혹 유혹에 빠진 자가 있더라도 무지한 무리를 어찌 다 주벌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인애한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고 ‘위협에 의해 마지못해 따른 사람은 지죄하지 말라’는 의의를 취하여 용서함으로써 위구스런 의심을 제거하고 이산된 마음을 수습하는 것이 곧 불을 끄듯이 급함을 구제하는 오늘날의 계책입니다.

신이 시골에 있을 때에 기황이 든 백성이 조석 사이에 곧 흩어지게 된 것을 보았고, 또 적변으로 달마다 소동이 있었는데, 적을 체포하여 호송하는 군사가 굶주려 쓰러지면서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소리가 도로에 전파되어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번 진소하는 내용에 이미 대략을 진달하였습니다. 그 뒤, 잇따라 들건대 남쪽 지방 백성의 소요가 다시 전일보다 더 심하고 연좌되어 갇힌 사람이 열읍의 감옥에 가득 차고 체포하는 군졸이 원근의 도로에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추운 때를 당하여 사뭇 지식될 기약이 없으니, 옥중에는 얼어죽는 원망이 응당 많을 것이고 노상에는 반드시 굶어죽는 자가 깔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흩어져 무너지는 근심이 곧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역적이 나라에 재앙을 끼치려 했던 계책은 오히려 이미 죽은 뒤에도 행해지고 있으니 더욱 한심합니다. 어찌 근본을 튼튼히 하는 정치를 속히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생각건대 근일 조야가 패란스러운 해독은 마치 병든 사람이 독한 약제를 거둬 먹고 난 뒤 화평한 약제를 써서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저 적당의 초사가 사대부에게 언급되어 무고당하는 원통함이 있을까 염려되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은 논변으로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어지신 덕을 온전히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 사적으로 혼암함에 가리워져 마침내는 그의 술책에 떨어져서 망령되어 서로 추장함으로써 역적으로 하여금 세력을 의지하여 위엄을 펼쳐 반역의 화를 선동질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역모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죄를 추궁하여 극형에 처하기에 이룬다면 아마도 실정을 추궁하는 법전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여립과 원수가 되어 이 사실을 온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자도 있으니 더욱 초사의 거짓을 증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원래 대단한 연좌가 아닌데도 말이 험문하는 무리에게 간련됨으로 인하여 오래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자도 많으니, 얼어 죽는

원통함이 없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인애를 베풀어 자세히 살피소서. 신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밖으로는 나라의 근본이 이미 손상되었고 안으로는 심복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급급히 수습하여 진정하는 방도가 없으면 치란(治亂)의 기틀이 오늘날에 당장 판정되어 사태가 매우 급박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감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1592) 6월 1일 기축

호남 의병장 김천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삼도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畿內가 완전히 살륙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붙좃아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니, 상이 장례원 판결사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라는 칭호를 내렸다. 천일의 군사가 수원에 이르러 독산고성에 웅거하여 적에게 붙좃은 간민을 찾아내어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내의 사민이 많았다.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6월 1일 갑신

왜적이 진주를 함락시켰다. 김천일·최경희 등이 전사하였다. 당시 진주에서 급변을 보고하니, 이여송이 경성에서 列屯의 諸將인 劉縱·吳惟忠·駱尙志 등에게 전령하여 군사를 전진시켜 구원하게 하였으나, 제장들은 적의 형세가 막강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적은 여러 둔병을 다 동원하여 30만이라 호칭하며 곧장 진주로 향했는데, 의령 등 여러 고을을 분탕하고 노략질하니 화염이 충천하였다. 권율은 李蕓과 함께 함양으로 물러가 주둔했다가 이어 남원으로 들어가고, 광재우는 정진을 버리고 후퇴하였다. 이달 21일에 적병이 비로소 진성을 범하면서 곁에 있는 고을에 군사를 나눠 배치하여 밖의 원조를 막는 한편 본성을 백 겹으로 에워싸고 주둔하니, 사면 수백 리가 그들 군사로 가득하였다. 홍계남 등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함성이 땅을 진동하였으며, 포위 속에 있는 진주성이 마치 큰 바다에 뜬 외로운 배와 같았으므로 두려워서 감히 진격하지 못하였다. 이달 22일에 적이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성 안에서 사격하여 1진을 물리쳤으나 초혼에 다시 쳐들어와 한참 동안 크게 싸웠다. 밤새도록 전진 후퇴를 되풀이하다가 5경이 되어서야 그쳤다. 이에 앞서 성안에서는 성 남쪽에 있는 축석루는 강물과 잇닿아 있는 험절한 곳이니만큼 적이 필시 범하지 못할 것이고, 서쪽과 북쪽은 참호를 파서 물을 채웠으니, 동쪽 한 곳으로만 적의 공격을 받게 되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적은 참호의 물을 빼내고 흙으로 메워 큰 길을 만들었는가 하면 곧장 성 밑을 파서 장대의 큰 돌을 운반해 내갔다. 성 위에서 시석이 어지럽게 떨어졌으나 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들어 꼭 허문 뒤에야 그만두려 하였다. 그 다음날은 세 차례 전투에서 세 번 모두 물리쳤으며, 그날 밤에는 네 차례 접전하여 모두 물리쳤다. 그 다음날도 그러하였는데, 탄환과 화살이 서로 빗발치듯 하여 성 안팎에 죽은 자의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이튿날에는 적이 동문 밖에 土山屋을 짓고 그 위에서 성을 굽어보며 총탄을 발사하였다. 성안에서도 이미 마주 대하여 높은 언덕을 쌓았는데, 黃進이 직접 흙을 저 나르고 성안의 土女들이 힘을 다해 쌓는 일을 도왔으므로 하룻밤에 끝마쳤다. 그리하여 드디어 마주 바라보고 현자총을 쏘아 土屋을 파괴하니 이에 적이 물러갔다. 그 이튿날 밤에는 밀고 당기며 크게 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다. 그런데 적은 또 나무궤를 만들어 쇠가죽을 입힌 뒤 각자 짊어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탄환과 화살을 막으며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기울였다. 이에 성 위에서는 비오듯이 활을 쏘고 큰 돌을 연달아 굴러내려서 격

되시켰다. 그러자 적은 큰 나무 두 개를 동문 밖에 세우고 그 위에 판옥을 만든 뒤 성안으로 화전을 쏘아 보내니 성안의 초옥에 일시에 불이 번졌는데, 황진이 또 마주 대하여 나무를 세우고 판자를 설치하여 총을 쏘니 적이 곧 중지하였다. 서예원이 겁을 먹고 허둥거리며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자, 김천일이 장운을 임시로 목사에 임명하여 진정시켰다. 이때 큰 비가 내려 활의 야교가 모두 풀리고 군사들은 먹고 잠잘 겨를도 없어 점점 피로의 기색이 짙어져 갔다. 이에 반해 적은 많은 군대로 교대하며 나아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생기가 돌고 용맹스러워 지르는 함성이 우레와 같았다. 왜적이 성안에 글을 보내기를, "대국의 군사도 이미 투항하였는데, 너희 나라가 감히 항거하겠는가"하였는데, 성안에서 글로 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명나라 군사 30만이 지금 진격 중이니, 너희들은 섬멸되고 말 것이다."하니, 적이 아랫도리를 벗어붙이고 야유를 하기를, "중국 군사는 벌써 물러갔다."하였다. 김천일이 매양 높은데 올라가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某方에 병기가 있으니, 명나라 군사가 곧 와서 구원할 것이다."하면, 군인들이 크게 기뻐들 하였으나, 조금 있다가는 조용해지곤 하였다. 김천일이 최경회 등에게 말하기를, "언제나 이 적을 물리치고 賀蘭進明의 살점을 씹을 것인가"하였다. 이날 밤에 또 밀고 당기며 크게 싸우다가 5경에 이르러서야 그쳤다. 적이 언덕 다섯을 동·서 두 문 위에 한꺼번에 쌓고 대나무를 엮어 柵을 만든 뒤 비오듯 총을 쏘아대니, 성안에 죽는 자가 매우 많았다. 또 큰 케를 만들어 그 속에 병사를 엄폐시키고 네 바퀴 달린 수레에 실은 다음, 적 수십 인이 철갑을 입고 철순으로 가리고서 수레를 밀어 성에 대고는 큰 철추로 성을 뚫다. 이종인이 단독으로 활을 쏘니, 화살마다 첩갑을 뚫었으므로 적병이 많이 죽었다. 성 위에서 숨을 묶어 기름을 적신 다음 불을 붙여 던져 그 케를 태우니 케 속의 적들이 모두 섬멸되었다. 이날 밤 적이 다시 북문을 침범하자 이종인이 구원하러 그곳으로 달려가 힘껏 싸워 물리치고는 자기가 지키던 서성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곳은 그동안 서예원이 대신 지키고 있었는데, 적이 몰래 와서 성을 뚫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으므로 성이 장차 무너지려 하였다. 적이 바야흐로 가까이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종인이 힘껏 싸워 물리치는 동시에 적장 한 명을 사살하니, 적은 시체를 끌고 물러갔다. 다음날 적이 또 동쪽과 북쪽의 성을 침범하여 크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종인이 다시 크게 싸워 물리쳤다. 황진이 순행차 이곳에 이르러 성 아래를 굽어보고 말하기를, "적의 시체가 참호에 가득하니 죽은 자가 거의 1천여 명은 되겠다."하였다. 그런데 이때 적 한 명이 성 아래에 잠복해 있다가 위를 향해 철환을 쏘았는데, 판순을 뚫고 진의 이마에 맞아 진이 즉사하였다. 황진은 용량이 여러 장수 가운데 으뜸이었으므로 성안에서 그를 의지하였었는데, 그가 죽자 성안이 흉흉해지며 두려워하였다. 이에 서예원이 그를 대신하여 무리를 이끌었는데,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혼이 빠져 갓을 벗은 채 말을 타고 울면서 돌아다녔다. 최경회가 군정을 경동시켰다 하여 참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는 장운에게 대신 맡겼다. 장운은 명망이 황진 다음가는 인물이었는데, 그도 탄환에 맞아 죽었으므로 종인 혼자서 동서로 뛰어다니며 적을 응수하였다. 29일 동문의 성이 비로 인해 무너지자 적의 무리가 개미떼처럼 기어올랐다. 종인이 친병과 더불어 활과 화살은 놓아두고 칼과 창을 가지고 육박전을 벌여 죽인 적의 시체가 구렁처럼 쌓이니 적이 이에 물러갔다. 적이 창의사가 지키는 서쪽과 북쪽 성문은 병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군을 모아 힘을 다해 공격해 올가니, 창의군이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였다. 적이 드디어 성에 올라와 병기를 휘두르니, 성벽을 지키던 군사들이 흩어져 축석루로 들어갔는데, 서예원은 먼저 달아나 숨어버렸다. 김천일이 최경회·고종후 등과 聽堂에 나란히 앉아서 말하기를, "여기를 우리들이 죽을 장소로 합시다"하고는 술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술을 지니고 있던 자도 이미 달아난 뒤였다. 이에 불을 지르도록 명

하고는 스스로 타 죽으려 하였는데 적이 바로 축석루에 올라오자, 김천일이 그 아들 김상건 및 최경회·고종후·양산숙 등과 함께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이 종인은 이곳저곳에서 싸우다가 남강에 이르렀는데, 양팔로 두 명의 적을 끼고는 크게 소리치기를, "김해 부사 이종인이 여기에서 죽는다"하며, 강에 몸을 던졌다. 진사 文弘獻, 正字 吳玘, 參奉 高敬兪 등이 모두 따라 죽었다. 성이 일단 함락되자 적이 대대적으로 도륙을 자행하였다. 서예원 및 판관 成汝楷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장령들도 다 죽었다. 金俊民은 단독으로 말을 달리며 거리에서 싸웠는데, 좌우로 돌격할 때마다 적의 무리가 물 갈라지듯 흩어졌다. 왜적이 종일 그를 추축하였으나 탄환과 칼이 모두 명중되지 않았는데, 끝내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알지 못했다. 성안의 사녀들도 앞을 다뒤편 강에 이르러 투신 자살하여 흐르는 시체가 강을 메웠다. 대략 죽은 자가 6, 7만이나 되었는데, 장사로서 벗어난 자는 수삼 인에 불과했다. 적이 성곽을 헐고 가옥을 불태웠으므로 성이 온통 폐허가 되었다. 성이 포위를 당한 9일 동안은 주야로 별인 크고 작은 전투가 1백여 차례나 되었으며, 적의 죽은 자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중과 부적인 데다가 외부에서 원조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여러 장수들이 힘이 다하여 죽었다. 왜변이 있는 이래 참혹하게 무너지고 의열이 장엄하게 드러난 것으로 진주성 같은 예가 없었다. 유격 吳宗道가 경성에서 변을 듣고 달려 내려가다가 죽산에 이르러 풍우의 이변을 만나고는 接伴官에게 말하기를, "진성이 포위를 당한 지 지금 8일째인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함락되지 않으면 적이 반드시 물러갈 것이다"하였는데, 과연 그날 함락이 되었다. 오종도가 글을 지어 김천일을 제사지냈는데 내용이 매우 슬펐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 글을 전송하였다.

【우리 나라는 전대부터 큰 적을 겪지 못했으므로 국내의 큰 성이라야 높이가 3장에 불과했으며, 위로는 누로가 없고 아래로 갭참이 있다 해도 대부분 알고 좁아 뛰어 넘어올 수 있었다. 진주성은 본래 누석으로 얇게 축조한 것인데, 성안에 비치된 식량이 충분했다 해도 전사는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적이 10배의 병력으로 번갈아 휴식시켜가면서 계속 들이닥쳤으니 이는 김시민이 당하던 적과는 중과가 현격하게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김시민도 지킨 지 7개월 만에 성안이 이미 곤핍해졌고 보면 곧 그 형세를 알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김천일 등이 충의만을 가지고도 사중을 격려하였던 것인데 황진·이종인·장윤·김준민 등이 모두 군사 중에 으뜸가는 용무를 가졌던 관계로 왜적을 꺾어 상당수를 살상하면서 9일이 지나서야 힘이 다하였으니, 전수를 잘못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서예원은 처음부터 성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원수에게 놀려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고, 밖의 장수들도 모두 군문의 명을 받고 반드시 패할 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때 나가서 피해야 한다는 의논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인데, 김천일이 항언하여 그 의논을 중지시켰으니, 세상에서 이 점을 들어 김천일을 허물하는 것은 그럴 듯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자고로 충의의 선비로서 성을 지키다가 죽게 되어 심지어는 백골이 천리에 드러나기까지 하되 마침내 그런 경우를 면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김천일의 유라고 하겠는데, 그들을 비난하며 죄를 준 경우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이는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런데 김천일 등이 불과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서도 죽인 적의 수효가 수천 인에 그치지 않았었고 보면 또한 그의 죽음이 헛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때에 김천일 등이 아니었다라면 겁 많고 미련한 서예원으로서는 필시 하루이틀도 막아내지 못하였을 것이니, 따라서 성안의 사민 남녀 6, 7만 명이 모두 죽게 되고 허다한 식량과 기계가 죄다 적에게 넘겨졌을 것인데,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서예원의 형 徐仁元은 의논을 좋아하는 것으로 명사가 되었으나 쾌활하고 기기하였다. 일찍이 김천일을 교묘하게 비방하면서 예원을 신원하려고 하였던 까닭에 사대부들 사이에 간혹 이론이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상의 앞에서 무릎하여 ‘천일의 뜻은 숭상할 만하나, 재주가 졸렬하여 일을 그르쳤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천일이 국사를 그르친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다면, 진주의 유민들은 천일 등과 더불어 같은 도의 사람으로 본디 서로 친신한 경우가 아닌데도 그를 숭양하여 제사까지 지내면서 오래갈수록 더욱 독실하게 하는 데 반해, 예월에 대해서는 타매하면서 심지어는 ‘예월은 온 집안이 적에게 투항했다.’고 하여 한마디도 애석해 하는 말이 없었으니, 공리가 인심에 있어 속일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애통하게 여길 만한 것은, 행장이 청정과 혐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나라가 필시 진주성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는 거짓으로 버리고 피하기를 청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더욱 진주성을 보전하려고 충신과 용장을 증파하여 한성에서 함께 죽게 하였으니, 이는 본시 수길의 계략이었다. 왜인 중에서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먼저 달이나 한 번도 정식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장한 군사들이 모두 죽지 않고 흩어졌다가 다시 합하여 곳곳에서 왜중을 초살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행장이 반드시 진주성을 버리라고 한 것은 일부러 그들을 완전히 집결하게 하여 섬멸시키려 한 것이다’ 하였다. 왜인이 姜沆에게 말하기를 ‘조선의 장사들이 진주성에서 다 죽었으니, 이후로는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그 뒤에 이간질을 하여 이순신을 떠나게 만들고 원균을 패하게 만든 것도 모두 깊은 기모에서 나온 것이다. 대저 진주성은 이미 누차 승전하여 홀로 온전하게 지켜 냈고 곡식 10만 석을 비축하여 일면의 보장이 되었으니, 반드시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을 행장은 본래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옛날 용병을 잘하는 자는 장차 취하려 할 때 먼저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어찌 김명원 등이 능히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조정에서 문법을 가지고 장수들을 휘어잡아 항시 동서로 진퇴하는 일에 대한 통제가 중앙에서 나옴에 있어서라. 김명원 등이 만일 행장의 말에 따라 진주성을 버리게 했더라면 필시 군법에 의해 죄를 얻을 것인데, 김명원이 어찌 감히 스스로 독단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광재우의 의논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이다. 진주의 패망된 상황은 여러 장상들이 조사하여 갖추 주문하였고, 또 기록한 자가 많으므로 사실을 참험(參驗)하여 대략 여기에 적는 바이다.】

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1593) 6월 1일 갑신

김천일은 자가 士重으로 李恒에 사사하여 학문으로 명성이 있었으며, 剛方하고 廉直하였다. 入對할 때마다 할 말을 다하면서도 임금의 뜻에 맞았는데, 정성을 다해 관직을 수행하여 남다른 치적을 세웠다. 그러나 체질이 허약해 병이 많았는데, 군대 내에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고생으로 몸이 야위어 옷의 무게도 이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나 志氣가 堅貞하고, 忠誠이 奮慨하였다. 그래서 못사람들로 하여금 적과 대치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2. 金象乾

표 4. 『조선왕조실록』 내 김상건 기사

출전		기사내용
선조실록 40권(1593)	선조 26년 7월 16일 무진	표 3과 동일

선조실록 139권(1601)	선조 34년 7월 23일 무오	표 3과 동일
선조수정실록 27권(1593)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표 3과 동일
정조실록 22권(1786)	정조 10년 9월 7일 정축	김상건의 부조지전을 청하였으나 김천일과 중복되어 허락되지 않다
순조실록 19권(1816)	순조 16년 10월 20일 을미	김상건에게 정려를 내리다

3. 梁山璿

표 5. 『조선왕조실록』 내 양산숙 기사

출전		기사내용
선조실록 23권(1589)	선조 22년 12월 15일 무자	호남 유생 양산숙 · 김광운 등이 상소하다
선조실록 28권(1592)	선조 25년 7월 19일 병자	김천일·고경명·정운룡·박희수·곽현·양산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1592)	선조 25년 7월 20일 정축	양산숙을 공조좌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28권(1592)	선조 25년 7월 25일 신사	김천일이 양산숙에게 장계를 주어 행재소로 보내다
선조수정실록 23권(1589)	선조 22년 11월 1일 을사	양산숙의 상소에 대해 논하다
선조수정실록 23권(1589)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양산숙의 상소에 대해 논하다
선조수정실록 26권(1592)	선조 25년 7월 1일 무오	양산숙, 김천일에게 상의 전언을 전하다
선조수정실록 26권(1592)	선조 25년 8월 1일 무자	유생 양산숙을 공조 좌랑에 임명하고 호남·영남에 유시하는 교서 2통을 내리다
선조수정실록 27권(1593)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표 3·4와 동일
순조실록 22권(1819)	순조 19년 5월 25일 을유	고 충신 양산숙에게 증직하다

4. 林檜

표 6. 『조선왕조실록』 내 임희 기사

출전		기사내용
선조실록 78권(1596)	선조 29년 8월 12일 정미	임희를 공초하다

선조실록 78권 (1596)	선조 29년 8월 12일 정미	임회를 추국하는 체례의 잘못을 말하다
광해군일기(중초 본) 77권(1614)	광해 6년 4월 4일 병술	임회의 집과 내통한 사유를 국문하다
광해군일기(중초 본) 77권(1614)	광해 6년 4월 18일 경자	임회를 공초하다
광해군일기(중초 본) 78권(1614)	광해 6년 5월 30일 신사	임회를 정배하다
광해군일기(중초 본) 79권(1614)	광해 6년 6월 5일 병술	임회를 양산으로 유배보내다
광해군일기(정초 본) 77권(1614)	광해 6년 4월 4일 병술	임회의 집과 내통한 사유를 국문하다
광해군일기(정초 본) 77권(1614)	광해 6년 4월 18일 경자	임회를 공초하다
광해군일기(정초 본) 78권(1614)	광해 6년 5월 30일 신사	임회를 정배하다
광해군일기(정초 본) 79권(1614)	광해 6년 6월 5일 병술	임회를 양산으로 유배보내다
인조실록 3권 (1623)	인조 1년 윤10월 16일 임인	임회에게 남한상성 수축을 맡기다
인조실록 2권 (1624)	인조 2년 2월 23일 정미	임회 등에게 문려 정표를 명하다

5. 李容濟

표 7. 『조선왕조실록』 내 이용제 기사

출전		기사내용
선조실록 86 권(1597)	선조 30년 3월 24일 갑인	권율이 이용제의 軍功을 말하다

VII. 건축물 현황

1. 입지 및 배치



그림 37. 유물관 주변 전경

정렬사는 금성산 서남쪽 말단부 경사지에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풍수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전면으로 案山이 형성되고 멀리 영산강이 바라다보이며 후면과 좌우로는 금성산과 그 지맥들이 사우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1984년 5월에 복원 완료된 이곳에는 사당(정렬사), 내삼문, 외삼문, 전사당, 그리고 유물관과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이외에 홍살문과 김천일장군 동상, 정렬사비, 정렬사 유허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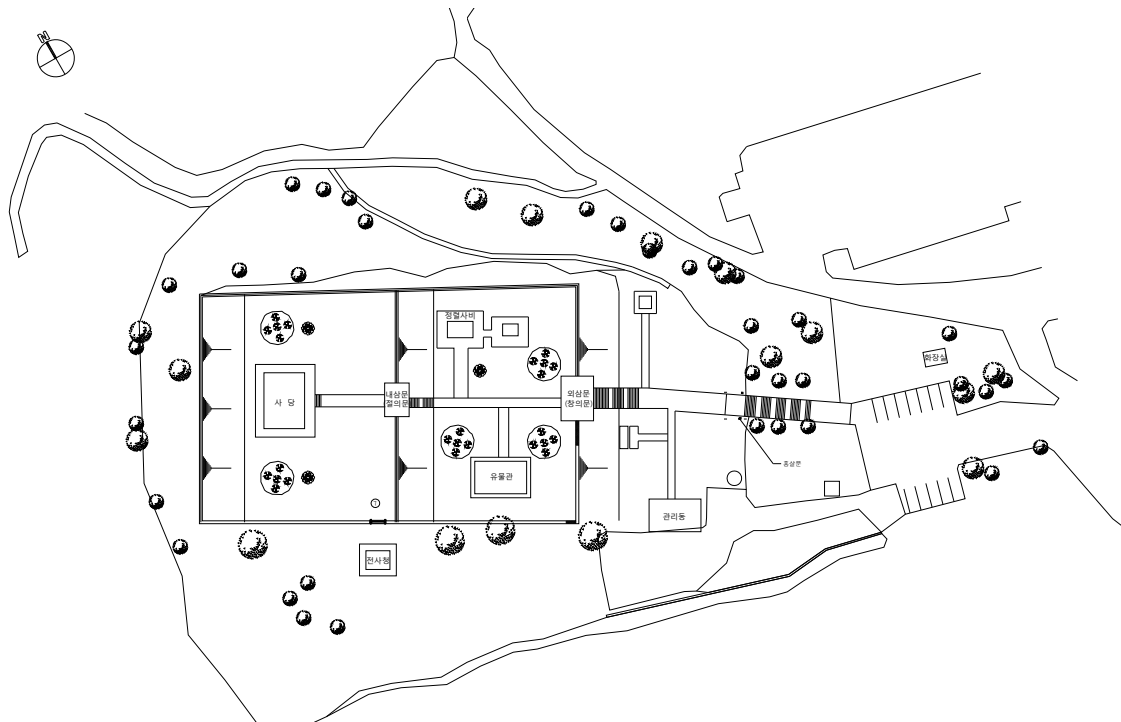


그림 38. 정렬사 배치도

2. 건축양식과 구조

1) 사당

정면 3칸, 측면 2칸 반의 팔작지붕이다. 전면 반칸은 사당건축의 특징인 개방형 퇴칸으로 제향의식시에 편리하게 하였다.

기단은 잔다듬한 화강암으로 반듯하게 축조되어 있으며 그 상면과 퇴칸부분에는 방형 전으로 포장 마감하였다. 정면에는 세벌대로 배면은 두벌대로 자연 경사지에 조화롭게 설치되었다. 초석은 방형받침을 둔 원



그림 39. 사당 전경

형주초이며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였다. 기둥 상부로는 주두가 놓이고 창방을 걸었으며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 사이에는 주칸마다 화반을 2구씩 배치하였다. 공포는 외부로 1출목을 둔 주심포계의 2익공양식으로 되어 있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특히 중도리 밑으로는 뜯창방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나 종량 상부로는 우물천장을 가설하였으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현재 후벽과 양 측벽 쪽으로는 5인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 창호는 정면 3칸에만 사분합 정자살문을 설치하였다.

2) 내삼문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며, 평대문 삼문 형식이다. 구조는 방형받침이 있는 다듬은 원형초석 위에 원기둥을 세운 3량가로써 기둥 머리에는 창방을 걸고 일정 간격으로 소로를 배치하였다.

공포는 수서형의 쇠서 하나를 낸 초익공양식으로 되어 있다.

전후 기둥 상부로 대량을 걸고 기둥 상부에 서 초익공을 올려 창방과 교차하면서 대들보를 받치는 보아지의 역할도 한다.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대량 상부에서 키대공을 올려 연목을 올린 간략한 구조이다.



그림 40. 내삼문 전경

3) 외삼문

내삼문과 같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평대문이다. 내삼문과는 달리 창방 위에 화반을 배치하였

고 공포도 2익공양식으로 꾸며 내삼문보다는 격을 높였다. 정렬사 외삼문은 나주객사 금성관의 정문인 중삼문을 옮겨간 것으로 1966년 정렬사가 남산공원으로 이전할 때 금성관의 중문을 옮겨왔으며, 이를 다시 1980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외삼문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당이 이익공임을 감안할 때 외삼문이 이익공인 점



그림 41. 외삼문 전경

은 위계에 적절치 않으며, 보머리의 치목에 있어서도 내삼문은 일반적인 보뿔목 형태를 하고 있지만, 외삼문은 운궁형으로 이익공 상부의 운궁형으로 처리하여 차이나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4) 기타건물

기타 건물로 전사당과 1992년 신축된 유물관이 있다. 이 중 전사당은 정면 2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유물관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초익공 양식으로 정면 3칸에 각각 띠살문을 설치하였지만 정면 4짝 띠살문만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김천일 장군의 유품 및 임진왜란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그림 42. 전사당(좌)과 유물관(우)

또한 유물관의 건너편, 사역의 동쪽으로는 정렬사비가 보호각과 함께 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장초석을 사용하여 3량가의 간단한 구조로 설치하였다.



그림 43. 정렬사비각

Ⅶ.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임진왜란, 김천일과 호남의병 나라를 구하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에 도착한지 20여일만에 서울을 함락하고 2달 만에 평양을 점령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일본군의 기세를 꺾고 전세를 역전시킨 계기가 호남을 지킨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이 호남을 지킨 것은 의병항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진주성을 지켜 호남을 보호해야한다고 한 김천일의 의견은 결국 나라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애 유성룡은 자신의 저서인 『懲毖錄』에서 진주성 실함의 원인을 김천일의 실책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안방준은 『晉州敍事』에서 김천일 등의 활약으로 호남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공이 진주성에서 죽은 것을 두고 헛되이 사람 목숨을 죽였다하니, 아! 슬프다. 이 성을 쌓고 연못을 파서 장차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려 한 것인가? 더구나 공이 진주를 지키지않아 적의 예봉을 꺾지 못했다면, 곧 호남의 50여 성이 어육을 당함은 진주성보다 훨씬 심하였을 것이다. 한도의 인명의 수효가 어찌 한 성의 백성의 목숨과 같겠는가.³⁰⁾

김천일이 성혼·정철 등과 가까운 서인계 인물이고 유성룡이 동인의 영수였던 점으로 보았을 때 유성룡의 김천일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어느정도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주성을 9일간이나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천일의 충심에 의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진주성 전투로 인해 왜적은 많은 힘을 소모하였고 이로 인해 호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진주성 함락을 직접 조사보고한 체찰사 李恒福은 『白沙記事』에서 김천일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김천일은 三難을 이룬 사람인바, 삼란이란 진주성이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입성한 점, 관군이 떠날 때 오히려 진주성을 사수할 것을 결심한 점, 성이 함락되던 날 조용히 殉義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明將 吳宗道 또한 ‘부끄러움 없이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살아 있을지라도 어찌 장군의 죽음만 같으리오’

2. 나주 사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심공간, 정렬사

정렬사의 창건은 중망있는 인사들에 의해 공론화되어 일향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향론의 결집이 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소두 강위호와 김선, 정렬사 봉안문

30) 『晉州敍事』‘西崖懲毖錄 以爲晉州之陷 全由於金倡義失策 又以爲臨死痛哭 若畏死者然 西崖之意 未知何故 … 丁亥春鹿島萬戶李大源之死 公抗疏 宣廟戊子夏 平僑求和 公貽書柳相西崖 極言防禦之策 許和之非’

을 지은 정상, 동재·사마재의 상량문을 지은 나해봉은 학식과 덕행으로 중망을 얻었던 인물들이다. 흔히들 강위호와 정상은 동인, 김선과 나해봉은 서인으로 구분하나, 문집과 족보 등에 나타난 폭넓은 교유관계는 이들을 특정 당파에 묶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사족들은 이처럼 공론을 모아 지배기구를 정비하는 동시에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력을 회복하여 향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3. 김천일의 도학정신, 한말의병까지 이어지다

김천일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의병활동은 호남유학이 자리잡으면서 형성된 도학정신의 현실적 표출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병은 사화기를 전후해 형성된 호남사림의 의리실천정신이 이어진 의리구현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일환이었고, 이러한 정신은 韓末까지 이어져 奇正鎭을 비롯한 노사학파의 위정척사운동과 이에 이어진 호남의병활동으로 면면히 계승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20세기 초 한말의병의 중심적 맥락을 형성한 호남의병의 경우, 학문적으로 理一元的 理氣論 체계를 통해 특징적인 성리설을 제기한 奇正鎭과 그의 문인집단과 깊은 관련이 있고, 이러한 정신이 항일운동과 구국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도 의리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호남유학의 특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지역에도 의리정신의 구현을 위한 노력과 실천적 의병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호남지역의 의리구현을 위한 실천적 지향은 남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호남유학사상을 특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호남유학은 기본적으로 재지적 기반을 중심으로 성장한 조선 초중기의 사림파들에 의해 근거지 위였고, 이후 성장 발전 하였다. 특히 성리학은 향촌사회의 운영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호남유학은 형성기에 배태되어진 호남사림들에 의해 지역과 밀접하게 결합하였고, 그 맥락은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다 할 수 있다. 불의에 항거하고 대의의 실천을 위해 목숨도 마다하지 않았던 초기 호남사림의 정신은 왜란과 호란 등 국가가 변란을 당하였을 때 불굴의 기개로 일어난 의병활동으로 이어졌고, 이 의병활동은 단순히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일어나고 확대심화된 것이었다. 근현대를 거치오면서도 호남의 절의정신은 외세의 침략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구국 운동과 저항정신으로 표출되어 호남인의 정신적 맥락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4. 김천일선생의 증직교지 등 다양한 기록 유산을 소장하다

정렬사에는 김천일 선생 증직교지 및 친필유묵 그리고 『건재집』 발간과 관련된 문서들과 함께 양산속 증직 교지 등 다수의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유물관이 건립되어 모두 전시되어 있으며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IX. 배향인물 관련 문화재 및 설화

1. 金千鎰

1) 진주 창렬사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정사항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호(1983년 7월 20일)

진주성 경내에 있다. 창렬사는 1593년 6월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장수들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경상도 관찰사 정사호가 건립하여 1607년(선조 40)에 사액을 받은 사당이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임진왜란 당시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김시민 장군을 모신 충민사가 철폐되자 위패를 이곳 창렬사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창렬사에는 김시민 장군의 신위를 맨 윗자리에 모셨고, 창의사 김천일과 충청도 병마사 황진, 경상우도 병마사 최경희 등 순국선열 39인의 신위를 모셨다. 매년 음력 3월 초정일에 제향을 올린다.

正堂

충무공 김시민, 문열공 김천일, 무민공 황진, 충의공 최경희, 효열공 고종후, 주부 유복립 (이상 6위)

東祠

승지 양산숙, 참의 김상건, 병조판서 김준민, 병조참의 강희열, 병조참의 조경형, 병조참의 최기필, 주부 유함, 호조좌랑 이육, 호조좌랑 강희복, 호조좌랑 장운현, 병조참의 박승남, 병조좌랑 하계선, 호조좌랑 최언량, 무열공 주몽룡, 도총관 주대청(이상 15위)

西祠

참의 이잠, 참의 성영달, 병조참의 이종인, 참의 윤사복, 호조좌랑 이인민, 호조좌랑 손승선, 군사감정 정유경, 좌승지 김태백, 호조좌랑 양제, 호조좌랑 박안도, 병조참의 이의정, 도총관 행부장 김개, 사복 송건도, 예조정랑 정재보, 수문장 박세향, 병부판부 송제, 형조판서 김덕련, 칠만 민관군 신위(이상 18위)

正廟가 彰烈祠에 祭를 賜한 글 - 乙卯(1795) 八月 十一日

한쪽 晉陽에 두 祠堂이 나란히 높다. 아름다운 忠愍이여 節에 殉한 忠 亦시 翼翼하다. 儼然한 그 신위 차례로 응당 여러 별이 되리라. 千載에 상상을 하면 누가 눈물이 가슴을 적시지 않으리요. 앞서 龍蛇의 해에 섬 되가 창궐하다. 湖嶺의 벼락 소리에 꺾이고 떨어지지 않음이 없다. 晉陽이 戴然히 砥石처럼 흐르는 물에 서있는 것 같았다. 적의 쌓인 바 감정이 兩歲에 이 한 州였다. 돌아가는 賊의 군사가 둘러쌌은 별의 둔과 개미의 모임이다. 翼翼한 倡義와 兩節度가 모이다. 白袍로 從事한 이 孝이고 忠이다. 오는 군사 구름 같음은 義膽이 같기 때문이다. 땅은 반드시 다툼이 있으니 사람은 능히 생명을 던지다. 꾀의 잘못이 아니라 하늘이 안정케 않음에 어찌 하리요. 구름다리 백 군데로 적이 이미 성에 오르다. 우리 豪英의 쌓인 시체 성과 같이 가지런하다. 혹은 탄환 혹은 칼날에 죽음 보기를 탄연히 하다. 그리고 혹은 물에 뛰어드니 靑衣를 입은 이다. 북으

로 향하여 통곡하니 義와 烈이 더욱 빛이 나다. 성벽에 둘러 앉았으니 홀로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성은 비록 없어졌으나 기운은 없어지지 않을거야. 厲鬼로 化하여 남은 울분을 씻으리라. 또 山河가 되어 關을 방어도 할 것이다. 빨리 凶한 災殃을 소탕함은 진실로 가만히 도와줌을 힘입은 것이다. 오직 이 원통하고 억울함은 古今을 관철하다. 滔滔하게 흐르니 大江과 더불어 같이 깊으리라. 祠堂을 세우고 靈을 편안케 하였으니 그들 崇報함이 막히지 않았다. 세월이 점차 멀어지니 성의가 흑이나 게을러질까 한다. 오래이나 서로 감동이 되니 황연히 옛그제 같다. 관을 명하여 재계하고 목욕하며 이을 대로 멀리 술을 붓노라.

2) 순창 화산서원(소실)

소재지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花山書院은 歸來亭 申末周(1429~1503), 冲庵 金淨(1486~1521), 下書 金麟厚(1510~1560), 霧峯 高敬命(1533~1592), 健齋 金千鎰(1537~1593), 訥齋 朴祥(1474~1530), 石軒 柳沃(1487~1519), 伊溪 申公濟(1469~1536), 漁隱 楊士衡(1547~1599), 自然堂 金時瑞(1652~1707) 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607년(선조 40) 9월 8일 순창군 유림의 공의로 세워졌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훼철되기 전 건물로는 賢殿 · 神門 · 東西 夾門 · 講堂 · 典祀廳 · 雇舍 · 大門 등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서원 터로 추정되는 근처에는 申景濬의 묘가 있으며, 서원이 있던 야산은 지금도 書院峙라고 불린다.

3) 태인 남고서원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보림리 537

지정사항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76호

1577년(선조 10)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李恒과 金千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85년(숙종 11)에 ‘南阜’라고 사액되어 서원으로 승격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71년(고종 8)에 훼철되었다가 유림에 의하여 제단을 마련하고 향사를 계속하여왔다. 그 뒤 1899년에 講修齋를 중건하였으며, 1927년 서원을 복원하는 동시에 金拈 · 金福億 · 金承績을 추가 배향하고, 1974년에 다시 蘇山 福을 추가 배향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廟宇, 內神門, 4칸의 강수재, 外神門 등이 있다. 묘우의 중앙에는 이항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오른쪽에는 김천일 · 김복역 · 소산복, 왼쪽에는 김점 · 김승적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수재는 강당으로서 중앙에는 마루가 있고 좌우에는 협실이 있는데, 원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의 토론장소로 사용되는 곳이다. 해마다 2월 중정(中丁 : 두번째 丁日)과 8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유물로는 『孔子通紀續錄』 등 70여권의 문헌이 있다.

肅廟가 南阜書院에 宣額하고 祭를 賜한 글

앞서 明宣의 시대에 文士가 輩出하다. 다섯 逸士를 徵하는데 네가 그 가운데 하나다. 하늘이 호걸을 내어 蔚然히 宗師를 삼다. 위대한 그릇이요 강의한 바탕이다. 어려서 장난놀이를 할 제 여러 아이는 두려워하다. 호협한 소굴에서 놀 적에 방탕하여 제압하기 어려웠다. 한 생각을 翻然히 돌려 통절하게 스스로를 責하다. 호걸스러운 습관을 없애고 바른 학문으로 돌아오다. 曾傳 一篇으로 출발점을 삼다. 鹿洞 열 가지 訓을 朝夕으로 받들다. 발분하여 괴로움을 참고 전심하여 힘을 다하다. 格致공부를 깊이 생각하여 세밀히 분석하다. 實踐한 학문이고 不變한 공부다. 옛사람에 비유하면 누구와 같을까 橫渠와 같다 하겠다. 오히려 분발하여 道가 있는 이에게 나아가 질정을 받다. 옷을 걷고 室堂에 들어가니 학문이 깊은 경지에 이른다. 寶林의 산기슭이 학문을 강마한 곳이다. 齊의 額을 一이라 하였으니 장차 여기서 늠름하려 하다. 鶴 울음은 하늘에 들리고 騶 소리는 골짜기에 들리다. 이미 벼슬을 내리고 또 駟馬로 부르다. 은전에 감격하여 한번 天陛에 달려오다. 백성 다스리는 도를 진술하였으니 임금의 헛된 기다림이 아니다. 잠깐 雷封의 책임을 주었으나 어찌 포부를 다 폈으랴. 한번 구렁으로 돌아가니 고상한 뜻이 皎皎하다. 梨園과 栢府에 제수한 命이 여러 번 이른다. 상감의 총애는 더욱 높으나 본뜻은 더욱 돈독하다. 楹의 사이에 篋을 지낸 꿈을 꾸자 들보가 문득 꺾이다. 士林의 의지할 바가 없고 임금은 탄식을 일으키다. 또 門牆 아래 이어 偉士가 나오다. 일찍이 밝은 교훈을 받았으니 忠義도 권면하다. 여러분 弓旌의 일에 부지런하고 內外의 벼슬을 지나 다 하다. 臺省에 단정히 서 있으니 늠름한 풍채이다. 해가 龍蛇를 당하여 섬 되놈이 창궐하다. 五廟가 타 잿더미가 되고 六龍이 시골로 유리하다. 河北의 十郡에서 네가 옷을 떨치고 일어나다. 달려가 옛 친구에 고향하여 규합하다. 壇에 올라 피를 뿌리니 士氣가 백배로 높다. 逆賊이 꺾이자 문득 軍聲이 바야흐로 장하다. 兵을 江都로 전진하니 많은 屯營이 서로 질비하다. 行朝에서 命을 내려 號를 賜하고 권장하다. 虜酋의 죄상을 열거하나 賊이 능히 움직이지를 못하다. 北에서 온 大軍 그 衆이 십만이다. 聲勢가 서로 의지하니 賊兵이 궁축하여지다. 廟墟에 들어오자 성을 지킨 자 다 뺏을 하다. 적을 쫓으라는 명을 받자 병든 몸을 끌고 길게 오르다. 오직 저 晉陽은 嶺湖의 울타리다. 兵器를 싸가지고 가서 孤城지킬 것을 약속하다. 虜兵이 구름같이 육박하여 오르다. 피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니 병사가 다 머리를 서울로 하다. 화살을 떨어지고 힘은 다하여 睢陽(휴양)을 잃게 되다. 止水堂 앞에서 父子가 생명을 던지다. 靑溪의 柵下에는 孝와 烈이 雙으로 맑아라. 붉은 마음 一片은 千春에 성난 파도다. 寵과 贈이 이미 높았으니 임금의 포양이 새롭다. 스승과 제자를 百世토록 함께 우러른다. 나는 풍채와 규범을 듣고 개연한 상상이 일어난다. 한때가 아님이 한이나 어찌 가히 있으랴. 옛적 거처한 곳에 완연히 선생이 있는 것 같다. 翼然한 宮이 있으니 아를러 여기에 제향하다. 額을 賜한 은전이 홀로 闕하였음을 식견있는 이 탄식하다. 여러 선비는 길이 멀다는 것을 불구하고 疏를 올려 같이 하소연하다. 有司는 전례에 구속이 되어 아직도 그 崇報를 아끼다. 이제야 추모하는 법전을 갖추어 新號를 걸라 명하다. 지금 한 官을 보내 우리 밝은 神을 위로하다. 바라건대 와서 흠향하고 뒷세상 사람을 깨우치며 도우라.

4) 임실 학정서원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660년(선조 33)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朴蕃 · 朴薰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청웅면

구고리 남쪽 迺鷗亭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그 뒤 1621년(광해군 13)에 아구정 북쪽 酒泉洞으로 이진, 金千鎰을 주벽으로 모시고 洪鵬을 추가 배향하여 서원의 규모를 갖추어 30여 년 유지해 오던 중 화재를 당하였다. 1656년(효종 7)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짓고 ‘하정서원’이라는 사액을 예조에 청원하였으나 같은 해 김천일의 원호가 다른 곳에 사액되어 중복할 수 없으므로 사액서원의 예로 향사토록 하고 관제물 물목을 봉하여 현감제주로 향사하라는 하교가 내려졌다. 같은 해에 李興勃, 1659년에 趙平, 1855년(철종 6)에 金元根을 각가 추가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으나 유림에 의하여 위패를 그 유허지에 埋安하고 제단을 마련하여 매년 음력 3월 3일에 향사를 유지해왔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군비보조와 유림 및 후손들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사우 3칸, 내삼문 3칸이 복원되었다. 院誌 3책 등 30여 권의 문헌이 전해오고 있다.

5) 김천일 묘(김상건 묘)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산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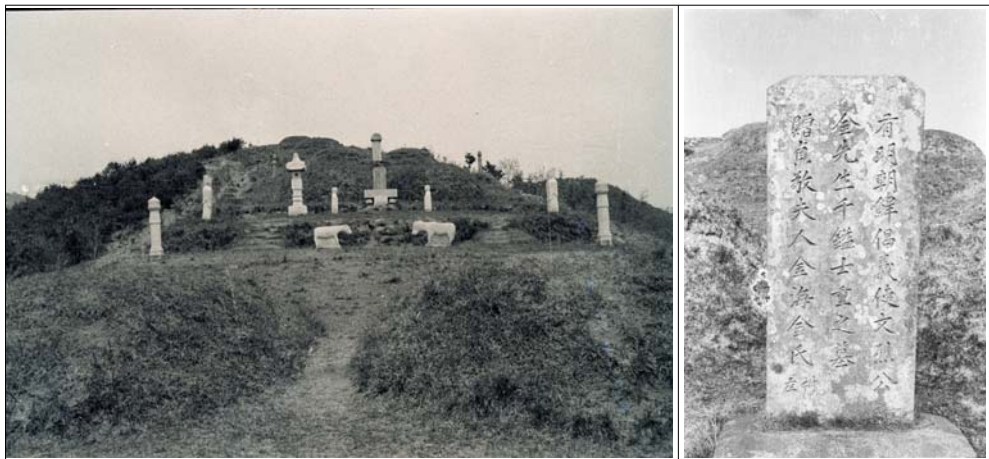


그림 44. 김천일 묘소 및 묘비(1975년)

羅州는 옛적부터 忠賢과 節孝의 선비가 많으니 健齋 金先生 같은 이는 倭에 항거하다가 父子가 節義에 죽었다. 어찌 높은 절개 보기 드문 이가 아니야. 일이 다 谿谷 張文忠이 지은 바 旌烈祠 碑文에 실려 있어 가히 考信할만 하다. 조정에서 여러번 領議政을 贈하고 지금 상감 八年 辛酉에 諡號 文烈을 特賜하였음은 높은 은전의 받음이 지극하도다. 오직 公의 齒髮爪甲을 갈문 곳이 실로 州治 남쪽에 있는데 夫人金氏를 부장하였다. 顯刻이 있지 않음은 아니 子孫이 떨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인가 公의 만아들 象乾은 公을 따라 죽은 이로 同原에 장사하고 다음은 象坤이며 딸은 鄭振溟이고 永宗 永纘은 둘 다 사육이 없다. 外裔 羅天老 李東瀟 崔聖麟 및 鄭湜 吳天贊(빈) 여러 사람이 遠近에 흠어 살고 있으나 世代가 점차 멀어지자 灑掃도 혹 闕하니 榮山江 위에 한줌 흙을 그곳을 누가 다시 기억하리오. 나는 이것이 두려워 鄭,李와 피하여 돌을 세우면 그 뒤에다 右과 같이 쓰노니 忠을 권하고 節을 나타냄은 대개 이 땅을 지킨 이의 책임이라 이르겠다.
崇禎紀元後 再丁酉 겨울에 牧使 光山 金鎮玉은 謹識

6) 김천일 탄생설화

김천일은 嘉靖十六年(1537년) 丁酉 正月 庚寅에 진사 彦琛과 부위 李臧의 딸인 陽城李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나주 흥룡동으로 이곳은 어머니 양성이씨의 본가이다. 선생이 태어나기 전 나주 錦城山이 三日을 크게 울었는데, 주변사람들은 이를 보고 큰 인물이 태어날 징조라고 하였다. 금성산이 울기를 멈춘 그 이튿날 선생이 태어났으나, 태어난 다음 날 모친이 별세하고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부친마저 별세하여, 외조부 이감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7) 의병장 김천일의 아내

“저는 보래 처사의 딸이라 친전 아버지이기서 배운 것이 살림경제 얘기 뿐이었고 논밭구덩이의 곡식 가꾸는 것만 일로 알았으며 어디 이런 도학양반 닥의 예문절차야 배웠겠습니까? 그랬지요.” 사중은 잠자리에서 아내의 잔등을 꼭 찌르며, “감히 그런 말이 나왔소.” 했다. 그러나 양씨의 말은 한층 더 심각했다. “그러니까 그 귀찮은 노비들도 다 속량해 주시고 내 손으로 자유롭게 치산경제를 하겠으니 시집덥 전답마지기를 제게 맡겨 주십시오. 그랬지요.” 여기까지 말하고 난 양씨는 입을 남편의 귀에 가만히 대었다. 그리고선 술술 속삭이는 말을 실로 중대하였다. 그것은 한 가정의 절대적인 흥망이 걸린 말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흥망에 관련되는 말이었다. “여자의 입으로 그제 무슨 소리람”하고 사중은 별안간 아내의 몸을 밀어제쳤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정이 멀어졌다. 양씨는 후하고 한숨을 가만히 내뿜었다. 사중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덜렁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아내 양씨의 말은 이러했다. “첫째는 유학가들의 계문과 허례를 폐지하고 노비를 속량해주고, 둘째 자력으로 농업생산 노동에 종사할 것이며, 셋째는 비밀에 속하는 문제이나 하여튼 10년 내외간에 이땅에 어떠한 커다란 난국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한 것이다. 하지만 때는 선조 때였으니 이러한 언동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요사스런 변고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 양씨는 당시의 세상이 모르는 특이한 농부였고, 또 앞날을 짐작할 줄 아는 범상치 않은 여성이었다. 원래 농사라 하는 직업은 식량을 생산할 뿐만아니라 인재를 생산하고 총명예지한 정신과 도덕을 생산한다고 한다. 하여튼 양씨는 전북 무주 고을의 어느 산골 처사의 딸로서 나주로 시집을 온 것이었다. 그의 시아버지인 양처사는 당시의 안목으로 본다면 산중에 숨은 괴벽한 인사로서 인간의 時務가 산림경제에 있는 것이며 썩은 양반들의 헛된 행세가 무슨 소용이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양씨의 의견이 시집에서 끝내 통과되고 말았다. 우선 노비들은 자기 앞에 불러세우고 “자네들 생각엔 어떤가. 사시사철 이 집에 었드려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편히 얻어먹는게 좋은가. 어떠한 자유의 천지에 가서 땀을 흠뻑 흘릴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일해서 살고싶은가.” 이러한 말을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양씨에게 부여되었다. “우리 친정댁에 가서 물우가지고 무주 구천동에 들어가 보소. 병속 같은 험한 산중이지만 벌

판이 탁 터지고 미간지가 수백석지기 있을 것이니 그곳을 몇해 주고 개간해 가며 조와 보리 농사만 지어도 넉넉히 살아가고 해마다 백여섬씩의 곡식이 남을것ियो. 그 곡식을 산중의 나무를 베어서 집과 창고를 지어서 꼭꼭 저축을 해두소. 그리고 그 늘어가는 섬 수를 해마다 나에게 기별 해주오. 나도 혹시 친정엘 간다면 그곳까지 가서 구경할테니 저축하는 곡식을 어디다 쓴다든지, 수량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은 이 다음에 알 일이니 비밀로 하오.” 이런 부탁을 하고 몇 마리의 소와 곡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양씨부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박농사를 많이 했다. 집 근처엔 글방을 짓고 선생은 두고서 사방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하게 했다. 일년에 두 번씩 원근 각처의 의협객들을 청해들여서 강론과 토론을 하며 씨름과 활쏘기를 하였다. 밭일을 하던 양씨는 일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내일 회의에서 의례 바가지 얘기가 날 것이요. 하지만 고작 풍류적인 소리 밖에 안나올거예요. 그러거든 이렇게 소리치세요.” -그런 썩은 선비소리 좀 그만 두고 이제 바가지가 모자가 될 것이니 그런 연구들이나 하자고- “무엇에 쓰느냐고 하거든 호군 치닥거리할때 필요하다고 해 두세요. 호군이라면 벌써 군사와 난리로 짐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엔 간단히 한마디 부탁해 두세요. 호군잔치 때에 방문을 돌릴 것이니 빠짐없이 달려와 달라고.”

다음날 회의에 수백명의 선비와 장정들은 별관에 모여서 씨름을 한다, 팽이질을 한다, 법석이었다. 저녁나절에 이르러 수군거리는 말이, “필연코 난리는 난리야. 사중의 부인은 이인이거든. 하여튼 일이 날수록 우리는 뭉쳐야 해.” 다시 세월은 흘러 선조 임진년이 닥쳤다. 주경야독으로 닦은 사중의 하문은 이때에 벌써 상당한 학자의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 뿐만아니라 아내의 내조와 김동지의 벼 천석의 원조로 널리 인물을 모으고 교제를 두터이 한 결과 호남 각지에 동지가 퍼지고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과연 때가 왔다. 이 해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니 김천일은 아내 양씨의 예언에 탄복을 했다. 동시에 그는 난리에 처할 자기의 행동을 생각해 보았다. “나라와 겨레를 건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저놈들에게 짓밟혀 죽느니 보다 한번 나서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군사가 있나? 그것은 이미 십여년 동안 사귀어 둔 선비와 동지들이 사방에 있으니 그들에게 통문을 돌리면 별떼같이 모여들게 아닌가. 군량은 무주 구천동에 노비들을 보내서 십년 개척으로 저장해 놓은 것이 있지 않은가. 부모 처자를 피난시킬 곳도 무주 구천동 산협 속에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다가 양씨는 노비들을 시켜서 약간의 창이며 칼과 철모자 그리고 그 많은 바가지를 철모자와 똑같이 가공해 둔 것이다. 모든 계획이 착수되어 마침내 김천일은 나주별관 풍진 속에 오백명의 정병을 모아 호남의병의 깃발을 높이 날리게 되었다. “아버님, 어머님과 어린 것들은 아예 걱정마세요. 피난처가 예비돼 있으니만큼 내가 모시고 갈것이니 염려 마세요. 다만 당신의 몸이나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구국의 충혼을 가슴에 안고 사생의 병화 속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같이 격려하는 여장부 양씨의 눈에는 이날에야 비로소 아

녀자의 눈물을 흘렸다.

2. 梁山驀

1) 진주 창렬사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지정사항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호(1983년 7월 20일)

내 용 : 위 김천일 항과 같음

2) 양씨삼강문

소재지 : 광주 광산구 박호동산 131-1

지정사항 : 광주광역시 시도기념물 제11호

1635년(인조 13) 忠孝貞烈로 순절한 양산숙 가문의 9명에 대해 정려를 청하는 전라도 생원 洪連 등의 상소를 계기로 하사되었다. 양산숙은 2차 진주성전투에서 순절하였고 형 양산룡은 군량미를 모아서 김천일의 의병활동을 도왔으며 정유재란 때 삼양포에서 일본군을 만나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순절하였다. 동생 양산수, 양산룡의 누이이자 김광운의 처 양씨, 양산룡의 처 유씨, 족녀 김두남의 처 양씨 역시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양산숙의 처 이씨만 겨우 살아났지만 스스로 자결하였다. 현령 임환의 첩이었던 양산룡의 서녀 역시 물에 빠져 죽었다.

이 삼강문은 원래 1635년(인조 13)에 건립하여 양산숙과 효자·열녀·절부 각 두명씩 7위를 표창하였으나 그 뒤 나주임씨 문중에 출가하여 순절한 양산룡의 딸은 따로 정려를 모시고 있어 6위가 표창되고 있다. 삼강문이 세워진 이곳은 생장지인 박피마을 앞 산기슭이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며, 각 기둥 사이에 홍살문을 달았고 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1803년에 李憲中이 ‘梁山三綱門’이란 현판을 썼다.

3. 林檎

1) 광주 등립사

소재지 : 광주 광산구 등림동 7-1

조선 명종때의 절신 금호 임형수, 송과 임식, 관해 임회를 제향한 사우로 1957년에 건립되었다. 배향된 임형수는 나주 송월동에서 출생, 중종 26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35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으로 활동하였으며, 병조우랑, 이조우랑, 사헌부장령, 홍문관교리, 사간원사간, 의정부사인, 홍문관응교 전한등을 역임, 을사사화로 1547년 34세로 사사되고 금호집 1권을 남겼다. 임식은 1539년 출생 1564년 사마시에 합격, 1572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주서를 거쳐 성균관

전적 영남호송관, 호남순무어사, 호서경차관, 평안도사, 해운영변관관, 구성부사를 역임하였으며 1589년 51세로卒하였다. 매년 음력 9월 15일에 제향한다.

2) 觀海遺稿

임희의 觀海遺稿는 남긴 작품이 적은 까닭에 중부 임형수의 錦湖遺稿나 백형 임식의 松坡遺稿 처럼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1681년 광주목사 李敏紱(1633~1688)의 협조를 받아 목판으로 초간본 錦湖遺稿 1책을 간행할 때 觀海遺稿를 뒤에 붙였다. 그 뒤 1907년 목판으로 중간본 金湖遺稿 乾·坤 2책을 간행할 때, 임희의 觀海遺稿를 金湖遺稿 坤冊에 附集하였다. 최근에 발간한 嶺南 觀海遺稿는 1907년에 간행한 중간본 金湖遺稿의 附集인 觀海遺稿를 대본으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임희의 시는 觀海遺稿에 실린 53題 58首가 전부이다.

X.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 기준안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대상문화재
정렬사
전남 나주시 정렬사길 43

■ 문화재 및 보호구역

- 범례
- 문화재구역
- 제1구역
- 제2구역
- 제3구역

■ 축적

0 4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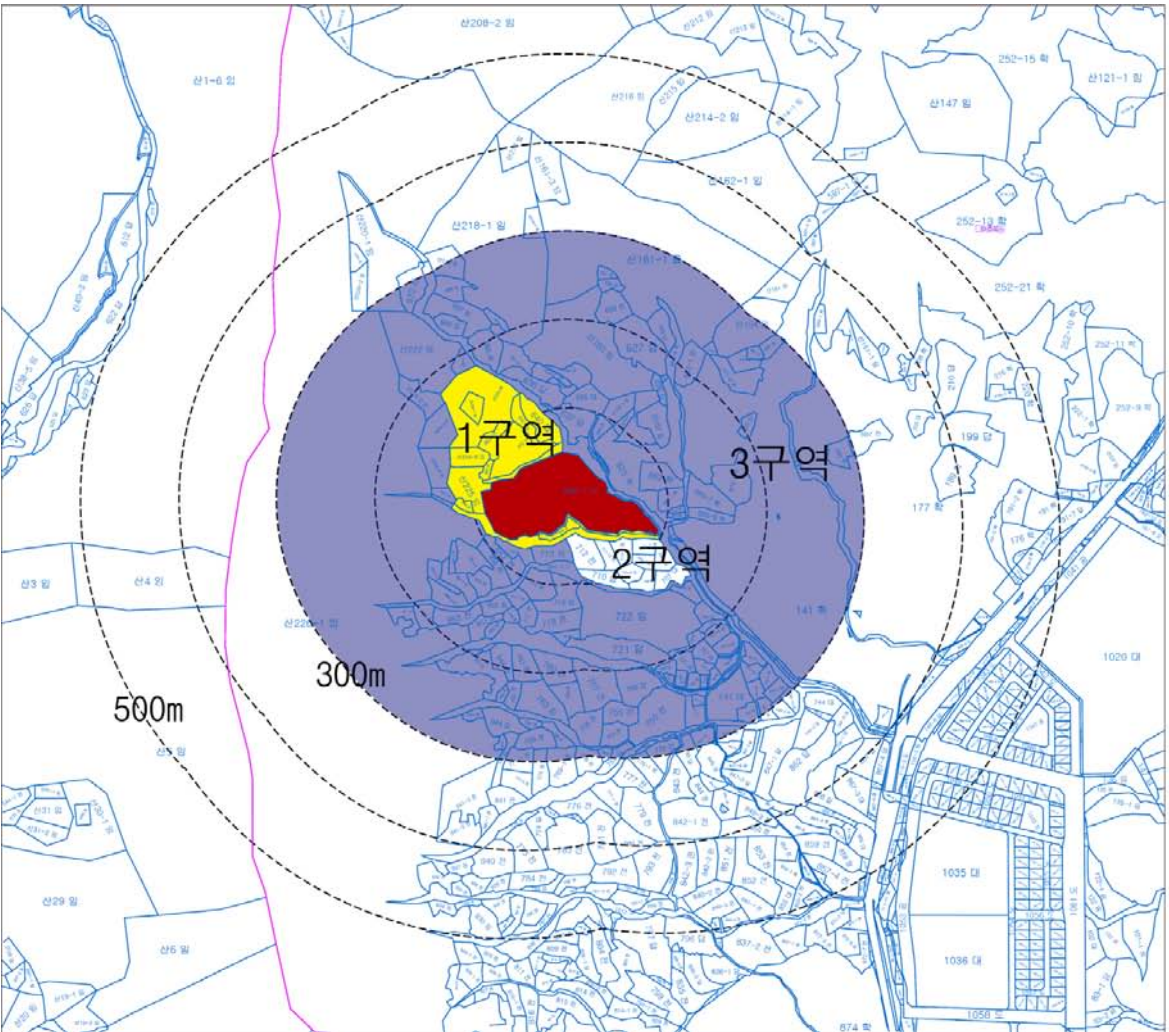


그림 45.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표 8.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제1구역	원지형 보존(신축불가,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최고높이 8m(2층) 이하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 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전통기와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XI. 보존 활용 계획

1. 보존 정비 계획

1) 정렬사 내부 건축물 및 기타 문화재 관리

- 정기적인 정비 및 보수작업 실시(소규모 보수는 매년 분기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소소한 수리 정비는 수시로 실시)
- 특히 전라남도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정렬사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수 필요
- 설계를 통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설계심의와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

2)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시설 정비
- 관광객 야외 쉼터 설비

3) 역사문화벨트 조성

- 정렬사와 금성산을 연계한 탐방로 내에서 스토리텔링 소재 발굴 - 역사문화벨트 조성

2. 활용계획

1) 목적

-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른 역사관을 가진 미래 인재 육성
-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 창출
- 문화재를 통한 지역민 공감대 형성
-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 문화재지킴이 육성 - 교육과 홍보를 통해 나주시민 스스로가 보존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유도
- 정렬사 내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일반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렬사 대체나 기타 행사 때 참관 관찰의 기회를 제공,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실시
-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한 순례와 체험 - 나주 시내 역사 문화재와의 연계 프로그램 실시
-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
- 현대 시기에 맞는 새로운 주제로 어린이 및 청소년 의병 조직
- 선비 체험 · 제례의식 체험 등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